하늘나래

하늘인,
늘 지금처럼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지 '하늘나래'는
학생 여러분들의 글과 소식으로
매년 1회 발행되는 문예지입니다.

하늘나래

1. 하늘인, 늘 지금처럼!

8 연표
10 학교 안내
11 인사말
14 하늘고 사진전

2. 늘 활기차고

16 동아리
25 스포아츠
38 광고
39 학술제

3. 늘 행복하고

48 체육대회
52 수학여행
59 꽃동네 봉사활동
63 테이블 매너 교육
66 하늘고 사진전
67 진로아카데미
71 체코 대사
72 도서관 행사
74 뮤지컬 특집
78 기숙사 특집
86 SNS 특집
95 매점 특집

4. 늘 사랑하고

98 학생회
102 My Pair 특집
105 입맛 다른 남자의 비밀 레시피
110 걱정 마, 선배가 간다!
118 사랑의 메시지
125 광고
126 수능 후에
132 대입 성공기

5. 늘 함께이길

138 1,2학년 담임 특집
146 응답하라, 리즈 시절
147 교사 사진전
148 교장 선생님 인터뷰
152 TALK TO YOU part.1
159 광고
160 교사 사진전
162 TALK TO YOU part.2
167 광고
168 하늘고 사진전

6. 늘 영원하길

170 반별 한마디
194 STAFF

연 표

Start

3월

- 제5회 입학식
- 제2대 김일형 교장선생님 취임
- 창의융합 R&E 프로젝트 시작
- Brian Mahoney의 리더십 특강
- 진로 적성 검사

4월

- 학부모 상담주간
- 학급 임원과 사법위원 임명
- 중간고사
- 대학별 입학 설명회
- 교과별 교내 경시대회

5월

- AP 시험
- 학교 브로슈어 촬영
- 대학별 입학설명회
- 1차 학교설명회
- 하늘가족체육대회
- 3학년 졸업사진 촬영
- 사랑의 편지 쓰기, 효 교육, 친구 사랑의 주간
- John E. Endicott의 비핵화 특강

6월

- 삼겹살 day
- Tomas Husak 주한체코대사 방문, 글로벌 미팅
- 진로 특강
- 학생회장 선거

7월

- 기말고사
- 리더십 프로그램
- 1학년 글로벌 테이블 매너 교육
- 2학년 현장체험학습
- 방학식
- 제2차 학교설명회

8월

9월

- 대수능 원서접수
- 개항장 누리길 체험활동
- 제3차 학교설명회
- 중간고사

10월

- 1학년 음성꽃동네 봉사활동
- 2학년 해외체험학습
- 창의융합 R&E 미디어 데이

11월

- 대학수학능력시험

12월

- 기말고사
- 학술제
- 겨울방학식

End

학교 안내

1. 교훈

꿈을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2. 교화 · 교목

매화 : 예로부터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결한 품성의 선비를 상징합니다. 이는 매화의 맑고 청아한 기상으로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는 인천하늘인을 의미합니다.

3. 교육목표

건학이념 :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핵심가치 : 지성과 인성, 공동체적 가치, 창의적 도전, 세계인을 꿈꾸는 요람

교육목표
개　인 :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 1예 · 1체
사　회 :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공동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간
세계화 :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인간

4. 학교장 경영방침

건학이념의 구현 – 꿈과 열정을 지닌 창의적, 도전적 인재로 키운다.
–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 시민을 기른다.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할 책무성 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교원상 –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신념을 가진 건강한 교원이 된다.
–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제자를 교육하는 헌신적 교원상을 수립한다.
–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한다.

학생상 –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자란다.
–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한다.
– 미래를 선도하는 새 시대의 선구자적 인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인천하늘고 주작, 드디어 하늘을 날다

교장 김일형

"하늘고 경사났네... 서울대 합격자 15명 배출 1위
인천의 첫 자율형사립고인 하늘고가 2016년도 대학입시에서 인천지역 120여 고교 가운데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19일 동아일보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 공항이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설립하였다. 그리고 개교 6년 만에 드디어 인천 지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되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큰 자랑이라 여긴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자연과 어우러진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걸맞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우수한 교사진과 함께 최고의 수업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중학생들이 오고 싶고, 학부모님들 역시 믿고 보내고 싶어하는 공교육의 모델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위에서 1등이라 하는 위치에 오고 나니, 1등의 값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 학교의 목표는 꿈과 열정을 가진, 3C-Character(품격), Commitment(헌신)을 바탕으로 Competence(실력)-를 갖춘, 글로벌 리더이다. 우리가 운영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로 인한 결과는 분명 객관적인 수치로 보아 실력면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당당히 1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품격'과 '헌신'도 자신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애썼고, 아이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왔다. 기본적인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테이블매너교육, SpoArts(1예술1체육)프로그램, 태권도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은 자리마다 지켜야할 예절을 배우고 자기를 고양하는 품격을 갖추었을 것이다. 또한 2박 3일의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영종도 중학생 대상의 멘토링 교육 봉사, 난민센터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교육 재능 기부는 자신을 내어놓은 헌신의 마음을 알기에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ess of me, More of us. '우리'를 생각하는 '나'가 되어, 우리 인천하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꿈과 열정을 키워야한다.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3C를 두루 갖춘,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 교육의 길이 우리가 인천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명문고가 되는 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끝으로 금년 세 번째로 발간되는 교지 '하늘나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학교의 여러 면모를 기록하고 기념하여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도 교사 김민희 선생님과 편집 위원들에게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늘고, 품격 있는 학교

학생회장 유현승

작년, 두 번째 '하늘나래' 교지의 제 2, 3대 학생회장 선배님들이 작성하셨던 편지를 읽던 때로부터 벌써 일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인천하늘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 되어 전체조회에서 인사를 하고 수능응원 준비, 선생님들과의 여러 회의, 그리고 학술제 준비도 하는 등 일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느새 학생회 활동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4대 학생회가 출범한 후 학생회장단은 김일형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하늘고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라"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저는 오랜 시간 '우리 학교만의 문화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으며 마침내 교장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품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과 지혜로운 학생, 멋진 학교 환경까지 모두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기 충만 5기 발동'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스 운영 후 정리정돈이나 장기자랑 이후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말 다른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께서 '인사를 잘하는 학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말이 우리 학교를, 하늘고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품격을 더욱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우리 하늘고의 발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비상할수록 우리 하늘고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말하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인천하늘고 입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고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선생님과 선 · 후배,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곳이자 또 제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기숙사 생활에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과정에서 저는 서로 돕고 협력하며 값진 경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과 지지를 해 주는 든든한 2학년 부회장 여시명, 1학년 부회장 도솔을 비롯한 학생회 부장, 차장 임원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저의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고 학생 여러분, 부족한 저를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와 학생을 섬기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하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그 사랑의 기억

교지 편집장 김지민

어느덧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일기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을 쓰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늘나래 교지편집부장 김지민입니다. 하늘나래 3호를 마무리하자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이야기를 실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교지편집부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에서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형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을 향한 교장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이라 표현하시고, 하늘고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그런 인터뷰의 분위기가 편집되어 실린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교지편집부원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사진 좀 보내줘. 내 이메일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규정상 핸드폰이 없다보니 하늘고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용량이라는 엄청난 변수도 존재하여, 막상 받은 사진들을 싣지 못하게 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줘서 교지에 많은 사진들이 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편집부의 역할은 다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묶어내는' 것입니다. 하늘나래에 실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인터뷰 진행에도 오히려 웃음으로 화답해주신 김일형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여사님, 학교 선생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고3임에도 번거로운 설문지를 즐겁게 작성해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진 요청과 소소한 인터뷰에 응해준 동기 친구들과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교지편집부를 담당하시고 매년 더 좋은 교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2년에 걸쳐서 교지편집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지편집부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나래를 통해 2015년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활기차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늘고'를 묻는다면,
당신은 하늘고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언제나
늘 푸른 하늘같이 맑고 명랑한 '당신'이다.

동아리

여러 가지 특색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자랑거리에는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전국을 기준으로도 우수한 동아리로 손꼽히는 학생 주도의 동아리부터 각종 대회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그리고 고교 생활의 활력소이자 힐링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자.

역사동아리 **역동**

역동은 '역사는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역사 마블을 제작하여 재미있는 게임 진행, 역사적 쟁점에 'if~'를 달아 '만약 내가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나의 선택은?' 등에 대한 토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캠페인 활동 및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하늘고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동아리 **YUPAD**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동아리 YUPAD는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며, 연구와 토론 활동으로 자신들의 열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전국총회 참석처럼 전국 YUPAD의 전체 활동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찬반토론, 라운드 강의 등의 교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하늘유네스코**

한국 유네스코 ASP-net(협력 학교 프로젝트)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총 일곱 가지의 주제가 주어지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공정무역과 관련된 코코아 만들기 캠페인, 환경운동의 일환인 폐휴지 줄이기 캠페인, 난민 관련 신문 만들기 활동 등을 꾸준히 지속하며 국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동아리 **CiPiE**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접할 수 있는 동아리로, 경제관련 다큐 시청, 기업 조사, 분석 및 발표, 초빙강사 강연, 경제 토론 등 다양한 경제경영활동을 합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모아온 동아리 자금을 직접 운영하고, 교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여 수익을 내 기부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나 전국 단위의 경제 동아리 단체에도 적극 참여하며 하늘고를 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므로 경제 경영에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심리학 동아리 **Pshcholic**

사람의 행동과 심리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자신이 궁금증을 느꼈던 분야에 대하여 공부하고 발표를 통해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하며, 영상 분석과 다큐 시청,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아리원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심리학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서부 **DPC**

하늘고의 독서 문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아리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문화 활동을 통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 논술활동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내 행사에 주축이 되어 앞장서거나 여러 도서관으로 체험학습을 가기도 합니다.

영자신문 동아리 **동인**

영어에 대한 열정으로 완성도 높은 영자신문 발간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 '동인'은, 부원들의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활발한 토론활동을 통해 각자의 speaking, writing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매력적인 동아리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겨 부원들과 함께 영자신문으로 발간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영문으로 글을 써서 '하늘 포스트'에 기재했습니다.

물리 동아리 **HTTP**

기본적으로 물리교과에 관심이 많으며 물리와 관련된 학과로의 진학을 꿈꾸는, 열정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입니다. 과학관 탐방, 물리의 원리를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증명한 보고서 작성 활동, 꾸준한 외부 활동 등으로 물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화학 동아리 **ALCHEMIST**

화학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을 설계, 실행하며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최근에는 다니엘 전지 실험, 에스테르 합성 실험, 황산구리 결정 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원 개개인별로 주제를 정해 발표하는 세미나 활동을 진행하여 여러 과학적 이슈나 전공분야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IT 동아리 **HAM**

하늘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사랑하는 공돌이 친구들이 모인 IT 동아리입니다. 무려 남녀 성비 16:1이라는 미래 공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동아리 활동의 수준 또한 공대처럼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C#을 배워보기도 했고, Scratch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게임을 만들어 학술제 때 시연해보기도 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하였습니다.

건축 동아리 **ARCHI**

대한민국 건축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건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건축 관련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청강 후 토론 활동, 건축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개발, 이웃 학교의 다목적관 설계, 실내디자인 스케치업, 도면 그리기 등 내실 있고 창의성 있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융합과학 동아리 **ISHA**

과학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탐구와 실험활동을 통해 과학을 더 자세히 알아가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학생과학관을 방문하여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게임을 진행했으며, 혈액형 판정 실험이나 편광 필름 탐구 실험, 기압과 압력에 관련된 실험 등 생명과학과 물리, 화학 등 종합적인 과학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연합 동아리 **아르티피키움**

아르티피키움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동아리로, TED 영상을 직접 촬영해보고 잡지를 제작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팀을 나누어 각자 주제를 선정한 다음, 토론과 심층 조사를 거쳐 발표 영상을 찍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년 말에 개인 기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잡지로 발간합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잡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수학탐구 동아리 **GLON**

글론은 Great Language Of Nature의 줄임말로 자연 최고의 수를 다루는 학문, 수학을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수학을 어렵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활동보다는 수학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은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널리 쓰이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과학과 경제, 철학과 관련된 연관성을 탐구해보았습니다.

생물 동아리 **Bio Farm**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최강 동아리라고 자평하는 동아리로, 생물 실험과 더불어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동아리 시간마다 혈구 관찰 실험, 호르몬에 따른 물벼룩 심장 박동 실험, DNA 전사 번역 모형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신장하고 있습니다.

천체학습 동아리 **COSMOS**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고, 지구과학과 관련된 꿈을 가진 학생들의 동아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지질, 대기, 천문)로 나뉘어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질 부분에서는 편광 현미경, 클리노미터를 이용한 활동, 대기 부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기상 관측, 천체 부분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천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의 동아리 자체 캠프를 통해 천문관련 지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항공 동아리 **AIR**

평소 항공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RC비행기 제작이나 RC비행기와 드론 조종을 통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 항공뿐만 아니라 기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동아리입니다. 또한 항공대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항공에 관한 이론을 쉽게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봉사 동아리 CARITAS

카리타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봉사하기도 하고, 학교와 지역의 환경미화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작지만 꾸준한 봉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봉사나 사회현상과 연결 지어 토의하면서 진로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봉사 동아리 Volunteacher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서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동아리입니다.
교내 선생님 특강, 시강 연습 및 상호평가, 다큐멘터리 시청뿐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 홍보 동아리 S.O.C

인천하늘고등학교의를 외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광고와 홍보'에 대해 알아가는 목적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학교의 입학설명회나 신입생을 선발하는 면접을 도우며, 방송부와 연합하여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진로탐색 UCC 공모전'이나 '국가정책 제안 UCC 공모전'처럼 UCC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역량을 기르기도 하며 기업별 홍보전략 등을 분석, 발표하는 활동 등을 했습니다.

방송 동아리 ON AIR

교내의 여러 행사에서 진행과 영상 제작 등을 도맡아 하는 방송 동아리입니다. 각 행사마다 영상 촬영과 방송기기 조작 등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적으로는 교내 방송 진행과 수능 응원 영상 제작, 졸업식 영상 제작, 학술제 진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외교 동아리 반크

세계인들에게 왜곡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시정하는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이버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알리기' 교내 캠페인과 '독도는 우리 땅' 교내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반크 동아리 연합총회에 매달 참여하고 있습니다.

밴드 동아리 루미난트

교내 동아리의 꽃이자 학교의 여러 행사마다 그 실력과 존재감을 인정받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교내의 다양한 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자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연습하고 동아리원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Cielo**

악기 연주를 통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단합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주 봉사 등을 동아리의 기본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 40명의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시간, 여가 시간 및 학술제 기간에 모여서 개인 연습과 합주를 하며 학업에 대한 중압감도 내려놓고 음악적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연극 동아리 **연극부**

연극과 무대를 사랑하는 동아리 연극부에 오시면, 즐기면서 연기를 배울 수 있고 직접 활동하면서 무대와 관련된 연출이나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극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주로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아리원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으며, 학년 말에는 학술제를 통해 이렇게 준비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발표 능력과 무대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포아츠 SPOARTS (1인 1예 1체)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학교특색 프로그램 스포아츠(SPOARTS).
각 강좌별 간단한 소개, 수강 학생들의 소감 및 평가를 들어보자.

No.	영역	강좌명	No.	영역	강좌명
1	예술	가야금	19	예술	플루트
2	예술	다도와 생활미학	20	예술	피아노
3	예술	대금	21	예술	해금
4	예술	더블베이스	22	체육	검도
5	예술	도자공예	23	체육	농구
6	예술	바이올린	24	체육	댄스
7	예술	보컬트레이닝	25	체육	라크로스
8	예술	비올라	26	체육	배드민턴
9	예술	수예(자수)	27	체육	요가
10	예술	우쿨렐레	28	체육	절권도
11	예술	일렉기타	29	체육	축구
12	예술	작곡	30	체육	탁구
13	예술	종이접기	31	체육	태권도
14	예술	첼로	32	체육	테니스
15	예술	클라리넷	33	체육	합기도
16	예술	클래식기타	34	체육	헬스
17	예술	통기타	35	체육	자전거
18	예술	회화	36	체육	권투(복싱)

※ 각 강좌에는 제한 인원이 있어, 그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분반 수업을 함.
아래 수강 학생의 소감은 분반을 고려하지 않음.

비올라
- 진짜 차도녀처럼 생기셨는데 진짜 착하심.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 선생님 연주 멋있음
- 작고 귀여운 선생님, 수다 떨 땐 귀엽고 비올라 할 땐 무서움!
- 샘 아침식사 거르신 날 = 우리 맛있는 거 먹는 날
- 선생님과 함께 고급스러워지는 기분
- 실력과 관계없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다.

다도와 생활미학
- 인생의 여유와 하늘고 생활의 안식처를 찾고 있나?
- 인자함의 극치를 달리는 선생님
-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며, 대인천하늘고의 정기를 느낌
- 개꿀.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힐링하는 시간
- 힐링 타임. 차는 거들 뿐.
-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늘인의 품격
- 한 주 간의 자아성찰 타임.
- 차 한 잔의 여유. 시와 함께 하는 감성적인 티타임. 친한 친구 있으면 꿀
- 교양인이 되는 기분. 차와 함께 시의 세계로 떠나요!

대금
- 배움과 포만감의 조화
- 대금 불어서 어지러운 머리를 매점으로 힐링
- 대금을 이용하여 현대 가요나 민요를 연주해볼 수 있다.
- 선생님이 천사요.
- 맨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심
- 말을 잘 걸어주셔서 수업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좋다.

더블베이스
- 1:2의 수업이라 그런지 선생님이 매우 친숙. 끝나면 매일 먹을 거 사주심.
- 소수 수업으로 쌤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악기로 연주한다는 자부심.

바이올린
- 파가니니가 되는 시간
- 친절 그 자체. 선율은 김태희
-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 실력이 쭉쭉 상승
- 바이올린 소리만큼 예쁜 선생님의 목소리
- 1:1 교습으로 바이올린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다.
- 선생님의 무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음
- 선생님의 미모 폭발! 게다가 바이올린 천재
- 친절하게 가르쳐주심. 마지막에는 합주도 함.
- 수업에 대한 열정이 많으심. 완전 귀여우세용!
- 바이올린 왕초보라도 바이올린A 수업을 들으면 '마법의 성' 정도는 가볍게 연주할 수 있게 됨.
- 절대 휴강 없음.

보컬 트레이닝
- 자신감과 함께 올라가는 나의 목소리. 단, 컨디션 조절은 필수
- 너의 그 듣기 싫은 목소리를 사람답게 고쳐줄 거야.
- 소음 같던 내 목소리의 진가를 찾는 시간
- 튀는 자와 부르는 자
- 남들 다 보는 데서 노래 불러 쪽팔림
- 미친 노래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심.
- 내가 부르는 것보다 남 부르는 거 듣는 게 더 재밌음!
- 얼굴은 pretty, 성량은 빅마마
- 놓치기 쉬운 부분과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주심. 단점을 고쳐주시려고 여러 팁을 알려주신다.
- 밴드부가 아니더라도 노래방 기계를 쓸 수 있다.
- 꿀팁 자판기. 성대 관리법
- 보컬샘 목소리 최소 BMK

가야금
- 우리의 가락과 정취를 내 손으로 만들었소이다.
-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 있어 보이는 곡을 연주할 수 있음. 가야금B 추천!
- 1:1 개인교습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잡아주심. 맛있는 것도 주신다.
- 처음 만나는 궁중음악. 귀의 정화와 함께 하는 고전체험
- 가야금 후 손에 피가 고일 때 희열감을 느낌.
- 우아함은 가야금에서 폭발. 우아함의 최고봉은 바로 쌤!

수예(자수)

- 나를 현모양처로 만들어주는 수업
- 숨겨진 나의 여성성을 발견하는 시간
- 1예 하면서 처음으로 안 자고 집중한 시간. 굉장히 정적이나, 손쓰는 거 좋아하면 추천!
- 바느질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수다 대방출 타임
- 열심히 안 한다고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듯 하지만, 막상 아프거나 하면 진짜 걱정해주시는 츤데레 선생님
- 선생님이 차분하시고 꼼꼼하게 다 알려주신다.
- 이선희 콘서트장에 온 기분
- 은근 애교 많으신 선생님. 잘 도와주시고 친절, 다정
- 수예도 하고 친구랑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음. 은근 재밌고 예쁜 거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음.

우쿨렐레

- 샘 예쁘다. 남자들아 모여라.
- 하늘고에서 하와이를 즐긴다.
- 자면서 코드 잡고 연주하는 나를 발견
- 내 눈 앞에 음표가 보여.
- 열정적인 선생님. 진짜로 '뭔가'를 배워간다.
-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숙련도가 떨어진다.
- 밝고 명쾌한 선율이 명랑하게 뛰어다니는 수업
- 쉽게 가르쳐주시려고 애쓰시는 게 눈에 보임.
- 선생님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이 만나 화산처럼 폭발!
- 아담한 크기의 우쿨렐레로 여러 소리를 낼 수 있음.

일렉 기타

- 자상하시다.
- 가끔 먹을 것도 사주심.
- 일렉 기타와 락 음악의 전반을 배울 수 있음.

작곡

- 가장 학구적인 분위기가 나는 1예 활동
- 한결같이 늦어도 한결같이 웃어주시는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 해야 되는 작곡도 잘 가르쳐주시면서 간식도 많이 사주심!
- 쌤이 예쁘심. 먹을 거 잘 사주심. 그러나 수업이 빡셈
-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악보로 바꿀 수 있다.

첼로

- 누가 봐도 음대생.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비주얼. 센스 있는 뒤풀이는 기대해도 좋음.
- 대충 연주할 수 없게 오목조목 다 짚어주시는 섬세함과 꼼꼼함 때문에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강추.
- 첼로를 잡으며 달달한 분위기 연출
- 엔젤 오브 엔젤인 선생님. 매일 까먹어도 매일 웃으면서 다시 가르쳐주신다.
- 언니 같으신 선생님
- 악기가 크고 멋있어서 더욱 자부심이 생김.
- 샘도 친절하시고 인원수도 적어서 실력 상승의 정도가 좋음.

클라리넷

- 개꿀
- 클라리넷으로 모든 연주가 가능해지는 진기함을 맛보고 싶다면
- 간접 키스 조심
- 예쁜 쌤의 유행어 "~해볼까?"에 노이로제 걸릴 듯

클래식기타

- 이 시간만큼은 기타 치는 로이킴
- 열심히 배워 이성을 유혹하자.
- 기타로 이 세상은 내 것이 된다.
- 너도 이제 카사노바가 될 수 있다.
- 쿨하시지만 알려주실 건 다 알려주심.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심
- 옆집 삼촌 같은 친근함. 국밥 같은 푸근함
- 그동안 꿈꿔왔던 기타곡들을 칠 수 있음.
- 선생님 머리에 두른 두건에서부터 느껴지는 고수의 느낌적인 느낌
- 손톱 깎고 가라.
- 실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수강한다면 완전 실속 있는 수업일 것 같음.

종이접기
- 종이 그 이상의 감동. 작품 들고 다니면 다들 부러워 함.
-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손 경험
- 선생님이 부처님이시다
- 진짜 재밌고 유익함. 예쁘게 만들어서 면학실 책상을 꾸민다. 하늘고의 활력!
- 어색함 없이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 따뜻하고 귀여우신 샘. 선생님이 엄청 사랑스러우심

통기타
- 최신 노래와 악보 상시 제공
- 휴대용 스피커로 원곡과 맞춰보며 실력 향상 가능
- 마치 내가 멜론차트 TOP100 플레이어가 된 것 마냥 최신곡을 쉽고 재밌게 기타로 칠 수 있다.
- 미모의 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기타 수업
- 홍대여신. 수준별 핫한 신곡들을 내가 직접 연주 가능
- 감미로운 기타 선율에 올라서서 자신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음.
- 주얼리의 예원 닮은꼴. 예쁜데 기타까지 잘 치셔서 그냥 끝-
- 항상 칭찬해주셔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착각인 것을 후에 알았다.)

플루트
- 플루트 열심히 불다가 선생님의 미모에 놀라서 삑사리
- 선생님께서 1:1 렛슨을 해주셔서 실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됨.
- 친절하고 다정하신 선생님. 언제든 우리를 이해해주신다.
- 흐트러짐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
- 연예인 빰치는 외모의 선생님과 함께 함 (단, 여탕임)
- 백아연 닮은 요정 같은 선생님. 진짜 날아다니실 것 같음.

피아노
- 쌤이 연주하시는 거 들으면 연주회 온 것 같음.
- 신청할 때 경쟁률이 엄청 셈. 연습실도 각각 있고 그랜드 피아노는 진짜 갑.
- 정말 세세하게 성심성의껏 알려주심
- 진정한 음악을 배워갈 수 있음. 강추!
- 인원이 적어서 꿀

해금
- 선생님의 환상적인 연주를 감상할 수 있음(입벌림 주의)
- 뛰어난 실력+알찬 수업+예쁜 선생님
- 여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꿀수업
- 꿀잠 자는 게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같은 쓰레기가 된다.
- 자유 시간이 아주 많다.

도자공예
-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고상함과 여성스러움 발산의 시간
- 무엇보다도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는 장점을 가짐. 아기자기한 거 만드는 것 좋아한다면 추천! (물레 돌리는 거 아님)
- 선생님 완전 능력 좋으시고, 잘못 만들었는데도 굽고 나면 예쁨 ㅋㅋ
- 여기서 만든 팔찌를 차고 다닐 수 있는 강한 자신감 필요
- 친구들과 함께 하면 아줌마가 되어 부업하는 느낌
- 만들기,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
- 도자공예 선생님의 멋진 인생 이야기
- 수업이 끝나고 내가 만든 컵 같은 거 가질 수 있어서 뿌듯

회화
-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유영 샘과 함께 하는 명화 따라잡기!
- 재미있음. 분위기도 즐겁고 그림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음
-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점점 욕심이 생김
- 오늘만큼은 내가 반 고흐

검도

-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그 후 간식을 먹음 (ㅋㅋ)
-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제일 강하다
- 운동 하러가서 살쪄 오는 기이한 수업
- 하늘고 출신 선배와 친해지면 굿! 언니 좋아요!
- 롯데마트의 공기를 느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 검도 한 뒤에 먹는 바나나 우유, 호떡, 오뎅, 떡볶이 진짜 짱짱♡
- 발바닥이 아프지만 속은 후련해짐, 수련 후 달콤한 휴식

농구

- 자네, 조던이 되고 싶은가?
- 걍 농구인에겐 필수인 수업. 친구 같지만 실력은 친구가 아닌 선생님은 덤.
- 샘이 3점 슛 10개 던지면 최소 8개 들어감. 12번 연속 3점 슛 성공 등 같이 하다보면 뭔가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수업.
- 삶의 활력소. 그냥 꿀잼
- 자세 교정과 플레이를 배우며 게임하는 시간
- 4시간의 점심 전 사투
- 농구가 재미없다고? 이거 들으면 축구고 야구고 간에 다 하기 싫어진다. 농구 짱!
-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시고 어색함 없이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쌤이 계심. 3학년 되면 스포아츠 못하는데 마지막 날 쌤보고 울듯

댄스

- 춤신으로 거듭나는 시간
- 곁에 있으면 춤추고 싶은 댄스리즘을 경험하게 됨.
- 귀여운 얼굴에 완벽한 몸매의 선생님
- 스트레스 100% 해소, 가끔 선생님의 막춤에 정신이 혼미
- 춤 잘 추는 애들만 가자. 다 예쁨.
- 몸치도 순식간에 댄서로 만들어주는 가족 같은 수업. 댄스수업은 모두의 관심사
- 학교의 꽃, 섹시 퀸들의 집합소
- 두 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돌이 된 것 같다.
- 내가 이 구역의 현아
- 수능 응원 플래시몹과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돈독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음.

라크로스

- 스틱으로 때리면 욕먹고, 몸으로 때리면 에이스 된다.
- 국가대표로 키워줄게, 컴온 in 라크로스!
- lacrosse is my life
- 학교 대표로 나가는 책임감과 자부심. 대회 우승할 경우 뿌듯함과 기쁨은 덤.
- 하늘고를 왔다면 라크로스 정도는 해줘야지?
- 아프다, 즐겁다
- 선생님이 매우 재밌으시다. 학생들과 친밀도가 높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정말 좋다.
- 남자라면 느껴야 할 끈끈함을 넘어선 끈적함.
- 주장이 잘생겼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 겉보기엔 몸싸움이 거친 스포츠 같지만, 직접 해보면 팀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됨.
- 일 년에 3번 나가는 특목고 리그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음.
- 코치 선생님이 잘 생김. 키 크고 어깨 넓은 훈남. 회식할 때 분위기 좋고!

배드민턴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 굉장히 free한 환경. 신청하려면 마하10의 클릭 속도 요구
- 얍삽한 플레이도 능력이다.
- 자유롭게 친구들과 경기하는 수업
- 선생님께서 편하게 잘 대해주심
- 인기가 많아서 광클이 필수
- 선배들이 많으면 많이 어색할 수 있음.

요가

- 완벽한 바디라인을 위해 난 오늘도 다리를 찢는다.
- 숨어있던 내 몸의 라인을 찾아가는 시간
- 정말 제대로 된 요가 수업을 받고 싶다면 요가A로! 쉬엄쉬엄 한 주 동안의 피로를 스트레칭으로 날려버리고 싶다면 요가B로!
- 이상하고 웃긴 사례, 이야기 자주 해주심. 재미있음.
- 기이한 자세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됨. 내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관절브레이커. 힘들지만 건강해지는 느낌
- 요가도 배우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배우는 꿀수업

• 우리를 바닥에 100번씩 굴려주심. 요가 후 휴식시간 꿀. 몸매 교정에 도움
• 귀에 때려박는 목소리.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면서 요가 수업은 끝나지 않는다....
• 끝나기 몇 분 전에 갖는 수면시간이 정말 꿀
• 쌤과 함께 관절 관절 마디마디까지 펴지는 땀나는 요가 수업
• 오래 앉아 있어서 아픈 허리를 치유하는 시간

절권도

• 카와이함 속에 강인함이 들어있는 세계 최강의 격투 천재. 그의 정체는 국어교사?
• 선생님이 쉽게 볼 수 없는 절대 고수. 매순간 경탄을 금치 못함.
• 인간병기 이.중.언.
• 두들겨 맞으면서 커감
•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엄청 위험할 때 쓸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
• 일주일 두 시간의 지옥 경험, 달라지는 친구들의 태도. 열심히 안 할 생각이거나 몸이 약하면 오지 마세요. 진심진심진심 죽어요.
• 핵꿀잼 타임! 맞는 게 더 재밌는 수업

축구

• 내가 이 구역의 메시이므로 운동장이 좁구나
• 이 시간만큼은 내 슈팅은 즐라탄!
• 챙겨주시는 코치님. 친목 쌓기에 가장 좋은 시간
• 공격의 기술을 세세히 알려주심
•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구
• 내가 본 사람 중에 축구 제일 잘하는 선생님
• 축구도 재밌지만, 간간히 먹는 간식 꿀
•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 갖가지 간식 제공, 축구 실력은 최강
• 쓸 데 없는 연습이란 없다! 순도 100%의 축구
• 아이들과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비와 눈을 맞으며 달리는 이 상쾌함. 훗!

여자 축구

• 여자이고 태어나서 처음해본 축구이나, 맞춤식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 덕에 정말 즐겁게 축구를 배웠다.

이만큼 알차고 재밌는 수업, 없을 걸~
• 매 수업마다 경기에 내기를 걸어서 매점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음.
• 축구 기술 꼼꼼하게 알려주심
• 감독님과의 일탈, 걷잡을 수 없는 질주 본능

태권도

• 품새, 발차기 같은 기본부터 피구, 축구, 뜀틀 등 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목은 다 해본 것 같다. 체력 향상에 많이 도움된 것 같다.
• 날렵한 발차기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품새 동작을 하나 하나 정확히 알려주신다
• 현재 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랑 잘 놀아주신다.
• 태권도뿐 아니라 축구, 피구, 줄넘기 등 미니게임의 천국
• 오래하면 할수록 편한 수업

탁구

• 꿀. 확실히 운동 중 최고인 듯
• 탁구는 채빨!
• 배워가는 게 많다. 친구들끼리 내기해서 먹는 거 개이득
• 영화 '코리아'를 찍을 수 있음
• 전문 트레이너에게서 탁구에 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 탁구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탁구 리그전! 수업 세 번이면 굴러가는 탁구공 잡기의 달인이 된다.
• 올림픽 뺨치는 '싸나이 랭킹전'의 탁구 교실

합기도

• 완벽한 선생님, 많은 여학생
• 이것이 바로 무도(武道)요, 이것이 바로 드립이다.
• 밤거리가 내 스테이지가 된 듯한 당당한 안전감 확보
• 경훈샘의 드립 덕에 항상 화기애애한 곳
• 합기도 하나는 멋지게 소화할 수 있다!
• 선생님의 개그와 늘어가는 실력에 치한을 비롯해 그 누구와의 싸움도 걱정이 없음.
• 제일 스포츠답다. 재밌고 보람있다.
• 경훈샘 때문에 웃다보면 두 시간 지나가 있음. 단증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 할 거면 1,2학년 연속으로... 그럼 2단!

테니스

- 테니스도 테니스지만 노가리 까는 게 제맛!
- 테니스와 탁구를 넘나드는 능력을 소유하심.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수업. 열심히 하다보면 나도 테니스의 왕자
- 생초보도 기본기는 익힐 수 있는 수업
- 선생님의 실력과 재치는 10점 만점에 10점!
- 테니스 왕초보도 공을 칠 수 있게 하는 마이더스의 손
- 마동석 닮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심. 쌤 짱짱 좋아여!
- 친구들과 테니스 치면 살 빠지는 느낌이 팍팍 든다.
-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합법적인 하늘감옥 탈옥의 시간!
- 선생님의 열정만큼이나 진하고 뜨거운 땀냄새
- 흥겨운 추임새와 함께 하는 열정적인 수업. 랠리가 진행될수록 행복해 보이는 선생님
- 진정한 전신 운동. 강철 체력을 가질 수 있음.
- 평생 들을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수업
- 과학고로 걸어가서 테니스를 치며 느끼는 삶의 여유
- 유머러스한 선생님과 즐거운 테니스를 치면서 보내는 하루

권투 (복싱)

- 경훈쌤스러운 아저씨 드립을 구사하시는 관장님. 1:1 싸움의 기술도 알려주심. 1년 수강 후엔 나도 파퀴아오!
- 개그의 천재, 삼촌 같으신 분
-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인자한 선생님
- 모든 수업 중 가장 먹을 걸 많이 사주심.
- 자유롭고 재밌다.
- 숨겨져 있던 보석. 살 빠는 운동
- 기본 스텝부터 어퍼컷까지 배울 수 있다.
- 푸근한 인상의 경상도 동네 관장님
- 각종 동작을 잘 알려주시고 스파링도 할 수 있음.

헬스

-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생 수업과 헬스 수업 해주심
- 쌤은 '사랑과 연애과' 수석 졸업일 듯. 연애팁 지림.
- 건강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연애, 공부 가릴 거 없이 다 얻을 수 있는 '하늘고의 매점' 같은 존재의 수업
- 못 걸어다닐 정도로 운동하든가, 아니면 매일 농땡이의 연속
- 실전은 가라! 최고의 이론 수업.
- 스쿼트 예고가 들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허벅지에 불남
- 헬스장을 한강으로 만들어주겠다는(made by 땀)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 선생님의 패션 센스는 덤.

자전거

- 먹방 라이딩
- 개꿀. 절대 후회란 없다. 주말에 면회 나갈 이유가 사라짐
- 송치성 샘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터질 것 같은 허벅지
- 잘 타면 잘타면 되고, 못 타도 잘 타게 되는. 체력 키우는 데 좋은 자전거
- 소수 인원으로 가족 같은 훈훈함 연출. 자전거 탄 후에 먹는 햄버거가 리얼 꿀맛

2015 학술제

2015년 12월 29일. '4기 충만 5기 발동'이라는 플래카드를 휘날리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늘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어둡고 잠잠했던 체육관에는 조명이 켜지고 하늘고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이어지는 첫 무대는 변함없는 우리 하늘고의 자랑! 오케스트라 'Cielo'친구들이 장식했다. 현란한 손놀림의 멋진 연주와 특별한 노래까지. 그동안 음악실에서 열심히 연습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무대였다. 다음으로는 최우수 논문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우수 논문인 만큼 역시 내용도 훌륭했고 발표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진행되었는데... 과학적 용어가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화면 앞에서 (그 내용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문과생들은 급기야 하나 둘씩 전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논문발표도 끝이 나고 드디어 연극부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커튼이 열리고 그 사이로 연극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능청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다. 여러 배우들이 스쳐간 후 그 다음 장면이 시작되는 순간! 하늘고의 스타가 탄생하게 되었다. 바로 김민재

학생! 모두들 그의 등장에 환호성을 질렀고 그의 표정과 손짓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관객들을 점차 빠져들게 했다. 이 무대를 통해 선배들 사이에서 그는 '앞으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꼭 인사하고 싶은 친구' 베스트 No.1으로 등극했다. 이와 같이 참신하고 다양한 동아리가 많이 신설되어 앞으로도 학우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계속 성장해 학술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하늘고 1일차 공연은 그들의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워홈 식당은 이미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니었다. 문 밖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풀풀 진동을 하였고 안은 뿌연 연기와 그곳을 메운 학생들로 가득하였다. 들뜬 마음에 허기진 친구들은 허겁지겁 먹는데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구윤아, 좀 그만 먹어!!(ㅋㅋ)" 여기저기서는 파이팅을 외치는 학급도 보였다. 쉼 없이 빈 그릇을 내미는 저희를 위해 고생하고 애써주신 아워홈 누나들과 하늘고 어머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당! ♡.♡

부스가 운영되는 교실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과학 관련 동아리 부스에서는 각종 실험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심리학 동아리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진실게임도 하였고 수학 및 경제 동아리에서는 재밌는 퀴즈를 통해 상품도 나눠주곤 하였다. '응답하라 2008'이라는 간판이 걸린 방송부에서는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 전체에 숨겨진 보물찾기 게임을 할 수도 있었다.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헤집고(?) 다닌 탓에 학교 기물이 위협을 당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또한 3층 부근에는 여장을 하고 동아리를 홍보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귀여워서 미소 짓게 했던 기억이 난다. 짧지만 알차고 즐거웠던 동아리 부스 타임을 마지막으로 첫째 날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후 자유 시간이 주어졌지만 체육관과 교실에서는 내일 있을 행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쉬지 않고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학술제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 학술제의 아침에는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일정이 하나 있다. 바로 '논문 발표'이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의 발표들이 많아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을 줄 알)았다. 흥미를 가지고 경청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나처럼;;) 조는 친구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하는 친구들을 보니 우리가 모르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준비해왔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개인 부스 운영이 진행되었다. 전날에 이어 더 새롭고,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부스들이 많았다. 특히 쿠폰을 이용하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재미였다. S.O.C가 운영한 '인스타그램 #와플 #코코아'는 인기가 정말 대단해서 함부로 줄을 설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 외에도 짜파게티, 호떡, 츄러스, 초코 · 치즈 퐁듀 등 올해 부스는 먹거리가 주를 이뤘던 축제로 기억될 것 같다.
이외에도 참신했던 부스를 꼽자면 바로 '눈탱이 감탱이'라는 암실 카페이다. 깜깜한 방에 들어가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방식이다. 이곳도 인기가 좋아 가보진 못했지만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학년을 속여 같은 학년 여학생과의 밀담을 시도했다는...

어쨌든 암실 카페를 경험한 친구들은 의외로 소소한 재미를 느낀 것 같아 보였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길 시간이다! 부스 타임도 끝나고 다시 체육관으로 몰려들었다. 체육관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2 · 3기 선배들도 참석해주셨다. 공연의 첫 시작은 '복면가왕' 무대였다. 선생님들께서 노래 도중 가면을 벗으셔서 다 알게 되었지만 모두 다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이주호 선생님, 김중근 선생님, 최민석 선배님, 김경훈 선생님, 특히 이지현 선생님과 최상규 선생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 모두가 예상했던 그 실루엣! 김승호 선생님의 그대에게!

2학년 정구윤, 정승원 학생이 동물옷을 입고 깜짝 등장했다. 지금부터 시작될 스포아츠 공연의 사회자 친구들이다. 공연이 시작되고 친구들의 가야금과 플루트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최종인 학생과 김나현 학생의 보컬 무대도 끝이 나고 다음 학생이 등장하는 순간 객석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바로 최효범 학생의 피아노 작곡 무대였다. 그는 자신이 '기존 곡을 편곡하여 분위기 전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는 장엄한 곡 해설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긴 채 곡을 완주하였다. 스포아츠 마지막 무대는 작년 전통을 이어받은 '패션쇼'가 장식했다. 올해에는 눈꽃, 크리스마스, 니모, 저승사자 등의 테마 패션과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창작 패션을 주제로 하여 더욱 알차고 참신했던 쇼를 보여주었다. 스포아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남장여장쇼가 있었다. 올해에 처음 만들어진 코너이지만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플은 단연 조용완+김윤영 팀이다. 아이유의 '레옹' 컨셉과 트러블메이커 댄스로 모두를 경악시켰다. 김영욱+박소민 팀 또한 노인에서 회춘하는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 학술제의 꽃 '하늘스타H'가 시작되었다. 하늘스타H에서는 무대 진행의 끝판왕! 김혜현 학생이 정민기 학생과 함께 사회를 맡았다. 첫 무대는 멀리서 달려와 준 포스코 고등학교의 치어리딩 팀이 뜨겁게 달궈주었다. '혹시 이다원 선배님 계신가요?'무대를 마친 후 치어리딩 팀에서 이다원 학생을 소환하는 코믹한 상황도 연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박성진 학생의 기타 연주 공연이 이어졌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Better Than Revenge' 노래에 맞춘 일렉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무대였다. 이외에도 안해빈, 전준범 학생의 라이벌 매치같은 피아노 연주, 1학년 남자와 여자의 박력 있고도 상큼한 댄스, 지코의 'Boys & Girls'를 불러준 1학년 래퍼 친구들 등 수준 높고 강렬한 무대들이 이어졌다. 특히 2학년 남학생들의 '나팔바지' 댄스는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과 칼군무가 돋보이는 무대였고 하늘고 댄스의 대가 위하영 학생의 댄스 독무대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원 인 어 밀리언!' 마지막 무대는 2학년 1반 친구들의 무대였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관객들은 목청 터질 듯한 뜨거운 함성을 질러댔다. 그들은 충격적인 복장과 함께 트와이스의 '우아하게'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우리 반 수고했어♡ 우리의 축제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 · 3기 댄스부들의 섹시(?)하고도 박력 넘치는 댄스가 시작되며 두 번째 공연 파트의 오프닝이 열렸다. 이후 작년에도 힙합으로 히트를 쳤던 2학년 남자 래퍼 친구들이 등

장하며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우리 하늘고의 댄스부 무대였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그녀들의 무대는 단연 압권이었고 관중 여기저기서 공개 프러포즈가 남발(?)하였다. '소현아 결혼하자!', '김다혜 존예 보스!' 그녀들의 무대도 끝나고 단 한 동아리의 공연만 남게 되었다. 바로 밴드부! 항상 하늘 학술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밴드부는 올해 더 신나고 멋있는 공연으로 체육관 전체를 하얗게 불태웠다. 특히 신준용 학생이 열창한 'She's Gone'은 이제껏 들어본 그의 노래들 중 최고로 완벽했던 노래였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밴드부 학생들의 연주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응원하고 소리를 질러대던 4기, 5기 친구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2015 하늘 학술제는 그렇게 끝이 났다.

큰 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올해의 축제는 다들 바쁜 일정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준 우리 모두의 성과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학술제를 위해 고생해준 친구들과 선생님들(우리 유림쌤ㅠㅠ)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없어도 올해보다 더 즐겁고 알찬 학술제 보내기를 바랄게~

늘 행복하고

당신의 2015년은 어떤 모습인가?
숨 가쁘게 지나갔던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빛나던 우리의 추억들.

사랑하는 하늘고, 너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 학교 체육 대회

성민, 승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년 인천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 중계를 맡은 1학년 2반 오성민, 1학년 3반 최승민입니다.

성민 승민 군, 인천의 자랑! 세계로 뻗어나갈 명문 인천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승민 맞습니다. 특별한 행사와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학생들이 입장을 하는데요, 반별로 입장을 하는군요. 저 위풍당당한 걸음 좀 보세요. 모두가 하나같이 "오늘의 우승은 우리 반 거야!"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입장과 준비운동을 마친 학생들! 교장 선생님의 개회선언이 끝났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저 모습을 보세요!

승민 첫 번째 순서는 남자 축구와 여자 피구인데요. 이제는 각자 중계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성민 네! 지금 운동장에 나와 있는 오성민입니다. 지금 운동장에서는 막 1학년 축구 결승전이 끝나고 2학년 결승전이 시작 됐습니다. 두 팀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2학년 축구 결승이 끝난 후에는 오전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제축구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체육관 상황은 어떤지 한 번 가볼까요?

승민 네, 여기는 체육관입니다. 현재 체육관에서는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1학년 여자 피구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년 경기를 보니, 2학년 경기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성민 그렇군요. 네, 마침 축구경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선배님들, 모두 멋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체육관에서는 농구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운동장에서는 발야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둘 다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ㅠㅠ)

승민 아,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제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승민 정말 멋진 경기네요! 선생님들! 학창 시절에 공 좀 차셨던 것(?) 같은데요? (ㅎㅎ)

이제 오전 경기가 모두 끝났어요. 학생 여러분들,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아직 체육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성민 군, 그런데 저 분들은 실제 농구선수들 아닌가요?

성민 승민 군 몰랐어요? 이번 하늘고 축제를 빛내주러 오신 인천 전자랜드 선수들이잖아요~ 이분들 말고도 하늘고에서만 볼 수 있는 태권도 시범 등 각종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는 오후 프로그램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반별 응원전이 가장 기대돼요~
아, 마침 댄스부 공연이 끝나고 반별 응원전이 시작됐네요! 우리 같이 보러갈까요?

승민 좋아요! 빨리 가요. 빨리~

성민 응원전을 보니, 역시 하늘고 학생들은 공부뿐 아니라 무엇이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의 꽃이죠? 계주가 남았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승민 와~ 정말 빠르네요. 우사인 볼트가 왔다간 것 같았어요!

성민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15 인천하늘고등학교 체육대회는 폐회식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승민 군, 승민 군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승민 오늘 정말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하늘고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그동안은 자신의 넘치는 끼를 어떻게 숨기고 다녔나 싶을 정도입니다 (ㅎㅎ)

성민 네, 맞아요. 오늘 하루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학생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어요.

승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중계, 재미있으셨나요?

성민, 승민 지금까지 중계를 맡은 오성민, 최승민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

ALL THAT TAIWAN

2학년 박소민

우리가 다녀왔던 세 나라 중에서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대만이다.
나는 1학기 때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화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만을 선택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나는 대만이 한,중,일 세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더 기다려졌던 대만에 도착하니 과연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한여름 같은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진 강력한 무더위가 나를 반겼다. 버스를 타고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 시내로 들어갈 때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수하다 못해 칙칙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외양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대만의 문화와 습하고 지진이 잦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도심의 풍경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와 대만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보이는 것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대만하면 떠오르는 것은 과연 '食', 바로 먹을 것인데 한 달 전부터 기대해왔던 대만 길거리 음식을 스린 야시장에서 첫 번째로 맛볼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도 유명한 버블티와 얼굴만한 크기의 닭가슴살 튀김 치파이를 먹었는데, 값이 싸고 양이 많아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야시장 투어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근처의 과일 가게에 들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열대과일들도 눈에 띄었다. 나는 망고와 용과를 사먹었는데 한국에서 먹었을 때와는 비교

도 할 수 없을 만큼 달아서 대만 열대과일을 마음껏 즐겼다. 대만의 옛날 시장인 지우펀에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기자기한 잡화들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되었던 홍등 찻집까지 알차게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곳에서는 대만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팔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후미진 골목시장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대만의 옛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명동 거리와 비슷한 서문정 거리에서는 1학기 때 배운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다.

처음에 상인 분들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친구랑 같이 그 의미를 추측해 보면서 물건 구입에 성공했을 때 제2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 갔던 중정 기념관은 중국 국민당 주석이었던 장개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인데 도심 한가운데에 웅장한 규모로 서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날의 대만의 기틀을 다졌지만 독재를 한 만큼 국민들의 평가 역시 엇갈리는 장개석을 보면서 장개석과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떠올랐고, 대만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재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또 느낀 것은 내 인생에서 이번 여행이 처음이었다. 대만에 있는 동안 만족스러움이 커서 떠나는 아쉬움 또한 컸다. 만약 나중에 여행을 간다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만으로 가보는 것을 어떨까?

ALL THAT OSAKA

2학년 조우현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었다. 방사능이 두렵기도 했지만 해외여행과 쇼핑이라는 기대감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에 충분했다. 아침 일찍부터 잔뜩 멋을 내고 일본으로 향했다.
첫째 날엔 일본의 3대성 중 하나인 오사카성에도 가고, 친구들끼리 그룹별 미션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대호 선수가 뛰었던 팀인 '오릭스 버팔로스'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알아내는 것이 미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답이 뻔히 팀 이름 속에 있었는데도, 나는 센스 없이 마음만 급한 채로 되지도 않는 일본어를 써가며 현지인들에게 물어봤고, 하필 그 현지인은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지 마스코트를 '닭'이라고 알려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머물렀던 숙소는 다다미 구조였으며, 옷장에는 유카타가 있어서 숙소에서는 이를 입고 생활했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를 한층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숙소의 화장실은 볼일을 보는 곳과 샤워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손을 닦는 곳은 화장실 밖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와 달라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둘째 날은 동지사대학으로 견학을 가서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인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보았다. 시비만 바라보아도 왠지 모를 뭉클함과 뜨거움이 느껴졌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수사였다. 청수사에는 세 줄기의 물이 흘러내리는데 각각 건강과 사랑, 학업을 상징한다고 한다. 청수사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두 줄기의 물만을 마실 수 있고, 세 줄기의 물을 모두 다 마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과한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청수사를 올라가는 길에 두 개의 돌이 놓여있었는데, 눈을 감고 한쪽 돌에서 다른 쪽 돌로 곧게 이동할 수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전해진다고 했다.(계속되는 가이드 누나의 설명 속에 나는 너무 외로워진다...)
청수사에서 나온 우리는 황금빛으로 눈부신 금각사를 구경한 후 기온 거리로 향했다. 기온 거리에서는 일본의 전통가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와 한적한 운치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날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다. 경찰부터 시작해서 미니언즈 간호사까지 아주 다양한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중 간호사 코스프레를 한 누나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부탁했더니, 그 누나가 나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뽀뽀를 하자고 했다. 심한 갈등 끝에 결국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일본은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한다(아쉽다ㅋㅋ)

마지막 날에는 지진센터를 갔다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하는 도톰보리와 신사이바시로 향했다. 원하던 쇼핑을 모두 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물건들은 대단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ALL THAT SINGAPORE

2학년 고은별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난 수학여행 첫째 날. 고등학교 시절 중 딱 한 번뿐인 수학여행이 시작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탄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은 이제껏 본 엘리베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설렘을 담고 있었다.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수속을 하는 모든 과정에도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한 만큼 들떠 있었다. 비행기를 타서도 곧 이 비행기가 날아 싱가포르에 갈 것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평소에도 여행을 하면 이동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은서와 같이 앉아서인지 6시간의 긴 비행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화면 속 이것저것을 만져보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본 것 같았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해외'라는 생각을 해주게 한 것은 습기였다. 친구들도 모두 입고 있던 겉옷들을 벗어 팔에 걸쳤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리는 사자이고 몸통은 인어인 머라이언 분수 앞에서 모두들 인생짤을 건지겠다는 필사적인 목표를 갖고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형주 선생님께서 떡볶이 맛이 난다고 했던 칠리크랩을 저녁으로 먹었다. 맛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다. 직원을 부르기 부끄러운 친구를 대신해서 주화가 유창한 발음으로 "Excuse me~"라고 했을 때가 정말 인상 깊었다. 밥을 다 먹고 나이트 사파리에 갔다. 동생이 가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는 것을 보고오라고 했는데 너무 깜깜해서 보일까 싶었다. 어렸을 적 '동물대백과사전'에서 본, 몸통은 흰색 검은색이고 마치 코끼리 코를 뚝 자른 것 같은 코를 갖고 있는 동물이 차 바로 옆에 엎드려 누워있었는데, 쓰다듬어볼까 고민할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기억에 깊게 남았다. 어둠 속에서 많은 동물들과 만난 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다. 첫째 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뽑아보자면 이 순간인 것 같다. 기숙사 방바닥과는 다른, 그 푹신푹신한 호텔 방 바닥을 딛는 순간 정말 행복했다. 오랜 비행시간 때문에 지친 몸을 푹신푹신한 침대에 뉘어 다음 날을 기대한 채 순식간에 잠들었다.

이튿날은 센토사 섬에 갔다. 먼저 루찌를 탔다. 루찌는 나의 숨겨진 질주본능을 드러내주었다. 스피드를 높여 장애물이 없는 길을 신나게 달려 내려오니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나서 아쉬웠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리프트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케이블카와 관람차보다 높이는 낮았지만 제일 무서웠다. 리프트 위에서 정신이 혼미해져 루찌가 아쉽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아쉬운 루찌를 뒤로 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향했다. 작년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다 와서 신세계를 경험해봤기에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기다리느라 힘들었지만 영화 속에 들어간 기분이라 계속 들떠있었고 힘들어도 참고 돌아다닌 것 같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해치운 뒤 랩소디 쇼를 보러 갔다. 사실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레이저쇼를 왜 싱가포르까지 와서 보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땅에 등을 대고 하늘을 마주했을 때 웅장한 나무들에게서 빛이 나올 때 그 황홀한 광경에 '와!'라는 탄성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카메라 렌즈가 그 아름다움을 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셋째 날은 대학 방문 일정이 있었다. 대학교를 한 바퀴 돌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대학교도 너무 큰데다 날도 덥고, 전날의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을 가서 자유 시간을 얻은 순간 바로 회복이 되어 밥을 먹으러 갔다. 가게가 정말 많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녔다. 주인아저씨가 친절하셔서 'most popular, most delicious' 스킬을 써서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직접 부딪혀보고 소통하니까 자유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저녁시간이 되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쇼핑몰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는 기회가 왔다. 수학여행 오기 전부터 챙겼던 싱가포르 쇼핑리스트를 사기 위해 다들 분주히 움직였다. 저녁을 먹고 마리나베이샌즈 전망대로 갔다. 너무 예뻤다. 정말 예뻤다. 벌써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고 그동안의 즐긴 것들이 모두 꿈만 같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꼭 이 밑에 있는 호텔에 묵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마지막 날 일정은 비행기 때문에 오전에만 있었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투어를 하고 엄청 큰 관람차도 타면서 그동안의 여행지들을 다시 보며 총정리 하는 기분이었다.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짐을 부친 후 가이드 선생님과 헤어지며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아쉬웠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아쉬움만 많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과 여행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한국 도착을 두 시간을 남겨두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아래로는 대만의 빛이 보였고 위로는 별빛이 보였다. 영종도에서도 육지보다 많은 별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이었다. CG같았다. 착륙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두 시간 내내 밤하늘을 봐서 별똥별을 네 번, 번개를 두 번이나 보았다. 처음 번개를 구름 위에서 보고 나서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진짜 신기했다. 그 광경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3박 4일의 수학여행은 끝이 났고 다음날 나는 다시 하늘고로 가서 일상으로 되돌아 왔지만, 그 후로도 나의 추억은 아직 싱가포르에 남아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학창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아주 큰 추억이 될 것이다.

음성 꽃동네에 하늘고 꽃이 피었습니다!

중간고사와 추석 연휴가 끝나고 2학년 선배들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우리 1학년들은 음성 꽃동네로 수련회 겸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첫 2박 3일 외출에 설렘과 기대감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배들처럼 놀러가고 싶은데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는 서운함과 꽃동네로부터 전달받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걱정을 안고 음성 꽃동네로 출발했다.

9월 30일. 꽃동네 첫째 날. (흐림)

드디어 꽃동네 도착! 같이 온 세 학교와 함께 입소식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소강당에 모여 최귀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통해 꽃동네의 설립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동영상 시청 후, 박수 세 번, '짝!짝!짝! 아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중독성에 빠져 자연스럽게 '아리!'를 외치게 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흘러나오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노래도 따라 불렀다.
우리는 네 동네로 나누어 이장님과 함께 동네 반상회를 열고 2박 3일 동안 쓸 재미있고 개성 넘치는 동네 구호를 정하였다. 이후 반 친구들과 더욱 단결될 수 있었던 공동체 게임까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식사 시간을 맞이했다. 밥풀꽃 친구들이 배식해 준 밥을 맛있게 먹은 후에는 장애 체험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려니 정말 막막하고 무서웠다. 힘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던 장애인들의 불편과 고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어둠 속에서 큰 의지가 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일 봉사가 정말 기대된다!

10월 1일. 꽃동네 둘째 날. (비)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어서 생활관에서 교육관까지 모자를 쓰고 달려갔다. 오늘은 드디어 꽃동네 가족을 만나는 날이다! 그 전에 강당에 모여 봉사할 시설에 대한 역사와 하게 될 일, 주의사항을 익혔다. 우리들은 애덕의 집, 희망의 집, 환희의 집, 천사의 집, 구원의 집 등 다양한 꽃동네 복지시설로 흩어졌는데 비가 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봉사가 기대되었는데 시설에 도착하니 낯선 분위기 탓인지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우리를 밝은 미소로 반기는 꽃동네 가족 분들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그분들을 씻겨드리고 방을 청소하는 일,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설거지를 하는 일까지 우리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 아기 천사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만난 가족과 한 일은 다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봉사를 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그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았다.
다시 교육관에 모인 후 선택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죽음을 체험하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고 '노숙자 체험'을 통해 노숙자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다. 또한 신나게 춤도 추고 운동효과도 누릴 수 있는 '레크댄스' 프로그램도 있었다.
저녁식사 후, 수련회의 꽃, 레크레이션 시간이 찾아왔다!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영상편지와 파격적인 댄스를 볼 수 있었고 친구들이 레크댄스와 수화공연 등 멋진 무대를 선사하였다. 학급끼리 원을 만든 후 다양한 게임도 하였는데 각 반의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담임 선생님과 뜨거운 포옹을 하는 감동적인 시간도 가졌다. 우리들의 뜨거운 열기는 숙소에 와서도 계속 되었다. 과자파티를 하고 재미있는 콘셉트로 사진을 찍으면서 둘째 날 밤을 보냈다. 꽃동네에서의 둘째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10월 2일. 꽃동네 셋째 날. (맑음)

걱정과 기대로 시작했던 꽃동네 봉사활동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편한 자세로 앉아 소감문을 작성했다. 감상문을 쓰면서 "봉사시설의 한 가족 분께서 거기에 있던 친구들에게 모두 알록달록 색종이로 하트와 물고기를 접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다", "안마를 해드리는데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셨다", "나는 애기들 보러가서 양파만 까서 아쉽다"라고 하며 우리는 각자 봉사활동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느낀 점들을 나누었고 그렇게 훈훈하게 감상문 쓰기를 마쳤다. 잘 쓴 감상문은 꽃동네 가족 분들께 전달된다니 더 설레고 성의껏 쓰게 된 것 같다.

임신 10주차의 아기 발바닥 모양 브로치를 사면서 우리는 낙태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꽃동네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길 바라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박 3일 간의 봉사활동으로 말랑말랑해진 우리의 마음은 전보다 성장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감동받았다. 우리 하늘고 친구들이 이 예쁜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양 있는 자의 태도

2015 테이블 매너 교육

1학년 김나현

테이블 매너 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가는 날, 체험학습이 불발된 아쉬움을 가득 담아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나름의 꽃단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비록 달라진 게 없어 슬펐지만 학교를 잠시 떠난다는 걸 생각하며 슬픔을 떨쳐냈다. 시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9시 40분 – 버스에 타야할 시간이 되었다. 버스에 탈 때, 이수민 선생님과 같은 버스에 탈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환하게 웃어주시는 김민연 선생님이 계셔서 기분이 좋았다.

높고 세련된 서울의 고층 건물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다. 하늘고에 와서 단조로운 시골 풍경만 보며 학교 안에 갇혀있다 보니 촌사람이 다 되었나보다. 우리의 목적지인 GS 타워에 도착해서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 하는 두근거림을 안고 들어갔는데, 처음 간 그곳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TV에서나 볼 법한 세팅된 테이블에, 나는 마치 내가 영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이 모두 도착하고 교육이 시작됐다. 원래는 교육이 끝난 후 식사를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우리의 배꼽시계가 요동치는 바람에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님께서 허락해주셨다.

에피타이저로 연어요리가 나오고, 식전 빵, 수프, 샐러드, 함박스테이크, 치즈케이크가 차례대로 나왔다. 음식 순서에 따라 여러 개의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웠다. 또 잔에 와인...이 아닌 포도주스를 따라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잔을 완전히 비우지만, 외국에서는 잔이 비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잔이 빈 친구들을 교양 없다며 놀리기도 했다.

강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두 가지였다. 우선 한식의 세계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한식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한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강사님께서 백반과 한정식의 차이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한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백반은 밥을 위주로 국과 반찬을 먹는 것이고, 한정식은 코스 요리로 여러 음식이 나오는 중간에 밥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한식의 세계화를 원하기 전에 우리부터 한식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방법, 술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지금껏 내가 아는 술의 종류는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뿐이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신기했다.

교육과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 친구들과 모여서 사진도 찍고, 수다를 떨었다. 비록 자유시간이 없고, 정말 교육만 받고 와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평소와 다른 일상-일종의 일탈을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다.

테이블 매너 교육을 통해 식사 예절을 배우고 나니, 내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들(식기를 사용하는 순서, 술을 마시는 법 등)을 기억해서 나중에 격식을 갖춰 먹어야 하는 자리에 간다면 꼭 실천해야겠다. 나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 준 유익한 교육이었다.

2015 하늘진로아카데미

하늘진로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감 넘치는 해당 전공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 진로 탐색의 방법과 역량 강화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우리 학교만의 고유 프로그램이다.
2015 하늘진로아카데미에도 의사, 재무설계사, 수의사, 미술치료사, 파일럿, 공무원 등 많은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시며, 각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인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것들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15년 **하늘진로아카데미**

번호	강좌명	강연자
1	꿈은 이루어 진다. 인천항 바로 알기 및 미래 전략	신재풍
2	의사로서의 삶	유병상
3	미술치료사란 무엇인가?	김옥녀
4	회계사의 진로탐구	박재순
5	파일럿의 삶	정종국
6	항공사 물류 전문가의 세계	김인수
7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원종원
8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관제사 되는 길	박종원
9	파일럿의 세계	허필선
10	Introduction of Cabin Crew (아시아나항공)	성유진
11	공무원 사회와 관세청 현황소개	장진덕
12	동물검역소(수의사)	성진환
13	한국전력공사 현황과 미래	윤동준
14	파일럿(전투기)의 역할과 준비과정	신형용

2015년 하늘진로아카데미 소감문 – 1

2학년 김유림

1학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고 투자에 흥미가 있어 '펀드 매니저'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비슷한 분야의 '재무설계'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재무설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진로아카데미 강연은 우선 경제 관련 직업에 대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시야를 넓혀 주었다. 그동안은 '투자'라는 것을 좋아해 관련 전문가가 되고 싶어 펀드매니저라는 하나의 직업을 목표로 했지만, 재무설계에도 투자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밖에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 많았다. 펀드매니저라는 하나의 꿈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재무설계라는 일에 대해서도 현재 그 직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께 직접 들음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진로 아카데미는 내가 진로에 대해 확신을 얻고 실제 직업을 가지기까지의 과정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 같다.

2015년 하늘진로아카데미 소감문 – 2

2학년 이소정

2015 진로아카데미에서 '미술치료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상담과 평소 좋아하는 미술을 접목시킨 미술심리 상담치료사와 같은 아동 및 노인복지 관련해서 진로 방향을 정하고 있던 나에게 이번 강의는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할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평소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미술치료사들의 구체적인 경제 형편이나 내담자와 미술치료를 한 직접적인 사례들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는 강연자분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과 심리 치료를 진행하셨던 이야기였다.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 내담자는 8개월 동안 미술심리치료를 받고 상처를 극복해 현재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 또한 강연자 분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고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이란 메시지를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강연자 분의 한마디가 내 꿈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하늘진로아카데미 소감문 – 3

2학년 정하은

나는 현재 자연계열을 선택해 공부하고 있지만, 미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그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김옥녀 강사님의 미술치료사에 대한 강의를 선택해 들었다. 강사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동안 미술치료를 해오시면서 겪은 다양한 일화들도 이야기해주셨다. 미술을 가르치시다가 우연히 한 자폐아의 미술치료를 맡으신 것을 계기로 그 후부터 노인 병원에서 쭉 이 일을 해오셨다고 하셨다. 처음엔 미술치료가 단순히 기존의 작품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그림에 담긴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미술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치유되어 가는 것이 미술치료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이든지 항상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뚜렷한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보람도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다. 자신이 전공한 미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일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신다는 강사님처럼 나도 즐겁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Together with the World
체코 대사 강연

2015년 6월 5일, 체코 대사님 Tomas Husak(토마쉬 후삭)께서 인천하늘고등학교를 방문하셨다. Global Meeting-〈Together with the World〉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체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 발표하는 프로그램과 대사님의 강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1학년 정경빈, 정희원 학생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선보이며 직접 사회를 보았고, 미리 선발된 다섯 개 팀의 학생들이 각각 체코의 경제, 교육, 역사와 전통문화, 외교적 교류 등 폭넓은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해 발표하였다. 여행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발표를 한 팀도 있었고, 바이올린 연주로 체코의 음악을 들려준 팀도 있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난 후, 대사님께서 직접 체코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이번 강연을 통해, 인천하늘고의 학생들이 '체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학생발표자

Economy and Diplomacy of The Czech Republic
: 박보영, 송지영, 심하영, 강수완

Dobry den, Czech!
: 최정화, 최종인, 전준범, 박서정, 손명진, 원유빈, 송혜연, 이하늘, 하유진, 전아영, 김명주, 김혜원

Let's Learn about Education of The Czech Republic
: 김보현, 김덕선, 박진우, 김하연, 구지윤

The Day with Romance in The Czech Republic
: 김지민, 성현지, 정나리, 김민우, 정지윤, 남윤아

The Land of Music
: 이세령, 윤민재, 김선영, 김혜윤, 임소현, 김시영, 최정주, 권재민, 최서연, 조은아

꿈과 열정이 자리하는 곳, 여기는 DPC

이번 2015년에도 꿈과 열정이 자리한 서재, 하늘고등학교의 도서관은 많은 신착 도서들과 각종 도서관 행사로 매우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전미라 선생님께서는 엄빠 드림, 사제 드림, 독서인증제 등을 기획, 안내하시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12월 29일 청춘심리학 '인사이드 아웃'의 저자인 최원호 교수님을 초청하여 〈청춘의 발견-마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심리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심리토크 콘서트는 잡화점에 도착한 고민과 나미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답장이 만들어내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일본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모티브로 전미라 선생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프로그램이다.

학술제가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교수님의 심리토크 콘서트에서는 상담심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을 위로해주셨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설명해주시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청춘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했다.

전미라 선생님께서는 '작가의 특강을 일방적으로 듣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강연회가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매 순간 즐거웠다'면서 '특히 모든 꽃이 봄에만 피고 지는 것이 아닌,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듯이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작가님의 말에 더 많은 학생이 용기를 얻었다'고 이 행사의 소감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지금,
This Is The Moment

2015학년 1학기에 2학년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음악 수업과 미술 수업을 융합하여 진행된 '뮤지컬 제작 및 공연'이었다. 음악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연출가, 작곡가, 작사가, 배우 등의 역할을 맡아 직접 노래를 작곡하고, 무대를 구상하였다. 미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뮤지컬이 공연될 무대의 배경과 소품을 기획, 제작하였고, 공연 홍보 포스터와 홍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였다.

한 학기 동안 각 팀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고, 학기 말에는 직접 공연을 선보였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총 여덟 개의 작품이 제작되었고,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기존의 작품에서 각색한 작품도 있었고, 노래부터 스토리까지 모두 창작하여 진행한 팀도 있었다.

2학년 1반, 2반
'하이스쿨 뮤지컬(High School Musical)'

〈High School Musical in Haneul〉은 기존 영화 'High School Musical'의 주요 장면들을 선정한 후 1,2반만의 특색을 가미하여 다시 재구성한 뮤지컬이다. 원활한 내용 전개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배우의 음색과 성량을 고려한 오디오 편집 작업, 화려한 오프닝 영상, 배경 화면, BGM 등 다방면의 요소 모두에 세밀히 신경쓴 제작자들 덕에 알차고 즐거운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극중 주인공 트로이와 가브리엘라의 러브스토리를 멋지게 재현해 낸 이찬열과 최현정 학생의 연기와 노래가 일품이었으며, 신주화와 정유찬 학생은 극중 쌍둥이인 샤페이와 라이언 역할을 그들만의 개성으로 소화해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었다.

관전 포인트는 여학생들의 코믹하면서도 재치 있는 연기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중독성 있는 음악이다. 이찬열, 최현정 학생의 〈Breaking Free〉에서는 직접 창작해낸 독특한 안무와 가창력을 볼 수 있고 신주화, 정유찬 학생의 〈Love Is an Open Door〉에서는 완벽한 화음과 원작 영화의 스토리가 표현된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다 같이 〈Dream High〉 노래에 맞춰 춤을 춘 마지막 장면은 인상 깊게 기억되는 무대였다.

2학년 1반 정유찬 인터뷰

이번 뮤지컬이 기존의 음악 수업과 다르게 느껴졌다면 어떤 점 때문인 것 같나요?

이번에 김지은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뮤지컬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수업하면 가창, 악기, 이론뿐이어서 어쩌면 음악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뮤지컬 수업의 장점은 단연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음악에 소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가, 연출, 미술, 영상 등 각자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 진로가 아닌 사람들은 겪어보기 힘든 경험을 선물해주신 김지은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진로에도 영향을 받은 만큼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2학년 5반, 6반의
'지킬 앤 하이드 (Jekyll and Hyde)'

소설을 원작으로 이미 뮤지컬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을 선정한 만큼, 노래를 편집하는 과정이나 스토리를 짧게 각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연출력이 돋보인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지킬' 역의 백승훈, '하이드' 역의 김영욱, '엠마' 역의 김유림의 연기가 돋보였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실제 연주와 MR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도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다.

관전 포인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중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점과 노래 'Murder, Murder'에서 선보인 우산 퍼포먼스.

2학년 5반 백승훈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기숙사에서 장난칠 때 기타로 휘젓고 다니면서 '오페라의 유령'을 불렀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뮤지컬 배우를 맡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죠. 특히 공연 때 파트너 하이드가 가사를 까먹은 것 같아 도와주려고, 마치 원래 있었던 대사처럼 연기하듯이 진지하게 "그거 아니야, 임마!"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ㅋㅋㅋ)

2학년 7반, 8반의
'하늘스쿨 뮤지컬(Haneul School Musical)'

배경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공간을 표현했다. 여고에서 발생하는 학생들끼리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김연수의 청아한 목소리와 김혜현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어울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관전 포인트는 진짜 선생님으로 빙의한 것 같은 이정은의 열연, 엔딩 노래에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추는 춤.

2학년 7반 이정은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연배우 6명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말한 후에 하지만 안 될 거라며, 공부나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말을 극 중에라도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니까 왠지 슬프더라구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2학년 7반, 8반의 창작 뮤지컬

추리와 하이틴을 비롯한 여러 장르들을 적절히 섞어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인 팀이다. 스토리부터 음악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컨퍼런스 장면에서 한지율, 이문영의 작곡으로 탄생된 노래에 많은 배우들이 캐리어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장면은 관객의 어깨까지도 들썩이게 할 만큼 흥겹다. 주인공 이하은의 열연과 김예리, 김하은의 노래로 작품의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였다. 관전 포인트는 김하은의 솔로 곡 'Home', 컨퍼런스 장면.

운서동 569번지 하늘고 기숙사
이 구역의 주인은 바로 나!

인천하늘고등학교의 큰 특징이자 자랑인 기숙사.
3년을 살아가는 동안, 점차 기숙사를 '집'으로 부르게 되는 인천하늘고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포근하지만 자유롭지만은 않고, 재미있는 곳이지만 하루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늘 같은 곳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는 사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늘나래가 나섰다!
기숙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박OO (2학년, 여자)

제 생일날이었어요. 하늘고에서는 보통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매점에서 볼 수 있는 과자나 자필 편지 혹은 학용품 같은 것들을 줘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생일선물을 주었죠. 그 선물은 바로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던 한 후배의 사인이었어요(ㅋㅋㅋ) 그냥 장난으로 친구들과 했던 말이었는데 정말 현실이 된 거죠. 처음엔 받고 의아해서 기숙사 복도에 몇 분간 서있었어요. 친구가 가짜로 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저희 방에 다른 애들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ㅋㅋ) 앞으로 다시는 못 받을 생일선물이었어요.

정OO (2학년, 남자)

제가 다섯 개 호실이 연달아 있는 곳 두 번째 방에 살았었는데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저녁 면학이 끝나고 룸메들과 여유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었고 그 복도 라인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장난쳤나보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또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벽 사이에 숨었나 싶어서 한 번 쓱 둘러봤는데도 없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다시 들어왔어요. 몇 분 후, 옆방과 그 다음 방에서도 누가 자꾸 장난치냐고 화내면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길래 정말 장난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노크 소리가 나서 이번에는 소리가 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여는 순간...!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의 문도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 때 복도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고 그 일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종료되었어요. 노크를 하던 그 분은 아직도 그 주위를 맴돌고 있을까요?

서OO (2학년, 여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취침점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숙사 구조가 'ㄷ'자인 곳이 있는데 가운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건너편이 잘 보이는 구조예요. 마침 건너편에서도 점호를 하더라고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건너편 방 안에 후배랑 제가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ㅋㅋ) 그런데 아래층에서도 저희가 춤추는 게 다 보였는지 선배가 갑자기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ㅋㅋ)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무반주 댄스를 다 같이 하는 중에 1층에 후배가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1,2,4층에서 모든 학년이 함께 하는 댄스배틀이 되었고 몇 분간 진행되다가 취침 방송이 나온 후에서야 끝이 났어요.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점호 중에 일어난 댄스배틀..(ㅋㅋ) 하늘고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정OO (2학년, 남자)

하늘고는 친구들끼리 생일을 챙겨주는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남자 애들은 보통 밤 12시가 되면 기숙사에 친구들이 몰려와서 선물을 주고 가벼운 생일빵을 선사해주죠. 그런데 제 생일엔 12시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을 헛살았구나(ㅠㅠ)'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일요일 아침 친구가 저를 급하게 깨우더니 입 냄새가 난다면서 좀 씻으라고 하더라구요. '뭐지...?'하면서도 씻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발코니 뒤에서 숨어있던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와 과자를 들고 나오더니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 날 저녁에 방에 아무도 오지 않은 이유는 이벤트를 준비한 친구가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대요(ㅋㅋ) 이런 게 진짜 하늘고에서의 추억 아닐까요?

김OO (2학년, 남자)

저희 방에선 밤마다 오케스트라가 펼쳐져요. 한 명은 이를 갈고 나머지 두 명은 잠꼬대를 해요. 처음엔 정말 놀라서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잤냐고 물어봤는데, 세 명 다 그런 기억이 없대요. 어느 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네 명 다 취침점호만 받고 뻗었어요. 그중 한 명은 씻지도 않은 채 누워 버렸죠. 몇 분쯤 지났나? 한 명이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떠드는 줄 알고 '쟤 뭐래니(ㅋㅋ)'라고 했는데 다른 한 명이 '반가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나머지 한 명은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부득부득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면서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둘의 잠꼬대 대화는 끝이 나고 부득부득 소리와 함께 곧 저도 잠에 들었답니다. 하늘고에서 함께 방을 쓰다보면 서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친구들이랑 방을 쓰겠어요(ㅋㅋ)

이OO 남자 (2학년, 남자)

제 친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방 전체가 다 노래방이 돼요. 도대체 샤워를 하는 건지 노래 연습을 하는 건지 노래도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공사장 소음 수준이에요. 친구 말로는 샤워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지만 막상 저희 층 복도부터 다 들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방 바로 위층을 쓰던 후배가 저녁시간에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구멍까지 친구의 이름이 나왔지만 전 친구를 위해 모른다고 했어요(ㅋㅋㅋ) 그런데 이제는 누군지 다 알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층에서 대결을 신청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부르는데 점점 갈수록 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 방엔 가수를 꿈꾸는 한 명의 연습생이 있답니다(ㅎㅎ)

선배들이 알려주는 기숙사 must have item

알람 시계

기숙사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신입생들에게 알람시계는 필수 아이템이야. 아침에 모닝송이 나오긴 하지만 기숙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모닝송이 전.혀. 들리지 않거든(지금은 귀청 찢어질 것 같은 그 소리가, 나중엔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들림 ㅋㅋㅋ) 그래서 바로 내 귀 옆에서 시끄럽게 땡땡거리는 알람이 필요해~ 일요일에는 자율적으로 기상하는 거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기 위해선 꼭 있어야 해. 그래도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으니까 주의하길 바라(ㅎㅎ)

젓가락 + 페브리즈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룸메이트랑 기숙사에서 은밀하게 회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ㅋㅋ) 예를 들어... 기숙사 룸메가 생일이라든지, 스스로를 억압했던 시험이 끝났다든지, 다음날이 노는 주말이라든지 등등이 그런 경우야. 이렇게 먹어대는 파티에는 가볍게 과자 한 두 봉지를 뜯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타는 날엔 컵라면이 어김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젓가락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 그런데 사실.. 기숙사 취식은 벌점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로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라면을 먹고 나면 라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페브리즈를 마구 뿌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면까지 다 먹고 일부러 페브리즈를 뿌렸다는 것까지도 맞히는 귀신같은 사감 선생님들도 계시니 언제나 조심해야 돼~

사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새벽까지 저희를 지도하시는데, 대체 언제 주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한 후가 선생님들의 취침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빨리 소등을 해야겠죠?(ㅎㅎ) 아, 물론! 부족한 잠은 낮 시간에 보충하기도 한답니다.

저희가 아침 점호 후, 학교에 가고 나면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학년 담당 선생님들께서 각자 지도하는 학생들의 호실을 점검해요. 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인데 이때부터는 선생님들 각자의 일상이 이루어지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수면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나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주호 선생님과 박종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종도 맛집을 찾아 다녀요~ (ㅎㅎ)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매년마다 담당하는 학년이 달라지는데 담당하시는 학년은 어떻게 배정 받으시는 건가요?

학년 배정은 매년 1월에 생활관장님과 선임 선생님 두 분의 회의를 거쳐 논의한 뒤 정해져요. 해당 학년 학생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데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배정하게 되겠죠?(ㅎㅎ)

어느 학년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학년 담당을 제외하고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멀티라고 부르는 담당이 있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멀티 담당 선생님은 멀티미디어실을 비롯해 교실, 미디어 스페이스로 이동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년 담당 선생님이 휴무이신 날에 대체 근무를 하죠.

멀티 담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힘든 시기인 3학년에게 도움이 되어 주고자 3학년 담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각 학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학년만을 고집하는 분들은 없답니다. 단지 새로 담당하게 될 나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와주기를 바랄 뿐이죠.

새벽에 순찰을 굉장히 많이 도시는데 무섭지 않으신가요?

생활지도교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땐 낯설어서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코너를 돌아야 하는 우리 학교 특성상 더 무섭기도 했죠. 그래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새벽 2시, 3시에 불빛이 하나 없어도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가끔 늦은 시각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옷을 입고 이 방 저 방으로 호실 이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으니 소등 이후엔 호실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ㅎㅎㅎ)

선생님들께서는 저녁시간이나 새벽 등의 시간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안건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화젯거리가 되고 관심 대상이 된답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교우관계와 갈등, 가정환경, 질병, 고민, 습관, 학생 성격과 성향과 관련된 특성 등)에 대한 부분 등 폭넓은 일들이 모든 회의 안건이 돼요. 그 외에 대표적인 일을 꼽자면 면학실 청결과 이동 건, 아침/저녁 점호방식 선정, 근무일정 논의, 생활관 행사 진행상황 보고, 호실 배정, 호실 청결 점검 통계, 우수 호실 선정, 상 · 벌점 부여 논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새벽 야식으로는 뭘 먹어야 하는지도요(ㅋㅋ)

저희가 꿈나라로 가 있을 땐 뭘 하시나요?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해요~ 당직 근무자는 밤새 혹시라도 생길 응급 상황을 대비하죠.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가장 황당하거나 웃겼던 일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주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인데 방문을 여는 순간 강한 MSG의 냄새와 함께 눈에 들어오는 빈 라면 그릇 서너 개! 차분하게 "뭐 먹었니?"라고 물으면 너무도 순진한 얼굴로 "아뇨, 무슨 말씀이세요?"하는 학생들~~(ㅎㅎ)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배고픈 마음에 먹었으려니 안쓰럽다가도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스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태도는 자제해주길 바랄게요!

하늘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벌점이 무서우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대로 규정을 어겼다면 쿨하게 벌점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도록 하고요.

하늘고 학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요?

음식물을 반입하고 몰래 연애를 하고 반입 금지 물품을 쓰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생활관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기본 예의와 예절을 배우는 곳이에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제 곧 성인이 될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예의를 갖추는 멋진 하늘고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격과 품격을 기르는 것도 무엇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이거든요.

facebook

너와 나의 연결고리, 좋아요
: SNS 특집

오늘날 다양한 SNS가 등장하면서 하늘고 안에 갇힌 학생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facebook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휴대폰 반입 금지', '(학년에 따른) 노트북 사용의 제한' 등은 '하늘고 재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중학생 때의 기억이 무색해질 만큼, 억압과 압박이 느껴지는 우리 학교의 방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제한된 학교생활에서도 관심 분야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해가는 SNS 모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늘나래에서는 특별히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acebook과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몇 개의 페이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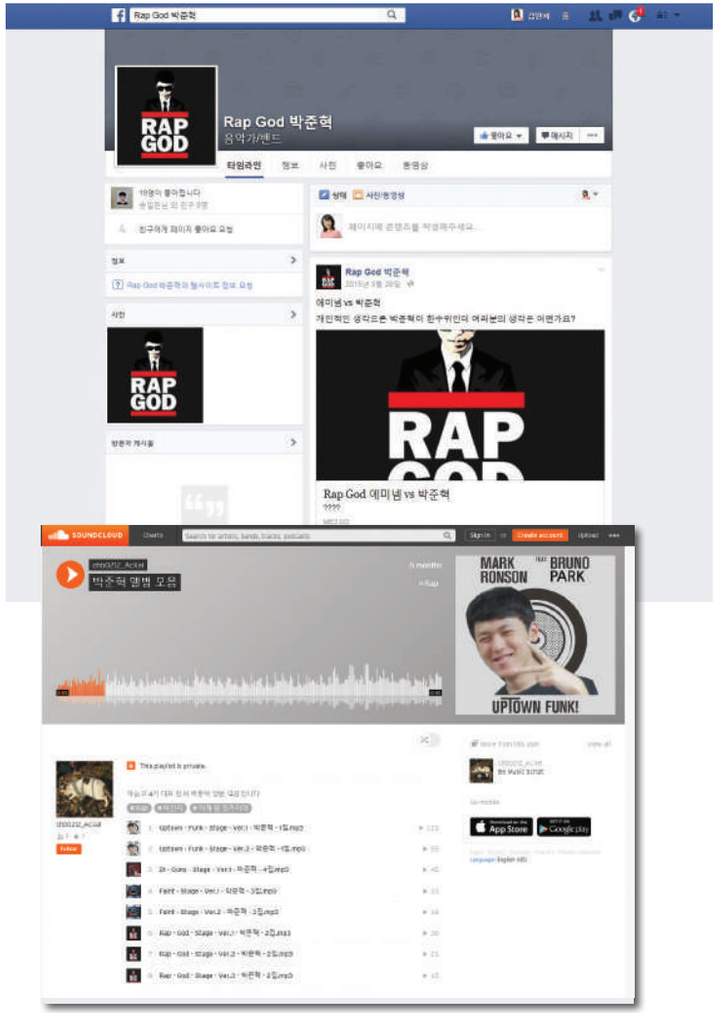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페이지 : 하늘고등학교

1기 선배가 재학 당시 만든 페이지로, 재학생들과 하늘고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중학생들을 위한 페이지이다.
현재 SNS 상에는 〈인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입시와 관련된 문의는 http://admission.haneul.hs.kr/ 인천하늘고 입학 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회의 홍보문의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등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다. 설명을 적는 칸에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하늘고등학교'라는 패기 넘치는 선배의 멘트가 인상적이다. 우리 모두의 페이지인 만큼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재학생의 각 기수별, 반별 그룹과 페이지

하늘고등학교 4기, 하늘고 6기, 하늘고 이과최강 7★반공쥬님들, 하늘고등학교 5기 1학년 4반, 하늘고 4기_203, 하늘고 4기 2학년 8반 여신님들, 하늘고 4기_1학년 7반, 서울대 17학번 하늘고 206동문★, 하늘고등학교 5기 1-7 등등 (거의 모든 학반과 기수별로 해당 그룹이나 페이지가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주로 숙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거리를 주고받거나, 학교 행사나 대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하늘고 재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일 것이다.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낳은 랩의 신 : RAP GOD 박준혁



혹자는 랩의 신이라 칭하고, 혹자는 옹알이 랩이라 칭한다! 목석과 같은 2학년 4반 남학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단숨에 RAP GOD으로 등극한 박준혁 학생의 페이지이다. 과거의 촌빨 날리던 랩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한층 더 성숙한 음악 세계로 우리 곁에 돌아온 랩의 신 박준혁! 2학년 4반 학생들의 떼춤을 절로 불러일으키는 흥겨움은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마시라.

허리케인처럼 강타한, 당신은 내 마음의 주군 : 오바킹

악마의 열매 '오바오바 열매'를 다량 섭취하신 하늘고 가왕 신준용 군의 일상이 담긴 페이지. 출중한 외모와 감히 가왕으로 밖에 칭할 수 없는 뛰어난 노래 실력, 그리고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오바킹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페이스북에서 '오바킹'을 검색하면 된다. 내 눈은 왜 두 개인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공연 영상까지 틀어박혀있는 알토란 같은 페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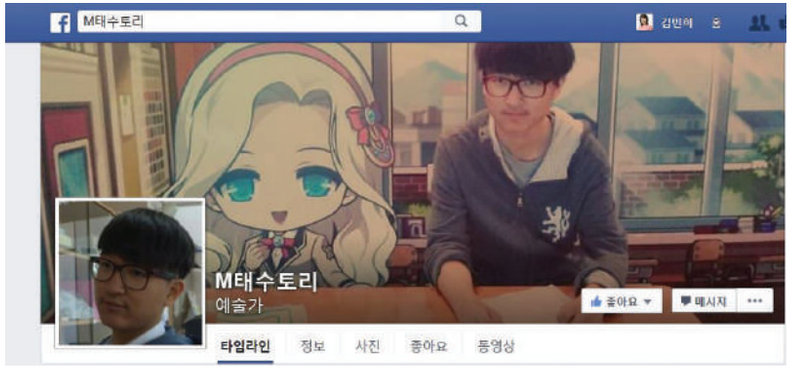
성은 '여'요, 이름은 '신'이라 불러다오 : 한쥬쥬클럽

인천하늘고등학교의 '하젤예'이자, 갖고 싶은 여자 김한주! 2학년 7반이 모두 다 그녀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도한 그녀의 무반응에 안달한 팬심은 급기야 원조여신 김한주 양을 '소유하기' 위해, 이 페이지의 카테고리를 '반려동물'로 분류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는데...

단 하나뿐인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것처럼, 문화재 같은 여자 김한주의 건재함을 바란다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한쥬쥬클럽'을 검색하시라!

또, 하늘나래는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하늘고 페북 스타' 3인을 만나보았다.

M태수토리



설립 목적

오덕화 된 메이플의 대중화. 태수를 통한 부활

▶정태수가 〈M태수토리〉 관리자에게 하는 질문

〈M태수토리〉의 목적이 '메이플의 대중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메이플보다는 제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페이지의 목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연기를 하는 배우나 노래하는 가수들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현해 꾸밈없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에게 친근감을 줘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플 하는 태수의 평소 모습과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태수가 하는 메이플을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죠.

▶〈M태수토리〉 관리자가 정태수 군에게 하는 질문

주위에서 말하길, 정태수 군이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페이지 설립 전후의 심경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연예인병 같은 건 없는 거 같은데(ㅋㅋ)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페이지가 만들어진 후, 작은 반응들을 조금은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페이지가 만들어 지기 전에는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페이지가 만들어지니까 주변 애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ㅋㅋ) 말하고 보니까 연예인병인가?

우주최강 진시영

페이지에 대한 짧은 설명
그의 이름 진.시.영. 우리들은 그의 또 다른 이름 G.O.D(으)로 그를 부른다

〈우주최강 진시영〉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친구들과의 카톡 단톡방에 셀카를 한 장 올렸는데, 그 뒤로 한 친구가 사진을 모아둘 곳이 필요하다며 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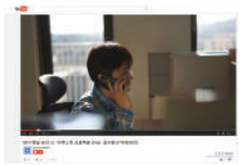
현재 5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 것 같나요?
처음엔 관리자가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도 금방 질려하며 그만둘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지속되더라고요(ㅋㅋ) 페이지가 꾸준히 운영되다 보니, 관심을 끌어서 생각보다 정말 오랫동안 활발히 운영되는 것 같아요.

〈우주최강 진시영〉 페이지 관리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페이지를 아무리 없애라고 해도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 수위만 너무 넘지 않길 부탁드릴게요. 또 관리자님! 아무리 신분을 숨기려고 해도 이미 누군지 알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관리자님에 대해서도 부각시킬 겸 관리자님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쿠스틱 프로젝트

페이지에 대한 짧은 설명
〈어쿠스틱 프로젝트〉는 하늘고의 훈남 교사이자 싱어송라이터 김경훈 님이 소속된 솔로 프로젝트 그룹으로, 2016년 1월에 발매된 '어쿠스틱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지이다.

'어쿠스틱 프로젝트'의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교사가 꿈이긴 했지만 작곡 등의 음악도 언제나 하고 싶었죠. 이전에도 CCM 음악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어쿠스틱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제 자신의 음악을 만들며 쉽게 잊고 살거나 메마를 수 있는 감성들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학생들과의 감정적인 소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변의 권유로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게 됐어요. 자기 일, 전공에만 과하게 맞추어 살다보면 삶의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삶', '지덕체' 같은 걸 갖추라고 하는데, 제가 그 모범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당장은 자세한 활동 계획이 없지만, 학교 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1~2곡씩은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음악이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음악적인 방향성이 맞다면 하늘고 학생이든 뮤지션 분이든 누구나 함께 음악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프로젝트처럼 누구나 흥미만 맞으면 함께 활동한다는 의미로요.



'어쿠스틱 프로젝트'의 신곡 '햇살 속의 너' MV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_FSP_JSZI&feature=share

facebook

화제의 영상

학업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SNS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도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하늘고 친구들이 SNS를 보다 지혜롭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난 일년 동안 하늘인들의 기억에 남는 화제의 영상 두 가지의 링크를 남기며 코너를 마치겠다.

하늘고 수능응원 2016 ver. | 작품명 : 백백백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선배들 모두를 응원하기 위해 방송부에서 제작한 영상
https://youtu.be/NeN_KrS4DSA

GTA 하늘 | 작품명 : grand theft auto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신 천도현 선생님의 생신을 기념하여 2학년 1반 학생들이 만든 gta 패러디 영상
https://www.facebook.com/100004779279735/videos/528201834015788/

▶매점 특집

나를 키운 건 8할이 매점이오

내 인생의 TOP 5

No.1
선키스트 자몽

금지된 사랑인 탄산과
상큼한 자몽의 콜라보레이션.
하늘고 학생들의 엄청난 지지율에
1월에는 급기야 선키스트 자몽이
줄지어선 자판기까지 하늘고에
왕림하셨다. 현재의 인기로는
살아있는 박보검을 이긴다는...

No.2
햄치즈에그 토스트

하루에 몇 개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비주얼과 충격적인 맛
덕분에 비싼 몸값을 자랑하며
순식간에 매점계의 아이돌로
등극한 토스트.
하늘고 매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

No.3
감동란

그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매운 라면과 함께 먹을 때면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되는
매점계의 이영표.
어시스트의 대가.
계란한테 감동해보기는 처음♡

No.4
초코에몽

하늘고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인생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내 인생의 초코우유

No.5
비빔참치마요

'참치'와 '마요네즈'의 조합으로
무장한 이 김밥을 거부한다면
그건 아마 참치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이겠지.
아침을 먹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는 매점의
스테디셀러

etc...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콘

혜성같이 등장하여 하늘고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한 심쿵 아이템. 말라붙은 우리의 지갑을 이해하듯 2+1 행사에도 자주 이름을 올리는 너란 녀석...

샤니 사과쨈 쿠키

양갱, 오란다 등을 선택하는 학생들과 함께 국민 할머니로 등극할 수 있는 노안템이나, 든든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스위트콘 호빵, 우유 호빵

호빵계의 이단아! 호빵계의 혁명! 고기호빵, 야채호빵, 피자호빵 다 비키렴. 내가 왔단다.

하늘고 왔다 하면 일단 먹어보는 매점 속 꿀조합

불닭볶음면+치즈볶이 / 불닭볶음면+감동란

- 치즈볶이는 만능이다
- 약 137억 년 전 전자와 쿼크가 생성되던 우주의 깊은 풍미가 느껴짐
- 불닭볶음면에서 느껴지는 살인적인 매움이 좀 사라짐. 제법 괜찮은 조합
- 진짜 뭔가 오묘하다고 느끼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발견
- 치볶 덕분에 더 이상 내 위장에 명복을 고할 일은 없음
- 한 번씩 번갈아먹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섞을 때는 비율이 중요함. 잘못하면 치즈 냄새 때문에 못먹을 수도...
- 불닭만으로도 엄청 매운데, 두 개를 섞으면 매운 맛이 약간 중화되기는 개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감기도 나을 것 같다.

늘 사랑하고

하늘고만큼 친구들끼리, 선후배가, 사제 간이 끈끈한 학교가 또 있을까?
서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인정 넘치는 하늘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격려의 고백, 지금부터 들어보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며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하늘고 4대 학생회.
하늘고 역사상 이례적으로 학생회장단이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된 만큼 부담감은 배로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고의 학생회장단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열심히 임하겠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의 다섯 부서인 문화체육부, 학생안전부, 학생활동지원부, 학교홍보부, 기획재정부의 부장, 차장 임원들을 모집할 때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고 선출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임한다는 것에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을 모아서 생활관과 행정실, 교과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도 하고, 전통으로 내려오던 수능 응원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3기 선배님들의 수능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술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 임원들, 학술제 준비위원회 10명, 창의협업부 선생님들과의 오랜 준비로, 이전보다 스케일도 크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모습의 '4기 충만 5기 발동'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코너들을 신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학생들이 신나게 즐기는 모습은 뿌듯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술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술제 준비위원회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밌게 즐겨준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회장단과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헌신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리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의견을 원활히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대 학생회장 유 현 승

학생회 인터뷰

인천하늘고등학교 제3대 학생회가 한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도 솔 학생회에서 진행한 학술제 준비, 생활관과의 협의 활동,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학교생활의 불편한 점을 건의, 개선해 나간 활동 하나 하나가 보람차고 의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한 자치적인 단체인 만큼, 학생회가 만들어낸 활동, 결과 등에 대해 하늘고 학생들에게 "학생회 정말 열심히 활동 하는구나", "학생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다", "학생회 파이팅!"과 같은 응원의 말 한 마디를 들었을 때, 그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생회와 다르게 현재의 학생회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시명 학생회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생 혹은 학교가 개선해야할 점이나 불편한 점 등을 수렴하여 생활관과 행정실에 전달하고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술제, 수능 응원 플래시몹, 스페셜 데이 등 학교가 주축이 되던 행사를 학생회와 학생 모두가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점이 저희가 추구하는 '학생 자치 학교'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회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인 활동이 있나요?

유현승 학생회가 학생 자치 활동인 만큼, 학생회 임원이 아닌 친구들도 학교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또한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으로 수용된 내용들을 모두 면학실에 게시하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술제 역시 학생회 임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제 준비 위원회'를 따로 선출하여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골라서 학생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남자로만 구성된 학생회장단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요?

유현승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깊이 있는 대화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거리감 없이 서로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학생회 활동에 더욱 원활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우선 남자만 셋이라 칙칙하다는 것...(ㅋㅋ) 그리고 여자 임원이 없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은 학생회 부장, 차장 임원들 중 여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유현승 이제 졸업하시는 3기 선배님들, 고등학교 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과 사회에 나가서도 하늘고인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3이 되는 4기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5기 후배들, 학교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하늘고의 듬직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할 6기 새내기들, 하늘고 생활에 대한 불안과 걱정 모두 내려놓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보람차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고 학생 여러분!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하늘고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합시다!

특집

MY PAIR

♥서로 닮아서 생겨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정다현 8반 유빈이한테 인쇄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주길래 왜 안 주는지 물어봤더니, 이미 줬다는 거야(ㅋㅋ) 난 받은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하를 나인줄 알고 착각해서 준 거였더라구~

류진하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다현아! 다현아!"하고 엄청 급하게 부르더라구. 다현이가 대답을 안 해서 계속 "다현아! 정다현!" 하고 다현이를 찾는 소리는 점점 커졌지.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하는 심정으로 혹시 몰라 뒤를 돌아봤더니, "헐! 미안, 다현인 줄 알았어ㅠ 미안ㅠㅠ"이라고 했어.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서로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다현 진짜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닮았다고 하지?

류진하 아닌데... 자세히 보면 안 닮았는데... 왜 자꾸 닮았다고 하는 거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정다현 애들이 우리 닮았다고 할 때 가끔 짜증내는 거... 장난 맞지?(ㅎㅎ) 난 장...난..인데..ㅎ

류진하 안녕 정다현(ㅋㅋ)우리 닮았다고 들은 것만 몇 번이었는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 너랑 나랑 안 닮았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가끔 멀리서 우리 둘이 거울 보면서 서 있을 때 보면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ㅋㅋ) 3박 4일 때 처음 만나서 2년 동안 안 싸우고 나랑 친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졸업해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대학 붙으면 유럽여행 계획 네가 짜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본인이 보았을 때 상대방의 어떠한 점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되는가?

정다현 키랑 머리스타일이랑 눈,코,입 배치(위치)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류진하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닮았는데 그냥 눈, 코, 입이 얼굴에 배치된 위치가 비슷해서 닮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서로 닮아서 생겨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고나영 우연히 친구 안경을 써봤는데 규성이와 닮았다고 반 친구들이 모두 외치는 바람에 일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규성아"라는 소리만 들어도 움찔한다(ㅋㅋ) 축제 때 남장이나 여장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반 친구들의 별 다른 회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쌍둥이 콘셉트로 남장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이렇게 교지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ㅋㅋ)

문규성 일단 생물학적으로 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헷갈려 하는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주변에 친구들도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나갈 때도 이과 여자애들이 '어, 정말 닮았네'하고 소곤소곤 거리는 걸 보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참...

♥서로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고나영 전에도 나의 웃는 모습과 옆 반의 어떤 친구(장..ㅇ재)의 무표정한 모습이 닮은 것으로 유명해서 남자반인데도 불구하고 옆 반에 가 닮은 정도를 보여주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너덜너덜;;) 누구를 닮았다고 해도 별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였다. 사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도 좀 특이하게 얼굴에 점이라도 하나 박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문규성 어.... 처음에는 닮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김 모 선생님의 광속에 가까운 전파력 덕분에 정신을 차려보니 전교급의 인기를 가진 쌍둥이가 되어 있었다. 주변에서 닮았다고 하면 상큼하게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니까 닮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고나영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애 닮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가 남장여장 하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결국 여장하다 뽕 빠지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어서...여튼, 그래도 데미지가 좀 컸지만(특히 니가..) 뭐 나름 재밌는 추억 만들었다고 생각하자(ㅋㅋ) 고마웠어~

문규성 여자 입장에서 남자 닮았다는 소리 기분 나쁠 텐데 듣느라 고생이 많다. 아무튼 학술제 때 남장여장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좀 더 망가지지 못해서 미안ㅠㅠ

♥서로 닮아서 생겨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김나윤 전학 온 친구, 동아리 선배들한테 김경훈 선생님과 부녀지간이라고 해봤더니 다 믿었어요(ㅋㅋ)

김경훈 선생님 나윤이와 진짜 부녀관계로 믿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윤이와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더라구요.

♥서로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나윤 인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어요(ㅋㅋ)

김경훈 선생님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뭔가 나윤이에게 미안한 기분?^^;; 나윤이를 통해 "아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인상을 보는 구나"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나윤 저희 아빠께서 많이 질투하시지만 앞으로도 실제 부녀지간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딸 진아가 저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

김경훈 선생님 선생님의 진짜 딸보다 더 나를 많이 닮은 나윤아(ㅎㅎ) 나를 닮았다는 건 많이 예쁘다는 거란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자라렴! ^^

♥본인이 보았을 때 상대방의 어떠한 점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되는가?

김나윤 얼굴형과 코도 닮았지만 특히 눈의 쌍꺼풀과 다크서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김경훈 선생님 이국적인 눈매?? ^^

MY PAIR

입맛 다른 男子의 비밀 레시피

입맛 없는 그대들을 위한 매콤한 음식 특집

올해 처음 생겨난 탕비실. 때로는 회의 장소로, 때로는 선생님들의 맛 있는 간식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특집에서는 탕비실 비밀 레시피의 주역으로 유명하신 달인 정주원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정주원 선생님이 알려주실 비~밀~ 레시피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인 떡볶이, 칼칼하면서도 가득한 햄으로 구수한 부대찌개, 그리고 평소에 손쉽게 끓여먹는 특별한 라면입니다!
정주원의 비밀 레시피! 시작해볼까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매콤하면서 달콤한

매콤한 떡볶이

- **준비물**

  물에 불려 놓은 떡, 어묵, 고춧가루 2/3컵, 고추장 2스푼, 설탕 1컵, 간장 2/3컵, 물 2컵, 요구르트 3개, 양배추, 양파, 후추, 연두, 소금, 파, 라면

- **조리 순서**

  1. 물 2컵과 간장 2/3컵, 고추장 2스푼, 설탕 1컵,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저어 줍니다.
  (이때 고루 섞이게 그릇에서 미리 섞어 주세요.)
  2. 미리 끓이던 물에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3. 양배추와 양파를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4. 요구르트 3개를 부어주세요.
  5. 미리 불려놓은 떡과 어묵을 넣습니다.
  6. 팔팔 끓여주세요.
  7. 파를 보기 좋게 올려놓아 주세요.
  8. 완성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떡볶이. 그러나 숨어있는 비밀 레시피들이 있는데 찾아내셨나요? 바로 요구르트와 고춧가루입니다.
떡볶이와 요구르트의 조화! 처음 보시죠? 정주원 선생님이 직접 떡볶이 맛집을 탐방하시며 얻은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구르트의 달콤함이 떡볶이를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떡볶이의 매콤함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춧가루인데요. 보통 떡볶이에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주원 선생님의 매콤 달콤 떡볶이에는 고춧가루가 고추장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매운 맛은 고춧가루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고춧가루는 설탕과 1:1의 비율일 때 황금비율이라고 합니다.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떡볶이의 핵심은 요구르트, 그리고 고춧가루와 설탕의 비율이었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가득한

부대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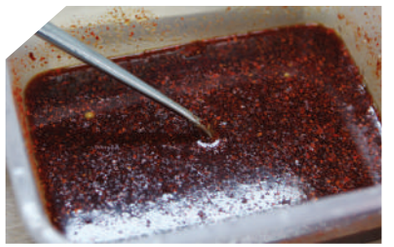
보통 우리는 햄이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요리에는 어떤 비밀 레시피가 숨겨져 있을까요?

- **준비물**

  한우사골곰탕(간편조리식품), 햄, 떡, 치즈, 파, 양파, 감자, 양배추, 간장 1컵, 고춧가루 1컵, 마늘 3스푼, 설탕 2스푼, 물 2컵, 후추, 연두, 라면

- **조리 순서**

  1. 간장 1컵, 고춧가루 1컵, 마늘 3스푼, 설탕 2스푼, 물 2컵, 후추, 연두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2. 냄비에 물과 한우사골곰탕, 양념장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3. 끓으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맛이 깔끔해지기 위함)
  4. 감자, 햄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감자와 햄은 익을 시간이 필요함)
  5. 양배추, 양파를 넣고 끓여줍니다.
  6. 계속 끓이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떡, 치즈와 파를 넣어 주세요.



이번에는 무슨 비밀 레시피가 있는지 찾으셨나요? 바로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한우사골곰탕과 양배추였습니다. 그리고 치즈와 파가 들어갈 때와 아닐 때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치즈와 파가 들어가고 나면 국물 맛이 진해지고 요리가 완성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요리를 위해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탕비실 내에서는 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칼칼하고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부대찌개였습니다.
칼칼하고 햄이 가득한 부대찌개의 핵심은 한우사골곰탕, 양배추의 조화와 파, 치즈의 풍미였습니다.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

라면

저도 처음엔 라면 별 거 있나 싶었는데요,꼭 한 번 다시 먹고 싶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 마성의 라면! 지금 만나보시죠.

- **준비물**
  콩기름, 파, 양파, 고춧가루, 육개장 컵라면(작은 사발) 2개

- **조리 순서**
  1. 콩기름을 냄비에 둘러준 후에 가열합니다.
  2. 파를 넣고 재빨리 볶아줍니다.
  3. 파에서 기름이 나올 때쯤 양파와 고춧가루를 넣고 빠르게 볶아줍니다.
  4.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5. 육개장 컵라면(작은 사발) 2개의 스프와 라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6. 완성

라면의 완성된 모습을 보니 꼭 중화요리를 보는 것 같은데요. 볶은 파에서 나온 기름이 라면을 얼큰한 중화요리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봉지 라면이 아닌 컵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으니 컵라면의 얇은 면발이 느껴지면서도 컵라면 특유의 인스턴트 느낌을 싹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라면을 요리할 때 나는 매콤한 냄새도 한층 더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마지막 요리의 비밀 레시피 찾으셨나요? 바로 기름에 파를 볶아서 나오는 기름과 파와 양파를 타지 않게 볶아주는 것도 포인트랍니다.
평소에 손쉽게 끓여먹는 특별한 라면의 핵심은 파기름과 재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를 모두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 뭐가 더 맛있었나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 모두 차려지고 김민희 선생님, 송남영 선생님, 황혜경 선생님, 이병주 선생님, 천도현 선생님, 이형주 선생님, 신미영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Q 탕비실에서 요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엔 아침을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간단한 빵을 만드는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 같은 조리기구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음식까지 해먹을 수 있게 됐어.

Q 탕비실의 단골메뉴는 무엇인가요?

라면, 빵, 떡볶이

Q 정주원 선생님의 손맛 비결은 무엇인가요?

정성과 비율

Q 탕비실에서의 대식가를 꼽아보자면요?

공동 1위. 김민희 + 송남영 선생님
2위. 신미영 선생님
3위. 장윤선 선생님

Q 학생들에게 가장 맛보게 하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부대찌개

탕비실에서 음식을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학년부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이를 다시금 느끼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탕비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펼쳐지는 탕비실. 가끔은 교감 선생님이나, 최상규 선생님, 다른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용하고 계시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특히 최상규 선생님은 먹튀를 하신다고...) 귀한 시간을 내어 직접 요리를 해주신 정주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감동적인 맛 속에서 다시 한 번 정주원 선생님의 사랑을 사랑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걱정 마, 선배가 간다!!

'선배'라 하면 흔히 출신 학교에 먼저 입학한 사람, 혹은 나이나 학예(學藝) 따위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일컫지만, 하늘고등학교에서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때로는 선생님과 부모님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자사고', '기숙학교' 등 하늘고등학교가 갖는 특별한 타이틀만큼, 제한되어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먼저 경험하신 든든한 선배님들!
하늘나래가 후배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선배님들을 만나보았다.

임채현

최민주

이태현

강지웅

서한나

수시랑 정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최민주 정시로 가려던 애가 수시로 가고 수시로 가려던 애가 정시로 갔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다 해야 돼요.

임채현 하나만 준비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준비해야 돼요. 수시를 아예 버리고 정시로 대학을 잘 간 사람은 정말 딱 한 명 봤어요.

비교과 활동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태현 비교과 활동은 일찍 많이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임채현 스펙이 많다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스펙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신이 중요해요.

강지웅 그냥 백퍼 내신!

이태현 생(生)내신! 내신 안 좋으면 광탈!

서한나 자소서는 정말 엄청나게 잘 쓰지 않으면 안 돼요 ㅠ

논술은 준비해야 되나요?

이태현 논술만 믿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가적인 거죠.

최민주 논술은 진짜 로또라고 생각해요. 경쟁률이 너무 세서요.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안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서한나 논술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수시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쓰고 남는 카드에 논술 전형으로 채워 넣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임채현 수시는 학종이 정말 좋고 편해요.

학교에서 가장 크게 저지른 일탈은 무엇인가요?

강지웅 스포아츠 시간에 테니스를 하러 과학고에 갔다가 출석만 하고 친구들과 함께 근처 롯데리아에 들러 햄버거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ㅋㅋ ;;)

서한나 우리는 일탈이 외부 음식 먹는 것 밖에 없어요. (ㅋㅋ)

강지웅 아, 예전에는 기숙사 별관 문이 열려 있어서 몰래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태현 맞아요, 저는 새벽 4시에 별 보러 나간 적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친구관계는 어떻게 했나요?

서한나 힘들 때일수록 친구와 더 끈끈해 지는 것 같아요.

임채현 싸우기도 하지만 3학년 되면 공부하면서도 놀 때는 또 같이 재밌게 놀아요. 특히 복도 면학하면서 (ㅋㅋ)

이태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친구와 놀 땐 놀고 균형을 잘 맞춰야죠~

강지웅 수험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건 친구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익명 질러야지

익명 자신이 공부와 자기관리를 균형 있게 잘 해야죠.

익명 하지만 연애하다가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신경쓸 게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신한테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익명 고3때는 절대 시작하면 안 돼요!

익명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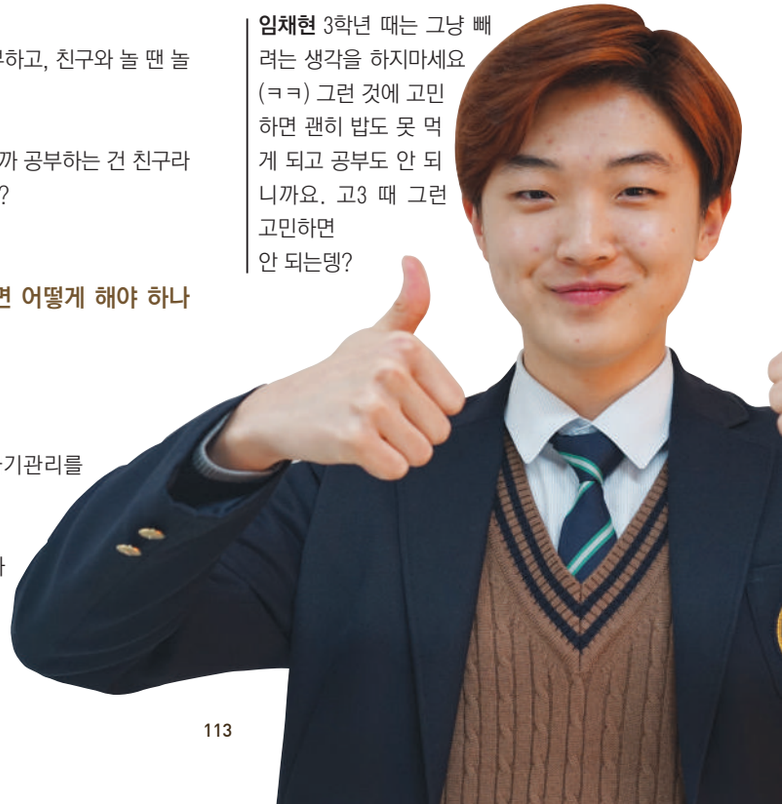
익명 고마운 거지.

익명 와.. 용기 있다.

익명 마음 없는데 계속 끌지 말고 착각하게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채현 3학년 때는 그냥 빼려는 생각을 하지마세요 (ㅋㅋ) 그런 것에 고민하면 괜히 밥도 못 먹게 되고 공부도 안 되니까요. 고3 때 그런 고민하면 안 되는뎅?



최민주 수능 끝나면 저절로 빠진대.

이태현 아침 점심 저녁은 먹고 야식을 안 먹는 게 좋아요.

임채현 운동도 좋지만 괜히 피곤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독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태현 저는 한 번에 몰아서 읽어놨다가 나중에 썼어요.

서한나 공부 안 될 때 책 읽고 저는 좋아하는 책의 구절은 필사를 해놔서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기억도 잘나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주 전략적으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방법도 괜찮아요.

임채현 그렇다고 책을 너무 편중해서 읽는 건 안 좋아요.

이태현 그리고 정말로 책을 좋아해서 읽고 싶다면 그냥 읽어도 돼요.

서한나 시험기간에 책이 읽고 싶어지는 건 공부하기가 싫어서일 거예요. 공부가 부족한데 그런 이유로 책을 읽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예쁨 받는 전략이 있다면?

이태현 수업 열심히 들어야죠. 인사 잘하고!

임채현 잠이나 자지 마세요.

강지웅 원석 쌤은 눈 마주치는 거 좋아하세요. 원석 쌤이 눈을 3초 이상 바라보시면 절대 피하면 안 돼요. 공식이에요.

임채현 단기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착실하게 잘 지내면 선생님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예요.

수능이 끝난 후 어떻게 생활하시고 계신가요?

강지웅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과는 조금 달라요. 수능 끝난 후 일주일 정도는 기력이 정말 없어서 시체 같았어요. 신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막막하고 허탈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

최민주 아침에 11시쯤 일어나서 핸드폰 조금 하다가 다시 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해요. 침대가 너무 좋아^^

임채현 수시로 대학 간 아이들은 놀아요. 수시가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이태현 운전면허 따는 애들도 있어요. 언어도 배우고~

서한나 여행 가요.

최민주 영화 봐요.

강지웅 친구들 보고. 아, 오늘 응팔 봐야지~

최상규 선생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최민주 여자로 태어나야 돼요.

이태현 남자를 싫어하세요.

임채현 제가 보기에는 상규 쌤은 예의바르고 착한 학생보다는 막나가는 학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손한 학생은 부담스러워 하세요.

최민주 만약 상규 쌤이 담임선생님이시면 되게 자유로워요. 담임선생님이 없는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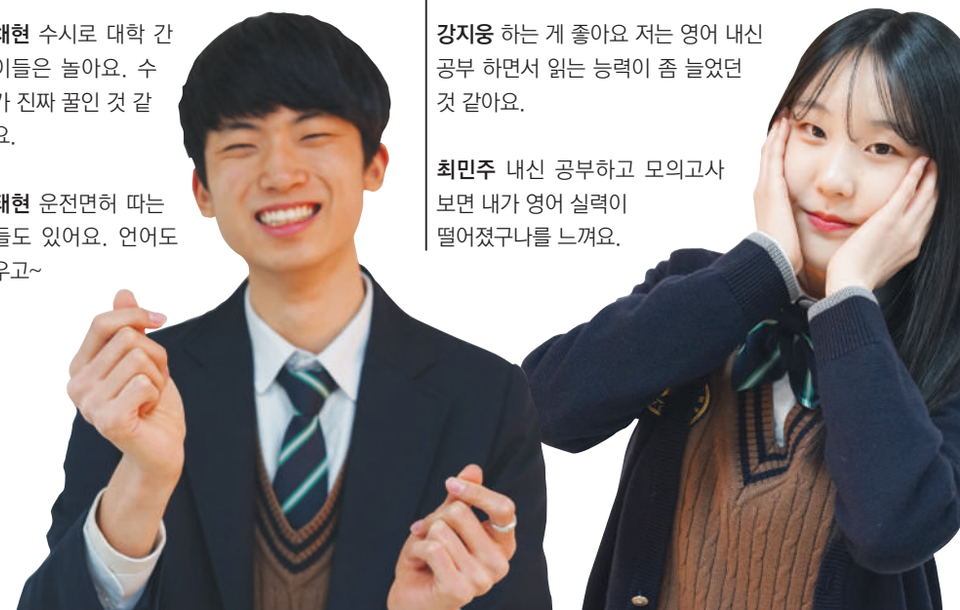
영어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임채현 1,2학년 때는 영어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서한나 엑시트 ㅋㅋㅋㅋㅋ

강지웅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영어 내신 공부 하면서 읽는 능력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최민주 내신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면 내가 영어 실력이 떨어졌구나를 느껴요.



강지웅 그래도 그때 그거 안하면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열심히 해요.

서한나 영어는 3학년 되면 수특으로 하고 인수로 하고 다 수능연계니까 괜찮아요.

연장이 낫나요? 비연장이 낫나요?

최민주 케바케

서한나 저는 항상 비연장 했어요.

임채현 저는 연장을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연장을 하면 1시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30분 더 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잘하면 괜찮지만 안 된다면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지웅 비연장을 하면 들어가서 바로 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장을 하면 그때는 바로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차라리 좀 더 공부를 하고 바로 자는 게 나았거든요.

잔류가 낫나요? 비잔류가 낫나요?

임채현 학교에 있어야죠.

서한나 저는 항상 잔류했어요. 저는 나가는 게 자신이 없었고 저를 못 믿어서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야 되니까 의무감이라도 들자는 마음으로 잔류했어요.

임채현 예비 고3은 나가도 공부를 하는데 예비 고2는 학교에 있는 게 백퍼 나아요. 집에 가면 그런 경각심이 아무래도 없어지죠.

이태현 예비 고3은 나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최민주 저는 나가는 것도 추천해요. 학교에 있으면 오전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나가서 하루에 11시간 정말 독하게 했어요.

임채현 이렇게 못할 거면 나가지 마세용~

이태현 저는 나가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의지를 잡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최민주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참으면서 인내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강지웅 뻔한 얘기 아니야? ㅋㅋㅋ

임채현 끝나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버텼는데... 근데 막상 그거 다 안 한다?

강지웅 현실적 제약이 많더라고요.

임채현 잡생각이 3학년 때는 엄청 심해지긴 해요. 집중만 안 되고...

서한나 그래도 그런 잡생각이 유익했어요. 3학년 때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태현 고3 되기 전 겨울방학이 공부가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이지만 정말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수능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임채현 저는 수능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룸메들은 다 코 골면서 잘 자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인 걸 확인하고 잠들었어요. 그러고 6시에 일어나서 전날 빈속에 먹었던 약 때문에 속이 너무 쓰렸어요. 멀미가 심해서 버스에선 계속 어지러웠구요. 수능 때 긴장은 안 됐는데 최악의 컨디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이태현 저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이틀 전부터 수능 전날에 듣고 잘 노래까지 미리 다 골라놨거든요. 앉아있는 자세나 몇 교시에 뭐를 먹어야 하는지까지 다 생각해놨어요.

서한나 저도 머리가 다 새하얘질까봐 매뉴얼을 다 적어놨어요. 자리에 앉아서 긴장되면 껌을 씹고 몇 교시에 뭘 마시고 이런 것까지요.

최민주 저는 수능 때 숨이 안 쉬어져서 계속 할 딱할딱 거렸는데 그래서 컴플레인 많이 들어왔어요 ㅋㅋㅋ

서한나 저 국어 볼 때 지문이 안 읽혀서 정말 심장 부여잡고 봤어요.

임채현 국어 시험 때 걷어가기 2초 전에 답을 바꿔서 냈는데 걷어가자마자 답이 틀린 걸 안 거에요ㅠ 그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멘탈 잘 잡아야 돼요. '괜찮아, 이거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영어도 너무 어려운거예요~ 지금까지 풀었던 영어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한나 그리고 영어 마지막 지문에 제 이름이 나와서 너무 집중이 안 됐어요ㅋㅋ

임채현 그래도 전 고사장에서는 긴장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시험 본 고사장에서는 하늘고가 8명 정도 있었고 재수생 선배들까지 해서 1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이태현 그래서 공부할 때는 수능을 대비해서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렵게 하려고 로스쿨 같은 거 풀고 그랬어요.

임채현 그리고 영어 연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아예 생판 모르는 지문이랑 그래도 뭔가 익숙한 지문이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태현 아, 그리고 시험 끝나고 애들이 서로 답 확인하는데 이거 정말 흘려들어야 돼요.

서한나 마지막에 제2외국어 시험 끝나고 30분 기다릴 때가 너무 힘들어요 ㅠㅠ

하늘인 모두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1학년 이주철

일 년 동안 선배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신 덕에 저희 5기 모두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CiPiE와 Sportive, 그리고 라크로스 선배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4기 선배님들 남은 고3 한 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배님들의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김혜현

병신년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 대박나기를 응원할게요! 선배님들 늘 듬직한 모습으로 하늘고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좋은 영향력을 마구마구 끼치는 그런 선배님들 되시기를! 우리 후배들은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예쁘게 자라줘요~ 그리고 우리 4기!! 축제 때 보니까 화끈하게 놀 줄 알던데~ 남은 일 년도 화끈하게 보내버리자 (ㅎㅎ) 우리 하늘고 모든 사람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용♥

1학년 안수진

어느덧 저희 5기가 일 년 내내 달고 있던 '신입생'이라는 타이틀을 6기에게 물려줄 때가 찾아왔네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1학년이 끝나고 나니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4기 선배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잘 지켜봐주신 덕에 무사히 1학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젠 선배님들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 6기에게 바람직한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새 학년이 시작되겠지만 선배님들을 향한 존경과 응원은 계속됩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김성년

하늘고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되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던 3기 선배님들이 떠나고 정든 5기 후배님들이 2학년이 되네요. 우리 선배님, 후배님, 동기, 선생님 모두! 올해 파이팅하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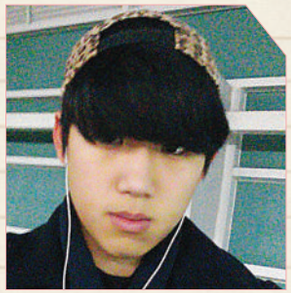
3학년 학생부회장 김도현

고등학교 생활 동안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저는 항상 곁에 있어주셨던 많은 분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우들의 3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후배님들의 고등학교 생활 또한 항상 밝고 행복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후배님들 곁에는 항상 여러분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3학년 이승희

안녕 얘들아~ 나 이승희야. 하늘고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참 외롭기도 했고, 머리 쥐어짜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늘고 좋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할 거야. 하늘고에서 만난 둘도 없는 친구들,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던 선생님들, 진짜 친구같이 편하고 좋은 선배들, 나를 좋아해주는 후배들. 전부 다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들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서 예민할 때도 주변에서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아주 힘이 났어.^^ 끝으로 내가 참 강하게 생겼어도 마음은 착하고 순진해;; 진짜(ㅋㅋ) 그러니까 하늘고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내자!



1학년 전준범

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철없고 어리석은 아들 보살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밝게 웃을 때도, 또 그와는 다른 면을 보여드릴 때에도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옳은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제가 그만큼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본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2016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의 전.준.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1학년 전준범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 준범아! 눈웃음 짓고 애교 부리던 아들의 모습에서, 한 인격체로 더욱 성장해가는 시간이었던 고1을 이제 마감하는구나. 힘든 학업과 학교생활에도 강한 의지를 불태우는 너의 강인함이 엄마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대견했고, 또 믿음직스러웠어!

언제나 파이팅! 전.준.범.

언제나 최고! 전.준.범.

하늘고 전교생이

준비된 자, 준범이의

범상함을 환호한다!

3학년 이정인

하늘고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뜻깊었던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고만이 뿜어내는... 자유롭지 않은 듯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꿈'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 가득한 이 학교에서 여러분도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욕먹으면 어떻고, 실패하면 또 어때요! 지나고 보면 학창시절, 활발했던 그때 그 모습이 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4기, 5기 후배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들 파이팅♥

2기 졸업생 김태윤

하늘고 후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쓰게 됐네요. 모두 수고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3년의 입시생활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말 계속해서 지루하겠지만 지금은 수고했다는 말이 최고인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모두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1기 졸업생 신록

안녕하세요, 아마 후배님들은 한 번쯤은 저를 매점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점 형/오빠로 더 친근한 하늘고 1기 졸업생, 신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켜 본 후배님들의 모습이 과거 저희 졸업생들의 모습과 똑같아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벌써 졸업을 하여 외부인이 되었다는 것이 살짝 씁쓸하기도 했어요.

3학년 후배님들은 수능이 끝났다고 음주가무를 즐기며 마구 날뛰거나 집 안에서 뒹굴거리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많이 쌓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자기계발도 해보세요.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2학년 여러분은 심주석 선생님 말씀대로 닥공, 죽공을 실천할 시기입니다. 저는 그걸 하지 못해 아직도 후회가 되고, 만약 그 당시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물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학년들은 수능이 2년 남았다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훅 가고 공부가 밀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래도 공부만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니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후배님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감 선생님께 들키지 않고 라면을 어디서 먹는지, 기숙사 방 어느 곳에 과자를 숨겨야 하는지 등의 꼼수(?)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선생님들이나 사감 선생님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졸업생과 재학생들만의 비밀로 남겨 놓을게요. 100세 시대에 비하여 고등학교 3년은 짧은 시간이므로 힘들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3학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2기 졸업생 전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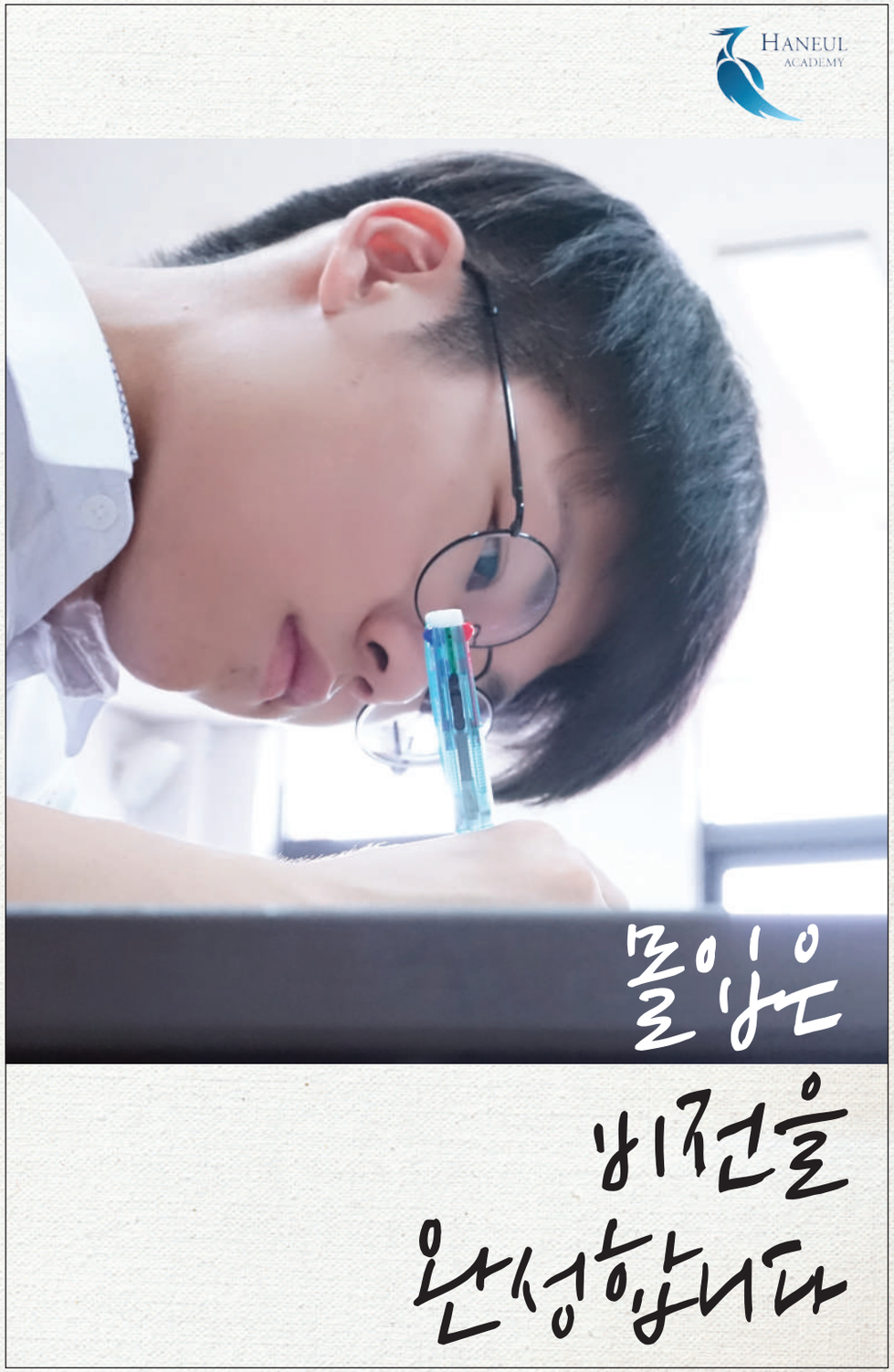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2기 졸업생 전소연이에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이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세울 점이 있다면, 꿈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요! 다행히도 지금 국문학과에 진학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 배우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당장은 꿈보다 대학이 너무 크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조금만 더 멀리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장 1~2년 후가 아니라, 십 년 후에는 각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어떤 모습이어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설정해놓고,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라고.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유일한 조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 매일은 아니라도 가끔씩 일기를 쓰라고 해주고 싶어요. 시간의 흔적을 포착해두기에 일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들 투성이일 거예요. 글솜씨가 어떻든, 진솔하게 써놓은 일기는 그 시간을 생동감 있게 되살려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기를 쓰면, 하루를 '별로였다'고 정리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더라구요!

지금 다들 어떤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의 복판에서 마주한 이 글이, 후배님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후배님들이 하늘고에서 보낼 순간순간이 즐겁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쓸게요!



수능 후에

남자편

안녕 동생덜~ㅋ 언니 오빠 오랜만이쥐~ㅎ
수능 공부들은 잘들 하구 있능가?? 궁금해서 함 들러봤숴~^^
우리 애긔덜 수능 후 뭐 할지 꿈꾸고 있지~?ㅋ
지금부터 이 언니 오빠가 친절하게 알려줄겡~ㅎ

NO.1 연애

우리 후배들이 수능 끝나고 하고 싶다는 것 1위는 연애!

다들 갑갑한 기숙사에 있으면서 나만의 임을 꿈꾸고는 했잖아?
어두운 저녁 나의 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골목길을 걸어 다니다가 전봇대 밑에서 수줍은 첫ㅋ..
아니, 함께 아침의 따스한 햇살과 새소리를 들으며 카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입에 살짝 묻은 거품을 보고는 수줍은 첫ㅋ..
형만 이런 상상만 하는 건 아니지 ㅎㅎ?
아무튼! 다들 한 번씩 꿈꾸던 연애를 수능 끝나고 이루길 바라~

NO.2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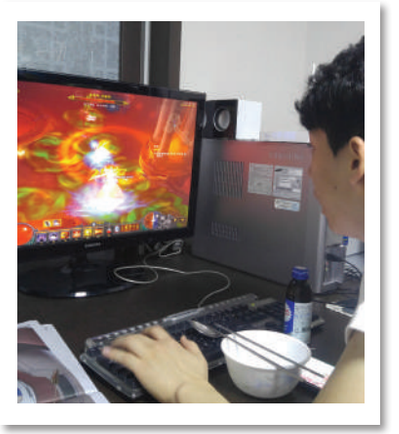
우리 후배들이 수능 끝나고 하고 싶다는 것 2위는 바로... 여행이야!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제주도, 유럽, 미주, 등등 다양했지만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재미있는 법.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움직이는 것도, 아무 계획도 돈도 없이 훌쩍 떠나는 것도 좋아! 혼자 가는 것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들 여럿과 여행하는 것도 좋지.
입시 끝나면 짐 싸고 어디로든, 일단 달려가 보도록 하자.
혹시 알아? 〈비포 선라이즈〉와 같은 인연을 만날지도ㅋㅋ
다만 여행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핸드폰은 잠시 덮어두는 걸 추천한다!

NO.3 게임

다들 한 번씩 아무런 R&E, 독서활동 걱정 없이 게임하는 걸 꿈꿔왔었지!
하루 종~~일 게임 해보는 것이 후배들이 뽑은 3위야!

일요일 오전 느지막이 일어나 친구에게 온 카톡 한 통! '피방 ㄱ'
모자 대충 눌러쓰고 나가 간짬뽕 하나를 아점으로 먹으며 하는 봇 듀오란! 캬아~
거기에 시원한 마운틴 듀 한 잔까지! 우리 모두가 꿈꾸던 인생 아니겠니?
아무런 걱정 없이 점멸과 궁을 시원시원하게 날리면, 지금까지의 대학입시 스트레스까지 안녕~
아, 물론 브론즈에서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ㅜㅜ



NO.4 운전

90% 이상의 후배덜은 수능 끝난 후에 운전학원에 등록하게 될 거야.

여러분은 일단 5시간의 학과 강의를 수강해야 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지루하니까 단단히 맘먹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이후 필기시험을 치고 기능 시험까지 통과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막 긴장됨. 6시간 이상 연습하고 나면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어. 참고로 형은 2종 시험 봤는데, '남자는 1종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2종 한 번에 통과해서 돈 아끼는 걸 추천해. 운전면허 재수하게 되면 6만원씩 들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을 수령하고 라이더로 거듭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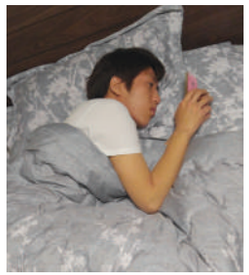
NO.5 잉여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위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루어 봤지만 너희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잉여로 보내게 될 거야.
잉여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활동을 의미하지만 나 같은 경우 입시사이트 들락날락거리기, 해외축구 관련 기사보기, 나무위키에 아무거나 검색하기를 가장 많이 했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귤이지!
겨울 제철과일인 귤은 집 앞 마트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항시 너의 곁에 있을 확률이 아주 커.
1월쯤 되면 껍질을 아주 쉽게 깔 수 있을 것이고 손톱도 귤색으로 변하게 될 거야.

이불 밖은 춥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집 안에서 머무는 게 그 무엇보다 현명한 것 같기도 해^^
아무튼! 다들 한 번씩 꿈꾸던 연애를 수능 끝나고 이루길 바라~



수능 후에

여자편

NO.1 연애

수능이 끝나면 다들 예뻐지고 잘생겨지면서 애인이 생길 것 같지? 페이스북 같은 SNS에 '나는 지금 연애 중이오' 공개도 해보고 싶고, 계절별로 축제 분위기도 내는 그런... 달콤한 연애도 꿈꾸고 있겠지. 데이트는 물론이고 커플룩 입기, 같이 사진 찍기, 커플링 맞추기 등 그동안은 혼자 혹은 다른 여러 친구들과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사랑하는 내 '짝'과! 그것도 수능의 부담을 떨쳐버린 채 마음껏 즐기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 나 역시도 잘 알고 있어~
이처럼 수능만 지나면 주위에 EXO나 강동원 같은 대학교 선배가 생기고, 수지나 마마무 같은 동기가 생길 거라 착각하는 우리 후배님들~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정말 '수능'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안.생.겨.요.....ㅎ)
그리고...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연예인들의 과거사진 중에는 모태미남, 모태미녀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 (ㅋㅋ) 3년 동안 공부만 한 우리(정말?), 이제 변신의 시간이 왔으니 모두 함께 바람막이 벗어 던지고, 친하게 지내자~ (서로 나중에 소개팅 해줘야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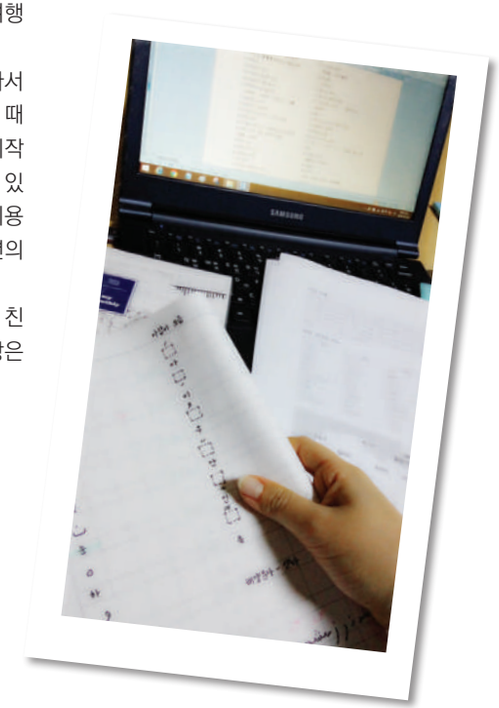
NO.2 여행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봄날, 우리 후배님들도 창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 정말 많았지? 정작 공부는 안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이 무거워, 차마 밖으로 나가 놀지 못했던 너의 모습... 그것 또한 내가 잘 알지 ㅠ

수능 후엔 스스로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에 위치한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먹방여행부터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까지!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수능이 끝난 고3은 무기력증의 노예와도 같아서 여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귀찮아 할 때가 있어. 또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여행준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고3들은 알바몬으로 둔갑해 있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기도 하지.^^ 나름의 실력을 이용해 과외를 하기도 하고, 넘쳐나는 힘으로 호텔이나 편의점, 물류창고 등에서 일을 하기도 해~

그렇게 모은 돈으로 1월이나 2월에는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꽤나 있으니, 우리 후배님들! 여행에 대한 환상은 지키셔도 될 듯♡



NO.3 다이어트

'입시'를 핑계로 '적립'해왔던 그동안의 살들! 수능만 끝나면 마치 '오 마이 비너스'의 신민아처럼,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처럼 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 이 언니 역시도 수능 후의 새로운 나를 기대하며 메이크업 오버쇼의 극적인 여주인공처럼 변신하는 그날을 꿈꾸었단다.

그러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고3은 무기력의 끝판왕이라고 했지? '다이어트를 하자!'보다는 '못 먹었던 걸 먹고 죽자!'에 가까워지는 너를 보게 될 거야. 주변에 헬스를 다니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잦은 모임이나 여행, 그리고 본판 불변의 법칙 등으로 인해 사실 큰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그밖에... 수능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지내지만은 않아! 나름 생산적인 활동도 한단다. 특히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하늘고의 연장선상 마냥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남자라면 정시지!'에서 '남자라면 1종이지!'로 어느덧 구호가 바뀌어 있는 희한한 광경을 보기도 해.(ㅎㅎ) 이외에도 앞머리를 다시 자르거나 염색, 혹은 펌, 각종 액세서리 구매, 네일아트처럼 때 빼고 광내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너무 하고 싶었다 ㅠㅠ)

또 하늘고에서의 국한된 여가생활이 확장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에 매점 음식과 노트북으로 즐겼던 영화감상이 영화관에서의 팝콘으로, 집에서의 정주행으로, 공연장의 공연으로 진화하기도 해. 또한 입학을 기다리며 새내기톡을 만들어 예비 동기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배들과의 친분을 쌓기도 하며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단다.

자, 내년엔 바로 너희 차례야!

이정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Q. 건축학과 입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고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가진 소신과 특색을 대학에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련의 활동들을 스스로 기획하기도 했지만, 주어진 활동들을 두고 어떻게 건축과 연관 지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인 내신에 공을 들이는 것부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동아리 활동, 건축 관련 기사스크랩, TED 건축분야 강연을 활용한 학습동아리,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건축 에세이 작성, 공간을 주제로 한 과제연구, 건축캠프와 공학캠프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과 환경'이나 '인간과 우주' 보고서, 창의융합 R&E, 국어 물리 지리 교과 등의 수행평가, 학교홍보 UCC 제작, 영어 에세이 대회와 같은 다소 진로분야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에 참여할 때에도 '건축'이나 '공간'과 같은 키워드를 유념하면서 풀어나가곤 했습니다.

Q. 독서활동을 할 때 어느 것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따로 독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관심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너무 한곳에만 치우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 희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디자인, 건축, 공간, 도시에 관한 책에 눈길이 가, 그것들을 주로 읽었지만 고전을 포함한 인문, 기초과학, 사회, 수학 분야의 책 또한 놓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양 독서의 비율과 관심 분야였던 건축 관련 독서의 비율이 6:4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부분은 철학서의 중요성을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거? 시간 여유가 있는 후배님들은 어렵더라도 철학관련 책을 읽는 연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책을 읽는 도중 진로노트 같은 데에 기억해둘 내용,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는 내용, 나의 생각을 구분해서 정리해 둔 내용 등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 준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민주
아주대학교 의학과

Q. 의예과 입시를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 하셨나요?

딱히 의예과 입시를 위해 한 활동은 없어요. 1,2,3학년 장래희망 모두 공학관련 직종이었고, 비교과 활동은 물리나 공학관련 활동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은 의사였는데, '이 정도의 내신으로는 의대 수시에서 가능성이 약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제 생기부의 방향이 기계공학자 쪽으로 흐르게 된 거죠. 그렇다보니 공대에는 합격을 했지만, 의예과 수시는 세 개 중 두 개에서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대에서는 공학을 파고들었던 열정과 탐구심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합격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의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겠죠?

Q.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기별 팁이 있다면요?

6월 모의평가까지는 모두가 열심히 할 거예요. 6월 모의평가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6월 모평 이후에는 여름방학이 있어요. 성적 향상의 마지막 기회지만 느슨해지기도 쉬운 시간이에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확실히 오를 거예요.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자기소개서 준비와 원서접수 등으로 수업이 없기도 하고 친구들도 논술고사에 응시하면서 학교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의 불안감을 부모님 면회를 통해 해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큰 힘이 돼 주십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어떻든 수미잡(수능 미만 잡)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수능을 향해 달린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능 일주일 전에는 컨디션을 수능에 최적화 해야 돼요. 매일 10시쯤마다 배가 아파 수능 날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큰일을 해결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만큼 최적의 컨디션을 맞추고 마지막 정리를 하다보면 수능도 잘 보게 될 거에요. 대략적인 고3의 일 년을 참고해서 계획 잘 세우고 멋진 일 년 보내세요!

김민성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Q.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신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수능 본 이후부터 한의예과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직업 자체가 갖는 안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의료계열 특성상 남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좋았고요.

또 알아보니 한의예과에서 자연과학에 관련된 과목도 배우지만, 동양철학도 비중 있게 배우더라고요. 인문학 공부는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 공부 적성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Q.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배님만의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나요?

영어부터 이야기하자면 3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일단 연계교재를 반복적으로 봤어요. 2학기에는 틈틈이 연계교재를 읽으면서 빈 칸 등의 고난도 유형의 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를 다시 공부했고요. 기억이 나는 기출문제라도 계속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세계사 공부를 재미있게 했는데요, 개념공부와 기출 풀이를 마치고 나서 연계교재를 답지까지 꼼꼼하게 봤고, 3종의 교과서를 모두 구해서 읽어보았어요. 역사과목에서 지엽적인 사실을 다루는 문제가 어려운데, 제가 한 방식대로 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소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Q.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배님만의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나요?

전제: 내신 기간(3~4주)에는 내신만 해도 됨 (3학년 빼고...)+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임

수학) 수학은 개념이 중요한데, 그 개념을 한 번 배운 다음에는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념을 제대로 했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요. 2학년 때까지는 어떤 문제집이든 다 풀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매일 문제 푸는 게 좋고,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때까지는 좀 선별해가면서 기출 위주로 풀되, 낯선 문제도 꾸준히 접하는 게 좋겠죠. 답지는 최대한 멀리하고 두세 번은 꼭 고민하고 풀었어요. 연계 교재는 그냥 푸는 게 좋고요.

영어) 연계 교재 공부도 계속 하되, 비연계 즉 낯선 지문도 계속 봐야 돼요. 실력은 있는데 여유가 없다면 비연계만 공부해도 될 정도고요. 하지만 연계 효과도 은근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죠. 영어는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스스로 생각해두고, 다 푼 뒤에 가시적으로 근거를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어가 모든 파트의 근간이므로 단어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외우길 추천해요. 영어도 꾸준함이 중요하죠. 매일 낯선 지문을 접해야 돼요.

Q. 수시 원서 접수기간에 학습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도 좀 해이했었죠. 자소서 쓴다면서 딴 짓 할 때도 많고 입시가 끝나가는 것 같은 헛된 기분에 늘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 안 되는 환경(309호나 어학실 등)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아예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을 따로 빼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시적인 목표를 그날그날 세워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7시까지 실전 모의고사 3회분 풀고 오답 정리하기' 같은 그런 거요. 못 지키면 위기감이 들 거든요. 또 굳건한 사람을 보면서 각성할 수도 있어요. 결국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입시는 수능이 받쳐줘야 얘기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박을 느끼진 말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의 여유는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명심할 건 진짜 수시에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라는 것!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수생 성공기

최대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논술전형 합격

Q. 재학생 때와는 달랐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나요?

입시는 곧 전략이죠. 잘하는 과목은 수학뿐이었고 국어에서는 약점을 보여 수시전형에서 수리논술이 포함된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논술에 대비하였고 인문논술만 보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인문논술에는 합격 가능성이 없었기에 재수를 시작할 무렵부터는 수리논술에 더욱 전념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단순히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저는 학과에도 신경을 썼어요. 특히 최저 등급이 없는 대신 학생부 종합평가 50%를 반영하는 한양대학교의 학과를 선택할 때는 생활기록부를 다시 보면서 저의 생활기록부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학과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수리논술을 시행하는 상경계열학과 중 경제금융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입시는 정보의 싸움이기도 해요. '정보력'은 다소 부족한 실력을 채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62:1이라는 경쟁률은 결코 낮지 않잖아요. 전략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거예요. 특히 재수생이라면 맹목적으로 수능 공부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력, 즉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대학 합격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Q. 재수를 고민하는 하늘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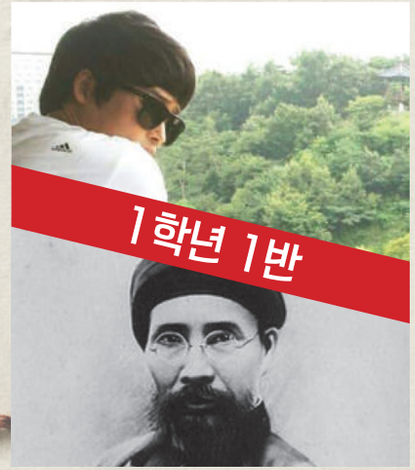
'재수'는 패배자의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과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점수에 막혀, 마음에도 없는 대학에 진학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 혹시라도 재도전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도전하는 그 모습이 이미 진정한 승자니까요. 일 년이라는 기간은 잠깐의 고통을 주지만 꿈과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후배님들, 모두 힘내세요! 노력한다면 수능 성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재도전을 하게 되는 일 년은 고3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힘든 만큼 결과가 돌아온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 년을 보내기를 응원할게요! 3년 동안 지친 몸으로 일 년을 더 공부하려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몸 관리도 잘하시고요. 어려움을 참고 노력해서 꼭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도할게요. 파이팅!

늘 함께이길

학생들의 학교 자랑에도, 학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 속에도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이라 쓰고 '엄마, 아빠'라 읽는 우리의 동반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선생님 사랑해요
: 담임선생님과 빼박 역사적 인물



이지현 선생님 ≒ 판보이쩌우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보이쩌우' 역시, 그의 젊은 시절에는 이지현 선생님처럼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두 분 모두 코가 오똑하며 동글동글한 눈망울에 뚜렷한 이구목비와 같은 잘생긴 얼굴을 지니셨으며 교육에 힘써 노력하신다는 점도 큰 공통점이시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현쌤은 안경을 쓰고 있으시며 나이를 거꾸로 드신다는 점?

송치성 선생님 ≒ 마동석

큰 덩치에 친근함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첫인상. 두 인물은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또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알아가다 보면, 강하고 거친 첫인상과는 상당히 다른 너그러우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세세하게 신경써주시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중언 선생님 ≒ 헤라클레스

자비롭고 지혜로우시며 무엇보다도 용맹하고 힘이 매우 세다. 사자 가죽을 두른 헤라클레스처럼 이중언 선생님은 사자 동물 잠옷을 두르셨고, 몽둥이를 들고 다녔던 헤라클레스처럼 이중언 선생님은 목검을 들고 다니시며 나쁜 짓을 하는 학우들을 벌하시곤 한다. 헤라클레스는 12개의 과업을 했지만 이중언 선생님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이중언 선생님은 헤라클레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김경훈 선생님 ≒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은 부조리한 세상을 풍자한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자 아티스트이다. 김경훈 선생님 또한 인천하늘고등학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굉장한 드립력을 소유하신 재치덩어리이시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짚어가며 학생들의 생각을 확대해주시는 길잡이이시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갖고 계신 아티스트이시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연 선생님 ≒ 잔 다르크

"1학년 5반을 구하라!"라는 외침을 들으신 이후, 5반에 행차하신 김민연 선생님께서는 특유의 당찬 기운과 호탕함으로 우리들을 1년 동안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셨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엄청난 열정과 특유의 리더십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으셨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통찰력으로 우리를 지도하셨다는 점에서 잔 다르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연쌤 사랑해요.(진지)

이수민 선생님 ≒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이듯이 이수민 선생님은 6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1위이시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의 정치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국내 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원칙과 소통을 중시한 여왕이다. 1학년 학생들은 벌점 받은 우리 반 학생들이 교무실 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뚫어져라 벽만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수민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위해 원칙을 중요시하셨고, 우리 반 한 명 한 명 모두를 생각하며 소통하셨다. 이런 점에서 엘리자베스 1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현주 선생님 ≒ 신사임당

1학년 7반이 율곡 이이처럼 바르고 굳건한 학생, 바르게 자라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같이 일년 동안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신사임당이 조선시대의 가장 현명한 어머니인 것처럼 이현주 선생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고민을 말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셨다.

노혜정 선생님 ≒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언제나 백성들을 생각하여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여 보급하였듯 노혜정 선생님 또한 언제나 8반을 위해 고민하시고 변화를 거듭하신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에서 엿볼 수 있는 세종대왕의 창의성 또한 유사한 점이다. '다소~한 면이 있지만', '그들이', '그들 때문에'와 같이 선생님만의 언어와 남성스러운 몸짓, 선홍빛 잇몸 미소에서 선생님만의 창의성과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결혼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천도현 선생님 ≒ 간디

우선 전체적인 외모에서 코가 가장 부각된다는 점과 두 분 모두 코와 안경이 붙어있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 비슷하며, 온화한 미소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인자함 역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간디가 '비폭력'의 상징인 것처럼 천도현 선생님 또한 무력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고도 우리 1반을 잘 이끌어 나가주신다는 점에서 간디와 유사하다.

송남영 선생님 ≒ 가브리엘 샤넬

샤넬이 여성들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편한 여성용 바지를 입도록 만든 것이 송남영 선생님의 혁신적인 수업 방식과 비슷하며, 모델들이 지쳐 쓰러지도록 작업하던 샤넬의 모습과 송남영 선생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비슷하다. 또한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실 뿐 아니라, 샤넬 브랜드처럼 고귀한 분위기를 지니셨다는 공통점도 있으시다. 남영쌤도 샤넬처럼 사랑과 일 모두에 성공하며, 오래도록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장윤선 선생님 ≒ 조조

조조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 대처했으며, 이전의 죄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을 등용했다는 점이 장윤선 선생님과 비슷하다. 또한 의아심(疑訝心)이 강하여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역시 선생님과 유사하다.

정주원 선생님 ≒ 장비

장비는 삼국지에서 용맹하면서도 다소 험상궂은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정주원 선생님도 장비처럼 무서운 첫인상을 가지고 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용맹함이 있으시기에 장비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정주원 선생님은 자신만의 무기인 야구방망이 모양의 빠따로 가끔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의 종아리를 찜질해 주시는데, 그 모습 또한 장비가 '장팔사모'라는 개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형주 선생님 ≒ 망태할아버지

"너 말 안 들으면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말 안 듣고 까부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할머니들께서 주로 하시던 말씀이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형주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체육관으로 잡아가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셨다. 잘못한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실 때는 망태할아버지처럼 무섭고 두렵지만, 실은 '할아버지' 이상의 푸근하고 친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다. 형주쌤 사랑해염♥

김민희 선생님 ≒ 저공

'조삼모사' 속 저공은 김민희 선생님과 유사하다. 우리를 굉장한 학업의 양으로 굴리시다가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면 선생님께서는 간식을 제공하시거나 관심을 표현하시며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다.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또한 저공이 원숭이를 좋아하여 키운다고 했는데 민희쌤도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Plus one 도리(니모 아빠 친구)
큰 눈과 발랄함이 싱크로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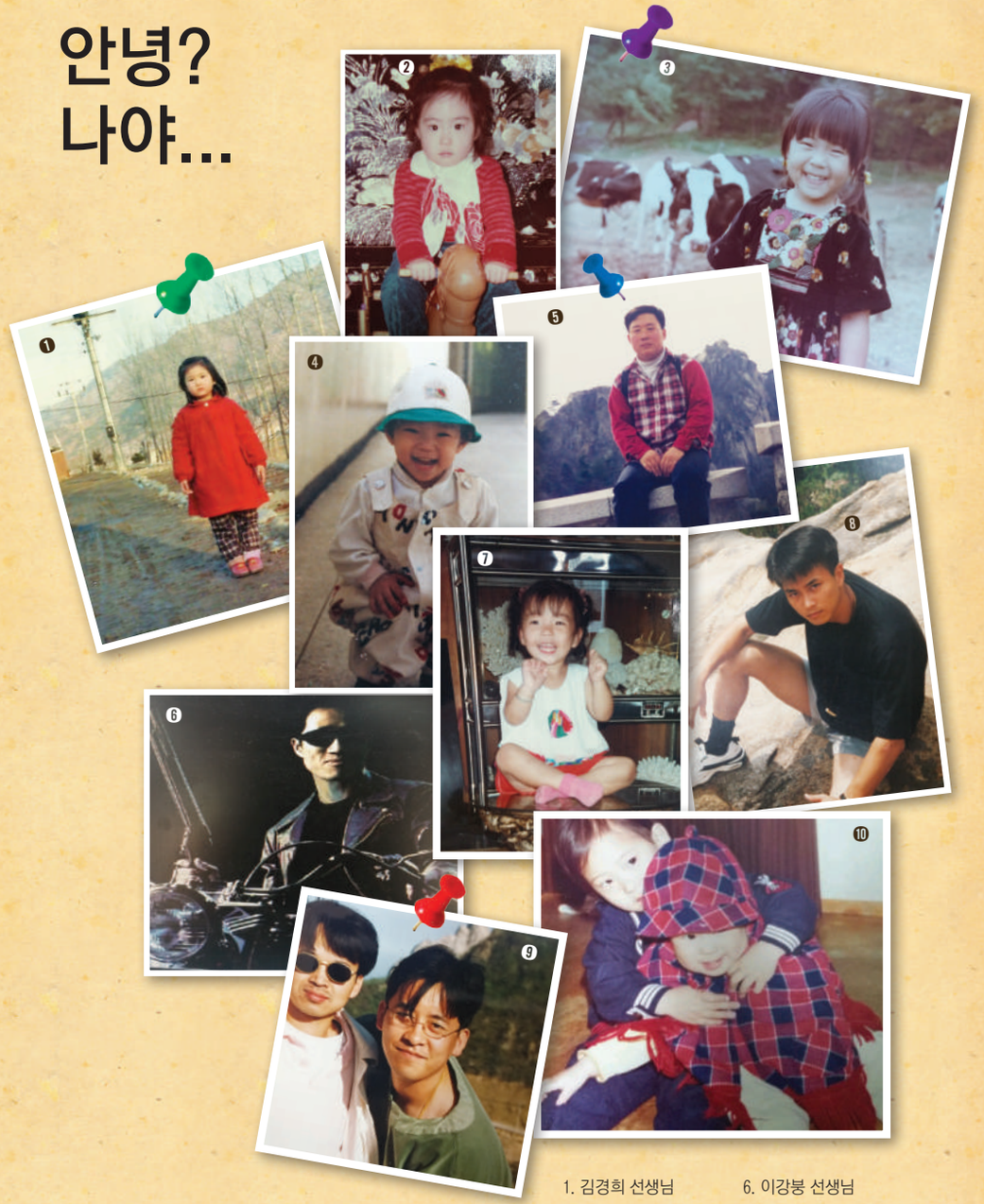
신미영 선생님 ≒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미모와 리더십을 가진 과거 이집트 여성 지도자의 상징이며, 특히 선생님의 상징인 '칼단발머리'의 외모가 단연 닮은꼴이다. '벌점 최고반'이었던 7반을 '상점 최고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스승님으로서 지도력과 미모, 그리고 뭐든지 많이, 잘 드시는 복스러움까지 완벽히 갖추고 계신다♡

황혜경 선생님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우리 반이 생각한 가장 멋있는 커리어 우먼인 힐러리를 황혜경 선생님과 닮은꼴로 선정했다. 황혜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봤다면 누구나 선생님을 힐러리처럼 멋있는 여성이라 생각할 것이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남편을 이끌어 대통령으로 만드는 모습이 마치 선생님께서 부족한 우리 반을 이끄시는 모습과 비슷하다.

안녕? 나야...



1. 김경희 선생님
2. 나유영 선생님
3. 김민희 선생님
4. 이다예 선생님
5. 류대곤 선생님
6. 이강봉 선생님
7. 전유림 선생님
8. 김경훈 선생님
9. 정주원 선생님
10. 김지연 선생님

해피 바이러스,
김일형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김일형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015년 초,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처음 부임하시고 일 년 동안 지내신 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교장 선생님의 목표 등은 무엇인지 여러 질문을 담고 교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해피 바이러스'라는 별명처럼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셨고,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해주셨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할 미래의 인천하늘고등학교가 기대되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이전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중학교에서 8년을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서 떠나야 했는데, 그런 즈음에 하늘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초빙하는 공고가 있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지.

일 년 동안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오랫동안 보아오다가, 하늘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다는 것이었어. 착하고, 때묻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가 학생들을 품격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학교가 되었으면 해. 그래서 품격(Character), 헌신(Commitment), 실력(Competence)을 두루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3C 교육을 완성하고 싶어.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영어로 표현하면 〈Less of Me, More of Us〉인 것 같아. 자신이 좋은 교육을 받은 만큼 남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에 토대를 만들어주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

교장 선생님의 별명, '해 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선 이 별칭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번 해 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도전해봐라,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젊으니까 한 번 도전해봐!'라는 의미지. 두 번째 의미는 '해를 봐라!'는 의미야. 해는 만물의 에너지의 기원인 것처럼 교장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늘 긍정적이면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지. 마지막으로는 '해피 바이러스'를 의미해. 교장 선생님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는, 행복을 전해주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의미를 담고 있어.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땐 노는' 그런 교풍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선이 굵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품격 있는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품격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손님들께 인사 잘 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 이런 것들이야.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앞으로의 질문들은 사전에 미리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진돗개, '사랑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사랑이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사랑이의 엄마는 혈통 있는 집안의 진돗개야. 원래 사랑이는 다른 지인에게 가기로 되어 있던 강아지인데, 그분에게 사정이 생겨서 교장 선생님이 대신 맡아서 키우게 되었단다. 하지만 주택단지에서 사랑이를 키우다보니, 사랑이가 새벽마다 짖어서 민원이 발생했었지. 그래서 사랑이를 마당이 아닌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사랑이가 진돗개이다 보니까 불편해했지. 그러던 중에 교장 선생님이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오게 되어서, 생활관 관장선생님과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께 의견을 물어보니 학교에서 키우는 것도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학교로 데려오게 되었지.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보면 흐뭇해.

사랑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이름은 가족회의에서 지었어. 정도 많고 성격이 온순해서 '사랑이'라고 지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전체 조회 시간에 말씀해주시는 영어 명언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주로 외부의 책을 통해서 인용한 문장들이지.

학생들에게 '리더십'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신다면요?

교장 선생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 이 책을 통해 동서양의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학교에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전 점검도 직접 하고 그러지. 집에 가면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가지.

우리 학교의 교훈이 '꿈 그리고 열정'인데요, 교장 선생님의 '꿈 그리고 열정'은 무엇인가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성적 면에서만 우수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3C 면에서 모두 우수한 학교가 되길 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국제 코치 자격증을 금년도 10월 달에 땄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접했던 노하우를 학교를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Q&A TALK TO YOU

PART. 1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교사 설문지의 질문은 하늘나래에서 회의를 거쳐 선별했습니다.
이하 선생님들의 존칭은 생략합니다.

1. 선생님의 학창 시절,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의 테마곡은 무엇인가요?

유재하 〈지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봄여름가을겨울 〈어떤 이의 꿈〉 (정주원)
한규철 〈밀양머슴아리랑〉 (이강봉)
조용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잊기로 했네〉, 〈고추잠자리〉, 〈여와 남〉 등 (이영종)
듀스 〈나를 돌아봐〉, Cranberries 1집, 2집 전곡, Mariah Carey 3집, 4집 전곡 (김경희)
듀스 〈나를 돌아봐〉, 미스터 투 〈하얀 겨울〉 (천도현)
이승환 〈루머〉, 〈다만〉, 김동률의 모든 앨범 (이지혜)
전람회 〈이방인〉 (최정우)
H.O.T 〈캔디〉 강타 오빠, 토니 오빠 사랑해요♡ (김민희)
잉위 맘스틴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기타 솔로곡. 강추 ㅎㅎ (김민경)
터보 〈회상〉, N.EX.T 〈인형의 기사〉, 신성우 〈서시〉 (김성훈)
015B 〈4210301〉,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수필과 자동차〉, 〈우리 이렇게 스쳐 보내면〉 등등 (서연희)
이승환, 패닉, 전람회 노래들 (김연정)
N.EX.T 〈here I stand for you〉 (이홍주)
Chuck Mangione 〈Feel so good〉 (나유영)
빅뱅 〈거짓말〉, 동방신기 〈라이징선〉 (송남영)
학창시절에 god의 광팬이었어서 god 노래는 다 좋아했다. (이다예)
신해철의 모든 노래들 (이지현)
015B 〈텅빈 거리에서〉 보컬 윤종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성과 당시로선 신선했던 파이프오르간 소리가 멋들어지게 어우러졌던 로맨틱 발라드! (김경훈)
성시경 〈내게 오는 길〉 (김승호)
터보 〈트위스트 킹〉 (ㅋㅋ) (김민연)
비발디 〈사계〉 (이중언)
이지훈 〈왜 하늘은〉,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노혜정)
푸른하늘 〈눈물 나는 날에는〉, 015B 〈텅빈 거리에서〉, 이승환 〈내게〉 (최상규)

2. 선생님의 학창 시절, 이거 없인 나는 못산다.... 했던!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나 간식 있나요?

떡볶이(김지연, 전유림, 김경훈)
핑클빵 (최정우)
맥도날드. 압구정의 랜드마크였던 맥도날드가 바로 우리 학교 애들의 놀이터였다 (김민희)
부대찌개. 책상 두 개로 시작한 집이 지금은 가게가 두 개가 된 용산 일미집 (정주원)
홈런볼(방 한 가득 쌓아놓고 질릴 때까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음. 나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봤는데 다섯 개 먹고 포기) (천도현)
캔커피. 레쓰비 하나를 아침마다 사들고 등교했음. 지금은 블랙 밖에 마시지 않지만 (이지혜)
매일 저녁 먹었던 짜장범벅과 새우탕(ㅋㅋㅋ) 여학생들아 조심하시오. (송남영)
학교 앞 가게에서 팔던 떡볶이랑 오징어 튀김. 그리고 몽쉘. 매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달려가서 먹었음(ㅋㅋ) (이다예)
학교 앞 1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당면과 계란 한 개가 들어있는) (이지현)
당연 치킨이겠지요. (김승호)
즉석 떡볶이. 친구들과 같이 먹던 즉석 떡볶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중에서도 최고는 마지막에 먹던 볶음밥! (김연정)
없음. 다 잘 먹었음. (이홍주)
김치 볶음(들기름 한 방울!) (이강봉)
학교 앞 분식집에서 도시락과 함께 먹었던 라면 (이영종)
믹스커피 (김경희)
순대곱창볶음, 야자 끝나고 멸치국수, 쿠앤크 아이스크림 한 번에 11개씩은 먹었음(300원이었는데 집 앞 슈퍼에선 3000원어치 사면 11개를 주었음) (나유영)
페레로 로쉐. 하루에 한 박스씩 꼬박꼬박 (ㅎㅎ) (김민경)
콜라 (김민연)
순대 내장들 + 떡볶이 양념 (이중언)
학교 앞 순대볶음, 삼각김밥 (노혜정)
빵은 에델바, 음료는 피크닉. (최상규)
라면, 떡볶이 (김성훈)
매일 하교길에 먹었던 순대꼬치와 떡꼬치, 마늘떡볶이, 붕어빵, 오뎅 등등 분식류 (서연희)

3. 선생님은 학창 시절, 좋아했던 이성친구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동성 친구 같았던 오래된 이성 친구. 성인이 되어가니 여자로 보임. 그래서... 고백. 확인!
재수...이별... (천도현)
있었죠. 수능시험 볼 때까지 마음을 숨기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었지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 여자애 생일 선물로 내 친구들 셋이 모여 연극을 하고 노래도 뮤지컬처럼 넣고 해서 녹음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오그라들어요. 게다가 같이 참여했던 친구 중 한 녀석이 이 테이프를 본인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유출해서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ㅠㅠ (김경훈)
7년 동안 짝사랑 했던 교회 동생. 넘사벽인줄 알고 말도 못 했었는데 다른 친구에게 마음을 전달받음. (정주원)
〈응팔〉의 정환(류준열)처럼...(ㅋㅋ) (이강붕)
물론 있었지요^^ 중고등학교 6년간 줄곧 편지만 썼음 ㅎㅎㅎ (이영종)
같은 반 남자애 혼자 좋아함. 소심하게 가슴앓이. 집도 근처라 독서실서 공부 안 하고 그 친구 집 서성임. 학교 성적 폭망. 그땐 가슴 후벼 파는 듯 아팠는데 시간 지나니, 저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닮은 애 좋아했다고 막 웃게 됨. (김경희)
항상 나를 보며 잘 웃고 나를 생각해 주던 그 친구^^ 당연 적극적으로 다가갔지요. (김승호)
있었지만, 부끄럼이 많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빠빠이~ (김민경)
있었음. 그 친구가 8층에 살았는데, 8층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에 '초' 로 하트 만들어서 그 안에 앉아 있었음(ㅋㅋ)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서웠을 것 같음) (김민연)
구릿빛 피부, 선한 미소, 넓은 어깨를 가진 친구. 힐끔힐끔 쳐다보며 주위를 맴돈다. (노혜정)
있었는데, 속으로만 좋아하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던 중에 그 남자 애가 내 친구에게 쪽지를 전해달라던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 비둘기 같이 메신저 역할만 했음(ㅜㅜ) 그런데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애들이 그 남자애가 나한테 쪽지를 주는 줄 알고, 그 남자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엉뚱한 소문이 났던 에피소드가 있었음. (서연희)
이성 친구가 무엇인가요? (이홍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던 1년 선배, 너무 쑥스러워서 그 선배 빼고 그의 친구들과는 다 친했던 것 같다;; (나유영)
힙합과 락을 좋아하던 자유로운 영혼의 같은 반 남학생과 서로 좋아함. 교복 재킷 속에 인형이나 초콜릿 넣어와서는 애들 앞에서 짠!하고 줄 때.. 하아... 기분 쩔었는데...아련하다(ㅠㅠ) (김민희)
새로 부임하신 체육 선생님을 좋아했음. 점심시간마다 같이 배드민턴을 치며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해 같은 학교 국어선생님과 결혼을ㅠㅠ(그것도 속도위반. 크흑) (이지혜)
고등학생 때 3년간 짝사랑하던 남학생 김상인. 너무 좋아해서 안 하던 중국어도 열심히 듣고 필기를 했어. 왜냐면 걔가 늘 중국어 필기를 다른 애들한테 빌렸거든. 하루는 상인이가 나에게 필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책이 기숙사에 없는 거야. 세콤이 잠긴 학교에 있었던 거지. 난 경비아저씨에게 울며불며 매달려서 결국 필기를 빌려주었고 그 아이와 친해졌어. 그러나 곧 깨달았지. 그 아이는 나와 가장 친했던 내 친구, 명혜를 좋아했고 그래서 나와 친해진 것이라는 걸... 군대생활 잘 하고 있니? 상인아? (송남영)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던 한 학년 선배 오빠를 짝사랑했었음.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식사시간에 다른 학년 건물을 괜히 돌아다님. (이다예)
중고딩 때는 물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성 친구는 사귈 생각조차 안 해봄. (이지현)
있었음! 축구를 잘했던 놈 (전유림)
초등학교(김명건, 전기게임하면서 손 잡았음) / 중학교 (임희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낸...) / 고등학교(여자를 멀리하고 공부에 장난 아니게 매진한 결과 재수) (최상규)
이거... 왜 이러시나요... (김성훈)

4.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가장 예쁘고 기억에 남나요?

수업시간만큼은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이지현)
부족해도 인간미 있는 학생, 예의 바른 학생 (김경훈)
김승호 선생님의 글이 어디 있나 찾아서 읽어보고 웃고 있을 바로 여러분이요. (김승호)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같이 호흡할 줄 아는 학생, 교과 내용이든 개인적 고민이든 의논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언제나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 (김민경)
별 거 아닌데 웃어주고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 (최정우)
성적보다는 성품이 좋은 학생 (김지연)
항상 모든 일에 성실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예의 바른 학생 (정주원)
붕샘이 제일 잘생겼어요...(한 명도 없었다... 슬프다...) (이강붕)
우직하고 정직한 학생 (노혜정)
우리 하늘고 4기들♥♥ 내가 너흴 어떻게 잊니 (전유림)
당당하지만 겸손하면서도 센스 있고, 잘 웃는 학생 (최상규)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 학생들 (김성훈)
모든 학생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어 모두 예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홍주)
수업시간에 특히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나유영)
교사로서의 나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믿어주고 따르는 학생 (천도현)
내 말을 잘 듣는 학생 (ㅋㅋ) 나를 따르라~!! (이지혜)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학생 (송남영)
웃으면서 인사하는 학생들. 선생님 말을 잘 기억해주는 학생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학생들. (이다예)
예의가 바르고 긍정적인 학생 (서연희)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하는 국사 수업에 그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이영종)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른 친구. 항상 표정 밝은 친구 (김경희)
말이 잘 통하고 친구 같은?ㅋ (김민연)
Case by case (이중언)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며 수업시간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 (김연정)
순수하게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학생들. 그 대신 나만 바라봐야 함(★이게 포인트★ 진지) (김민희)

5.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3M : Money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춤
Meaning 자신이 평생 직업으로 삼는 일이 돈벌이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져야 함
Mission 목숨을 걸고서도 지키고자 하는 신적 소명감 (이영종)
책임감, 사랑, 결단력 (김경희)
근면, 성실, 최선 (정주원)
친구, 경제력, 건강 (천도현)
예의, 시간관념, 약속 (이지혜)
도전→ (실패×10)→ 가족 (이강붕)
가족, 건강, 여가 (최정우)
첫째. 나와 나의 삶을 사랑, 둘째. 타인과 타인의 삶도 똑같이 사랑, 셋째. 범사에 감사 (김경훈)
사랑, 신뢰, 능력 (김민경)
자존감, 감사함, 배우자?ㅋ (김민연)
가족, 사람, 목적 (이중언)
가족, 책임감, 배려 (노혜정)
음악(음악 없으면 운전 못함), 김민희, 최상규, 최승주, 하정선 등 나의 human resource 및 가족, 쇼핑(송남영)
믿음(사람과 사람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므로), 능력(험한 세상 벌어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깐), 사랑하는 사람들(힘들고 지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힘의 원천!) (이다예)
가족, 시간, 건강 (이지현)
가족, 친구, 나만의 꿈 (김연정)
사랑, 사랑, 사랑 (이홍주)
가족, 건강, 소명 (김민희)
머리, 가슴, 배 (나유영)
정직함, 인생의 목표, 나의 사람들 (전유림)
믿음, 소망, 사랑 (진지한 대답임) (최상규)
뱉은 말은 지키자. 은혜는 갚아라. 내가 생각하듯이 정녕 그러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김성훈)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하는 말,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는 가치관 (서연희)

6.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후회 없는 선택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대학교 때 야학을 했던 것 (노혜정)
한문교육과 진학 (최상규)
교회나간 것 (김성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20대를 보낸 것. 여행도 많이 다니고, 보고 싶은 공연도 많이 보고 했던 경험들이 추억이 되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니까^^ (김연정)
IMF가 터진 후 자동차 공학과에서 교사로 진로를 바꾼 것. 그리고 경기외고 퇴직 ^^ (정주원)
가장 잘한 것은 결혼 (이강붕, 이중언, 이홍주, 김민연)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 역사교육과에 진학한 일 (이영종)
고2 때 심기일전하여 공부 시작한 거 (김경희)
하늘고를 선택한 것 (천도현)
2011년 11월 겨울, 손을 호호 불며 인천하늘고 교사 채용시험을 보러 온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고 선생님이 된 것. 하늘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송남영)
꽃반지를 결성한 것 (이지혜)
가장 잘한 일은 아니겠지만 나름 큰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는 일은 라섹한 것. 안경 끼던 시절보다 100배는 편하다. (이다예)
딸아이를 낳은 것 (최정우)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 (이지현, 전유림, 나유영, 김민희)
그 분을 내 주로 영접한 것~^^ (김경훈)
전 두 가지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 같아요~ 첫 번째는 세계일주를 다녀온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고등학교에 온 선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늦잠 자고 있을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한 통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지요.) (김승호)

7.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일탈은 언제였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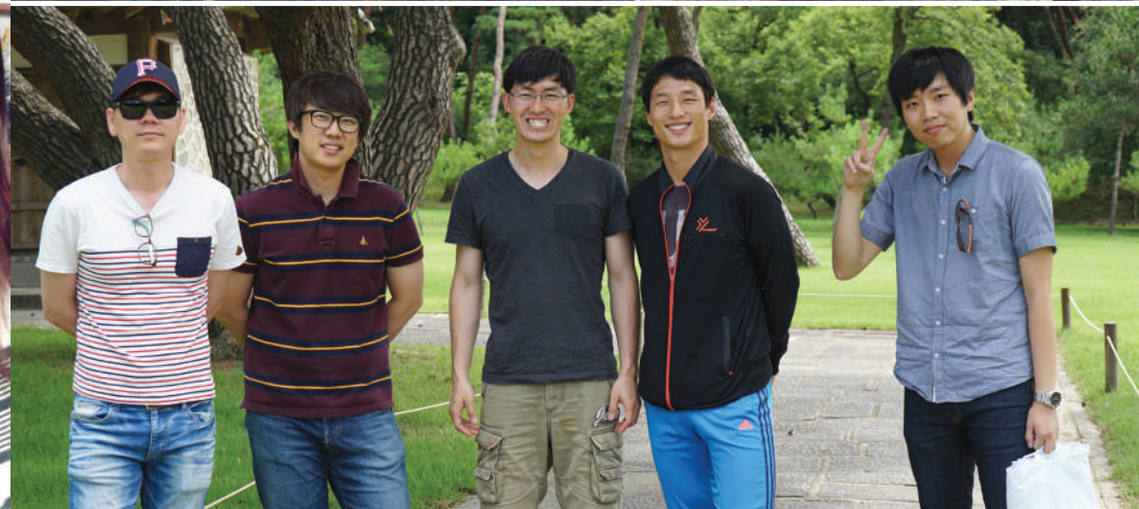
몰래한 사랑(김지애, 1990) (가사)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이강붕)
11살 때 홧김에 내복 입고 가출했다가 한겨울에 추워서 30분 만에 귀가. 아무도 내가 가출한 사실을 몰랐음. (김경훈)
ㅎㅎㅎ 진행 중이라... (이영종)
학교 째고 놀러감 (김경희)
와이프 몰래 10년 전 바이크를 타고 1박 2일 여행 (정주원)
하늘고를 선택한 것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짐. 성공적 일탈) (천도현)
중학교 3학년 때 근처 노는 학생들과 무척 친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따라 한 잔 했던 기억이(ㅋㅋ) (이지혜)
일탈을 하지 않았다. 모범생의 전형. 모델! (송남영)
고등학교 때 했던 가장 큰 일탈은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야자 빼서 친구랑 놀러간 것(이다예)
중3 때 학생회 친구, 후배들과 파전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먹은 일 (이지현)
내 인생에서 일탈은 없었네요. 목표가 확실하면 일탈은 의미 없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꿈꾸며 일탈을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김성훈)
여행 처음으로 혼자 갔을 때.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

은 혼자 갔었음. (서연희)
결혼한 것 (이홍주)
인생 자체가 일탈임. (이중언)
야자 빼고 영화 시사회 보러 간 것 (노혜정)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해 봄. (전유림)
대학 4년 내내가 일탈이었음. (최상규)
대학교 때 엄마, 아빠 몰래 해외여행(아빠가 실종신고를 하셨음) (김민연)

8. 하늘고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태일 평전〉 한 장 한 장이 충격이자 감동으로 기억되는 책. 전태일의 삶도, 조영래 변호사의 인생도. (김민희)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난 대학생 때 읽었지만 하늘고 학생들이 지금 읽어도 재밌겠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다. (나유영)
〈공포의 외인구단〉(ㅋㅋ) (엄지가 넘 좋으니까요) (이강붕)
〈총,균,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환경에 의한 필연이었음을 깊이 이해시켜줄 수 있고, 인문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책. (이지현)
〈도쿄타워〉 실컷 울고 싶을 때 읽어 보세요~ (김승호)
〈시골 의사의 행복한 동행〉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함. (김경희)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안도현 시집) (천도현)
〈파레아나의 편지〉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최정우)
〈성경〉 이유는 진리탐구! 궁금하지 않니, 내가 왜 성경을 추천하는지? 성경 중 사사기나 사무엘상 · 하, 잠언, 전도서 등을 읽으면 재미있을 겁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상 · 하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으며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와 진리에 관한 글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과 몇 명의 왕이 저술한 내용입니다. (김성훈)
〈판단력 비판〉 인생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어요. (김민경)
소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추천하기가 어려움. 3기 학생들은 속칭 '중언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다는 후문만. (이중언)
〈동의보감〉 내 인생의 책. 나를 생명과학의 세계로 이끌었으며, 교사가 되고 싶게 만든 책. (이지혜)
〈불안〉 알랭 드 보통의 책.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읽으면 좋다. (노혜정)
〈수학의 바이블〉 너희를 수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책 (정주원)
〈미움 받을 용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는 걸 알게 함. (전유림)
〈거꾸로 읽는 세계사〉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받던 나에게 책 한 장 한 장이 충격이었음. (최상규)

〈이공대생을 위한 수학 특강〉 천문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썼지만, 수학적으로 물리학을 잘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는 천문학까지 매끄럽게 연결되는 구조여서 감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아주 주옥같아요.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연희)
〈철학, 삶을 만나다〉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에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읽으면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힘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정)
〈앨저넌에게 꽃을〉 과학이 가져야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 줌. 과학 관련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임. (이홍주)
〈순전한 기독교〉 기독 변증 서적의 고전! 기독교 이념의 정수! 신이 존재와 기독교의 진실성을 명쾌한 논리로 풀어낸 책. 보통 '성경이 진리다'는 전제가 은연중에 깔려 있는 여타의 서적과는 다르게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법칙, 옳고 그름의 문제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사실로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비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영어원서로 읽기를 더욱 추천합니다. (김경훈)



Q&A TALK TO YOU

PART. 2 인생극장! 선생님의 선택은?

교사 설문지의 질문은 하늘나래에서 회의를 거쳐 선별했습니다.
이하 선생님들의 존칭은 생략합니다.

1.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생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이 좋아한다고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맘을 없앨 수 없으니, 우정보단... 사랑?(ㅋㅋ) (김민연)
어허! 내 남자다 (김민희)
싸워서 이긴다~! (이지혜)
사랑을 쟁취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면 이해해주리라 믿어요. (김승호)
내꺼임 (김민경)
좀 두고 본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이며 배우자감이라는 결단이 서면 움직인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와 친구 둘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ㅋㅋ) (김경희)
둘 다 버린다. 어디를 선택하든 평생 후회로 남기 때문. (천도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내꺼지. (송남영)
친구를 매정하게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함. (나쁜 놈. 내 취향도 모르고...) (정주원)
우정을 지키고 싶으면 사랑을 포기할 것이고, 사랑을 지키고 싶으면 우정을 포기해야할 텐데... 이건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다예)
친구한테 양보한다. 왜냐하면 '(그냥)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는 않음 (ㅎㅎ) (이영종)
그 사람이 선택할 몫이지 나나 친구나 선택의 여지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안한다. (이지현)
여자 분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양보를 해도 그 여자 분이 나를 더 좋아한다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경훈)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가 좋아한다는 것이 내 애인인데 좋아한다는 건지, 모두 사귀고 있지는 않고 각자 좋아한다는 건지 상황에 따라 다를 듯. 아마 사귀고 있는데 좋아한다면 지킬 거고, 각자 좋아한다면 뭐 내가 좋아할 사람이 저 사람 하나 밖에 없겠나, 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접을 듯. (이중언)
좋아한다고 솔직히 얘기한다. (노혜정)
잔인해. ㅠㅠㅠ 남자가 선택할 일. (전유림)

친구는 또 사귈 수 있지 않은가 (최상규)
선택은 이성이. 지든 이기든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김성훈)
그의 선택에 맡겨야겠지. 내 친구인지 나인지 ㅎㅎ 아놔~ 반대의 경우만 겪어봤는데;; 둘 다 별로였고 제3자를 택했지 매번. (나유영)
〈응팔〉의 선우(고경표)처럼... (이강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상호간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은 짝사랑이고, 친구는 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겠죠? 그런데 나도 친구도 둘 다 짝사랑이라면 그냥 둘 다 좋아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 잘은 모르겠어요. (서연희)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샘 지난주에 결혼했다... (이홍주)

2.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건물을 사서 노후를 준비한다. (노혜정)
장학재단 설립 (전유림)
이상적인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이영종, 나유영)
가족과 시간 보내며 여행, 명사 강연 듣기, 책읽기, 자녀교육 등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복지 재단 설립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고 싶다. (김경희)
최대한 악해진다. 돈 많아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돈으로 괴롭히며 즐거워한다. (천도현)
인천하늘고 인수 (송남영)
교사 때려치우고 강사로 전환해서 낮에 학교에 나와서 수업과 상담만 하고 평생을 살고 싶어요. (정주원, 김민희)
세계 여행을 가겠음. (이지혜, 이지현, 서연희, 김연정)
집부터 사고 싶다. (최정우)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자, 매일 매일 생각하는 희망사항... (이강붕)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한 후, 남는 돈은 열심히 소비하며 살아야지.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도울 사람도 돕고 하면서 일은 취미로 하고 싶다. (이다예)
일단, 은행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쓴다. 학교는 취미로 다님 (ㅋㅋ) (김민연)
맘 편히 하고 싶은 공부나 하며 인생을 즐길 듯 (이중언)
무엇이든 한다. (이홍주)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어요. 또 개인적인 욕심은 캠핑카 끌고 세계 여행을 실컷 다니고 싶네요. (김경훈)
세계 정복!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승호)
기부 (김민경)
인재 육성(국내, 해외에 모두) 유, 초, 중, 고등 교육기관을 모두 최상의 시설과 교사, 커리큘럼으로 무상교육 실시. (김성훈)

3. 학창 시절 앙숙이었던 친구를 직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차분히 관찰 후 소심한 복수(?)를 생각 중 (최정우)
그런 친구도 없었지만, 있었다 해도 공과 사!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지현)
모른 척 (김민연)
다시 잘 지내도록 해봐야죠. (김민경)
내가 더 잘나갈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송남영)
좋은 게 좋은 거다. 절친처럼 가깝게 지내지만 못하겠지, 인사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할 것 같다. (김민희)
학창 시절과 사회는 다르니까 다시 관계를 정립을 시도하고! 여전히 앙숙이 될 수밖에 없다면... 세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나,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는 거지. (이중언)
그저 웃지요^^ (김성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넓은 포용의 학문인 물리) (이홍주)
끝까지 미운 사람은 없던데...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볼 거야. (나유영)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 관심이 없음. (전유림)
학창 시절 앙숙이었어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서연희)
배부른 소리하네... 취직만 시켜도... 제발... (이강붕)
공적으로 경쟁할 일이 있으면 경쟁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면서 사적인 관계도 부드럽게 해결해 갈 것이다. (이영종)
적당한 거리 두고 관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유지. (김경희)
직장을 옮긴다. 옮길 수 없다면... 그냥 열심히 일한다. (천도현)
싸워서 이긴다~!! (이지혜)
학창시절 앙숙은 없었음. 그래도 있다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했으면 친하게 지내고, 옛날과 똑같다고 하면 상사이면 직장 그만두고, 부하직원이면 그만두게 하고, 동료이면 빨리 진급해서 그만두게 함. (정주원)
하아... 힘들겠지만 잘 지내보려 노력한다. (노혜정)
학창 시절은 철없고 미성숙했던 때이니 잠시 묻어두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했던 친구인 것처럼 반갑게 인사할 것 같다.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이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다예)
꼭 제가 상사로 만나길 바랍니다 (ㅎㅎ) 밤마다 노래방 끌고 다니며 노래 고문! 식사는 항상 떡볶이를 사주며 떡볶이 고문! (ㅎㅎ) (김경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젠 직장동료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별일은 아니었더라구요~ 그 땐 정말 심각했지만... ^^ (김연정)

4. 선생님의 성별이 지금과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게 여자 홀리고 다녔을 듯 (김민희)
여자가 되는 거니까 류준열을 좋아하고 있겠지... (이강붕)
지금보단 잘나갔을 것 같은데 (ㅎㅎ) (최정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 (이지현)
음... 아마도 음악 선생님? ^^ (김경훈)
견적이 엄청나지 않았을까 (ㅎㅎ) (이영종)
참 좋았을 것 같다. (노혜정)
남자라면 행동의 제약이 덜할 것 같아서 좋았을 것 같아요. (서연희)
기가 막힌 외모와 말빨로 장난 아니게 그렇게...(ㅋㅋ) (이홍주)
일단 엄청 잘생겼을 테고, 더 겁 없이 원 없이 살았을 듯 (나유영)
뭐...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듯... (ㅠㅠ) 슬프다... (이지혜)
넌 내가 여자였다면 살고 싶겠냐 (정주원)
이 키에 성별까지 남자였다면 지금보다 더 놀림을 받았을 것 같다. (이다예)
엄청 외모에 관심이 많고 까탈스럽고 도도한... (천도현)
대학 졸업 후 지금 군복무 중 (전유림)
나쁘진 않음 (ㅋㅋ) (김민연)
지금도 장난 아니지만 그랬다면 더 장난 아니었을 듯 (최상규)
일장일단이 있을 듯 (김경희)
완전 수다쟁이에 쇼핑광이었을 듯 (김성훈)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ㅋㅋ) (김민경)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내 것이었을 듯 (송남영)
팜므파탈~ Just One 10 MINUTES~ (김승호)

5. 타임머신이 있다면 인생에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 (최상규)
대학시절. 현재에 불만은 없지만, 더 많이 체험하고 생각하며 인생을 좀 더 거시적이고 능동적으로 설계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김경희)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와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 (최정우)
가장 즐거웠던 시절, 중3, 대학교 1학년 (이지현)
2014년 7월. 그 날로 돌아가 너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송남영)
지금이 좋다. (노혜정)
내 인생에 후회는 없지만 가능한 일이라면 인생의 황금기였던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좀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하고 싶다. (김민희)

4살 때로. 조카가 너무 예뻐서. 나도 4살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 (나유영)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대학생 때로.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들이 많음. (전유림)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들과의 추억이... 보고싶다, 친구들아~ (이홍주)
전제에 따라 다르지. 지금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 그냥 그 시절로만 돌아가는 건지. 그냥 그 시절로만 돌아간다면 뭐하러 돌아가나. 어차피 살아온 거 그대로 겪으며 살게 될 텐데.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그 시절만의 느낌을 잃어버릴 텐데. 굳이 돌아가야 하나 싶네. 뭐 굳이 가야만 한다면 대학 1학년으로 가겠소. (이중언)
결혼식 전날. 다른 의도 없음... 결혼식 촬영을 못한 게 후회가 돼서 촬영하려고~(ㅋㅋ) (천도현)
고3 (다시 수능 보면 만점 자신 있당당당) (이강붕)
대학교 시절. 그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생이 된 거 하나로만 신나게 지났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계획을 잘 짜서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정)
생각나는 순간은 많지만 나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영종)
대학생 시절. 꽃반지를 처음 결성하였고, 그들과 방학마다 여행을 다니고 웃고 떠들고 맘껏 연애하고 공부했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으므로 (이지혜)
대학교 때. 원했던 만큼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아서. 지금 돌아간다면 정말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놀고 싶다.(ㅋㅋ) (이다예)
미국 유학시절로 가고 싶어요. 주말마다 세탁소에서 알바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땐 집안형편도 넉넉했는데 독립적이고 싶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겠다며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그 시간 그 곳에서만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돈보다 가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워요. (김경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오늘이고, 더 행복할 날은 내일입니다. ^^ (김승호)
중학교 때.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김민경)
2010년 5월 1일로. 경기외고 4층 계단 앞에서 지나친 제자에게 “며칠 뒤 상담하자.”라고 하지 말고 바로 상담했다면 지금은 저 세상에 있지 않지 않았을까... (정주원)

HANEUL ACADEMY

목숨 대신
손을 잡아요

늘 영원하길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한 해를 살아온 하늘인,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더 멋진 내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자, 지금은 날개를 펼치기 위한 시간!

1학년 1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김기정 시험기간 때 너무 졸려서 자유시간 때 면학실 바닥에 신문지 깔고 덮어서 자봄.
2. 김수현 심심해서 벽을 ○○○
3. 김승일 아이언맨을 만들기 위해 물리 I 을 배움
4. 김일환 그림 하나 그리려고 6개월 도모함 (하루 평균 30분)
5. 김찬혁 졸려서 신문지 깔고 자봄 (할수록 중독성 생김ㅋㅋ)
6. 문수현 생활관에서 게임하다가 밤을 새움
7. 박준현 발닦개 로봇 개발
8. 박 진 남자랑 잠
9. 서정훈 컵라면 부숴먹기
10. 서준호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영어 지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분석함.
11. 신병수 댄싱머신이 되기 위해 생활관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춤
12. 안재관 헐크가 되기 위해 매일 밤 김승일과 싸움
13. 안해빈 24시간 연속 취침
14. 오형석 피카츄를 잡기 위해 몬스터 볼을 만듦.
15. 윤민재 처음으로 팬클럽이 생겼다. (근데 남자 반....)
16. 윤성현 인류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04번째 원소를 찾아냄.
17. 이동이 새로운 시대에 왼팔을 걸어두고 옴
18. 이민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함.
19. 이우진 아침 기상 송을 듣고 일어나 반수면 상태로 어딘가(?)를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놀람
20. 이채준 특수상대성 원리의 중요한 결론으로 질량에너지 등가원리관계식을 구함 $E=mc^2$
21. 이한세 복도를 걷던 중 가슴이 쿵쿵대서 심쿵사를 당해봄!
22. 이홍준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핵 안보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함
23. 임채환 새벽에 라면을 먹어봄
24. 주형진 처음으로 골키퍼 에이스 해봄
25. 진형건 처음으로 로션을 발라봤다.
26. 최재웅 나보다 더 이상한 놈을 만났다. (신병수인 건 안 비밀)
27. 최종인 4차원을 통해 체코로 날아가 할머니에 빙의 됨.

1학년 2반

한 달에 한 번 귀교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1. 공준혁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범죄를 보고 물들지 않기 위해 생활과 윤리 공부하기
2. 김남진 금식 수행과 K-1을 하고 싶다면 법과 정치 공부
3. 김도형 미II 데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하는 미적분II 공부
4. 김동성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간지 나는 삶을 갖고 싶으면 세계지리
5. 김상원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 군주론(마키아벨리)을 읽음
6. 김유찬 인간의 생식과 발생을 위해 필수적인 생명과학 I 인강 신청하기
7. 김종은 아이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하와 벡터 공부
8. 김준석 세계의 환경도시에 대해 알아보기
10. 박정도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읽고 양자역학에 대해 조사 및 논문 작성 준비하기
11. 박형규 우리가 외국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확률을 내기 위한 확률과 통계 공부
12. 배성준 외계인의 침공을 막기 위한 지구과학II 공부
13. 송영승 지구과학 I 공부도 필수지만 재미없는 개그를 재미있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연기력도 필수!
14. 신승언 외국어 영역 공부. 세계적으로 지구촌인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계 공통어를 배워야 함
15. 신준호 윤리와 사상의 학습을 위해 노자의 도덕성과 소크라테스의 4대 복음서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등을 읽기
16. 오성민 핵으로부터 지구평화를 지키기 위해 물리II를 선행했어야 했는데....
17. 윤형준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II 공부
18. 이관명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공부
19. 이진규 동아시아사 공부 단 역사학과를 위한 한국사 공부도!!
20. 이진섭 학교생활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생명과학II 인강을 시청한다.
21. 이현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세계사 공부
22. 정재훈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세계 문화를 주도해나가기 위해 사회 문화 공부
23. 조원형 언제 다가올지 모를 로봇의 공습에 대비해 물리 I 공부
24. 조형근 모두가 수 I 를 풀 때 가오를 부리고 싶다면 미적분 I 공부
25. 최검기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가 되기 싫다면 수 I 를 공부하자
26. 황두희 미래에 은행사기 대비를 위한 수II 공부
27. 심규성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기 전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한 검정 교과서 위주의 한국사 공부

1학년 3반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본래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비슷해진 점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김기웅 라면을 몰래 들고 오는 승일이와, 라면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준호와, 선생님이 오는지 완벽히 알아내는 동훈이의 능력을 배웠다. 109호♡
2. 김동규 1학기에 세헌이를 보고 2학기 우리방 애들의 많은 잠과 벌점을 받게 되었고, 주원이를 통해 공부충들의 열정을 보고 유찬이를 통해 감수성에 대해 배웠다.
3. 김민철A 입에 이상한 유행어를 달고 살게 되었다. 인정? 어, 인정
4. 김상민 아무리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는 111호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갑자기 그들처럼 잠이 많아졌다.
5. 김성재 노트북을 어떻게 하면 ○○ 잘 쓸 수 있는지 배웠고 자기 전에 영어로 프리토킹을 통해 영어 듣기 능력과 미국식 추임새가 늘었다. 116호 꿀잼!
6. 김세헌 1학기에는 신주원을 통해 신주원을 알았고, 동규를 통해 남자 냄새를 알았다. 2학기에는 정웅이의 개사 능력, 도윤이의 랩이 아닌 랩 능력, 황현을 통해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7. 김재형 1학기에는 하지 않던 기숙사 공부를 지우를 통해 배우고, 잠자리에 차츰 늦게 들기 시작하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8. 남건우 1학년 1학기 118호(승민,민겸,주철)에서 지내다보니 2학기인 지금 나는 타락해있다. 내 모습 돌려줘.
9. 신주원 유지훈의 매너의 기술, 이우진의 발 향기, 진규의 순정, 김세헌의 일본 애니 사랑, 동규의 1분 샤워
10. 유지훈 301호에서 지내면서 형규의 방귀 냄새를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배움
11. 윤재웅 최재웅의 중국인처럼 생활하기, 김승일의 아침 습관, 이관명의 민폐 끼치기 능력
12. 이동호 이태훈의 랩 하기, 송영승의 장난, 박형규의 말투, 그리고 장난을 당하지 않기 위한 눈치는 덤으로 얻었다.
13. 이병학 김수현이 30분 이상 샤워하는 거 보고 여유로움을 배움
14. 이용호 재미없는 방을 어떻게 재미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배웠고, 친구들의 장점을 닮아가서 좋다.
15. 이재희 한입충들로 인해 인내심이 +20이 되었다.
16. 이태구 유찬이를 보고 생활관과 전쟁하는 법을 배웠고, 동규를 보고 샤워의 중요성을 배우고, 승민이한테 잠을 배웠습니다.
17. 정준호 기상시간이 3만 배 빨라졌다...
18. 정지우 도솔의 발 냄새를 맡으며 코가 강화되었고 이규범의 꼼수에 강해졌으며, 김도윤의 더러움으로 나는 하늘고에 적응했다.
19. 진시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20. 최승민 어떻게 하면 음식물 냄새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지 터득하게 되었다.
21. 최철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하지도 않던 운동을 하게 되었다.
22. 함석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이불 매트만 빼내고 도망갈 수 있는 건지 차츰 알아간다.
23. 허원영 라면 하나로 4명의 아이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앎 (불쌍 ㅠ.ㅠ)
24. 홍장원 깔끔 청결의 아이콘이던 내가 더러워졌다
25. 황태련 더 이상 집에 있는 베개가 편하지 않다.
26. 황 현 노래 부르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1학년 4반

중학교 때와는 너~무 다른 하늘고등학교만의 특징을 하나만 꼽아본다면?

1. 곽민찬 하늘고는 처음 온 날 '신기하다', 한 달 뒤 '집에서 탈출했다', 석 달 뒤 '집이 그리워짐', 다섯 달 뒤 '향수병 수준' 결국 집 떠나 고생한다.
2. 권현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 중독인데 하늘고는 아니어서 스마트폰 할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
3. 김도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있지만, 중학교와는 달리 매우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다.
4. 김민겸 기숙학교여서 중학교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다.
5. 김민철B 집이 많이 그리워진다.
6. 김선혁 중학교 때는 효율적인 공부법 등을 생각하지 않고 공부한 반면, 하늘고등학교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된다.
7. 김유빈 잠을 자도 학교, 일어나도 학교, 밥을 먹어도 학교, 하교를 해도 학교, 주말에도 학교, 공휴일에도 학교~
8. 김주영 학교에 매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됨. 매점 ♥.♥
9. 노현우 아침 일찍 상쾌하게 운동을 한다는 것이 마냥 좋아보였던 내가 무척 한심해졌다.
10. 도 솔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
11. 박정웅 게임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게임이 그립지도 않다.
12. 박주성 학교 친구들을 24시간 365일 동안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
13. 부효석 집이 그리워집니다.
14. 서윤범 외모 수준이 상당히 높아짐
15. 이규범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16. 이민석 학교를 놀러 다니는 애들이 사라졌다.
17. 이주철 잘생긴 5기 주장이 있는 라크로스부의 존재
18. 이태훈 집. 에. 못. 감.
19. 이현우 공부를 다 열심히 해서 안 하면 뒤처진다ㅠㅠ
20. 전준범 천천히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실현하도록 해주는 학교!
21. 정원무 퇴화했던 머리가 다시 좋아지고 있음
22. 정희원A 중학교 땐 나만 공부했었는데 여기서는 나만 하는 게 아니다.
23. 탁경헌 여러 가지로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많았음. 자주 포착되는 아름다운 경치! 동아리 활동(+구성원)♥
24. 한동훈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
25. 홍성진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
26. 황정후 돈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매점에서 생각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쓰게 됨.

1학년 5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김규서 초딩처럼 살기
2. 김나예 친구랑 밤새 떠들기!
3. 김선영 부모님께 매일 전화 드리기
4. 김시현 수학 문제집 한 권 다~ 풀기
5. 김제아 단벌로 생활하기 ㅡㅡ;;
6. 김혜윤 이XX 선생님 어깨 터치하고 머리 기대기
7. 마지혜 교감쌤 앞에서 울기
8. 박서정 전화카드 사보기
9. 박예은 밥 먹으면서 공부해보기
10. 박이슬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일주일 동안 했던 것
12. 박현아 6시간 취침 :)
13. 박혜련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점 가기
14. 성세현 세탁기로 빨래하기
15. 손명진 중2병처럼 살기
16. 송나현 12시간 이하로 자기
17. 송혜연 옷장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18. 원유빈 기숙사 베란다에서 라면 먹기
19. 이륜경 라면이랑 밥을 한 끼에 먹기
20. 이성지 하루 종일 해리포터 시리즈 보기. 학교, 면학실, 기숙사에서…….
21. 이세령 화장실에서 몰래 공부하기
22. 이소희 논문쓰기, 서울대 교수님 강의 들어보기
23. 이죠이 경위서 써보기…….
24. 이하늘 기숙사 바꾸기 전날 룸메들이랑 화장실에서 영화보기!
25. 임소현 '모카빵' 쟁취를 위한 달리기
26. 정경빈 기숙사 베란다에서 라면 먹기
27. 최정화 기숙사에서 ○○ 먹고 한 번에 벌점 8점 받기
28. 최한빛 아파서 학교 조퇴하기
29. 하유진 기숙사에서 룸메랑 한 침대에서 자기
30. 한민서 공중전화로 전화하기 (전화카드의 존재 확인)
31. 홍현정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자기

1학년 6반

한 달에 한 번 귀교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1. 강지은 집 컴퓨터 페이스북 로그아웃하고 오기!
2. 구예림 알로에주스 많이 사와서 홈베에 쟁여놓기!!
3. 김규원 가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설거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사랑의 표현하기!
4. 김나현 귀교하는 당일에 낮잠 자기 ㅠㅠ치킨 꼭 먹고 들어오기
5. 김시영 밀린 것들 다 하고 오기
6. 김영민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고 친구랑 놀러가거나 혼자 놀았던 것
7. 김윤영 6반 친구들 생각 좀 많이 할 걸♥♥♥
8. 김태연 단어 외우고 문제집 풀기 등등 나가서 할 구체적 계획 다 세워 놓고 페북만 하고 드라마만 보고 잠만 잤을 때...ㅜㅜ
9. 김하은 가방 한가득 책 넣어서 가져간 거 다 하고 오기! 먹고 싶은 것 먹고 들어와서 후회하지 말기!!
10. 김호정 알차게 공부도 하고 알차게 놀고 와야지! 하고 나가서 알차게 잠만 자고 오는 것 ㅠㅠ
11. 박주영 민트라떼 많이 사와서 홈베에 쟁여놓기!!
12. 박주은 사우나 다녀오기
13. 백누리 숙제 가져가 놓고 1도 안 하고 오는 것! 가방만 무겁고 머리는 가벼움:-)
14. 성현아 검은콩 두유 많이 사와서 홈베에 쟁여놓기!!
15. 신혜인 신나게 놀기! 집 가기 전에 열심히 놀 계획 세워놓고, 막상 집 가면 아무것도 안 해서 엄청 후회 함
16. 심재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하고 오기. 안하고 오면 그 다음 귀교 날까지 후회ㅠ
17. 양은진 8시간 이상 자고 오기!! ZZZ
18. 오서린 하늘도시 잡초 뽑고 싶다. 너무 지저분하다.
19. 오유리 먹을 거 몰래 가져오기
21. 이미선 중학교 친구 등! 하늘고가 아닌 친구들과도 놀러가기!!
22. 이민영 영화 보기! 두 번 보기! 안 보고 오면 후회함 ㅠ.ㅠ
23. 이지현 뷔페가기!
24. 장유정 친구랑 노느라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못 있었을 때
25. 전아영 친구들이랑 약속 잡은 거 다 놀고 오기
26. 정예진 그동안 못한 밀린 과제물 하기. 부모님과 대화하기
27. 조율이 끓인 라면, 짜파게티 먹고 오기!! 꿀맛
28. 최예린 밀린 똥 다 싸고 뷔페 가서 배터지게 먹고 오기
29. 최정주 웹툰 밀린 거 보기
30. 현수연 24시간 자기
31. 황정민 놀러가야지 했는데 집에서만 있었을 때

1학년 7반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본래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비슷해진 점이 있다면?

1. 강세빈 행동을 좀 더 빠르게 하게 되고 걸음이 빨라짐
2. 강주희 영화 덕분에 1학기 내내 늦게 일어났으나 2학기 들어 유정이 덕분에 부지런한 아이가 됨 (늦잠은 주말만)
3. 강지영 집에서는 알람소리에도 잘 일어났지만 기숙사에서는 친구(혜인,소현,현정)들이 없으면 망한다. 사랑해 얘들아. 한이와 혜윤이의 신선한 개그, 성지는 댄싱머신!
4. 권윤정 1학기 때 337 친구들 덕분에 아침 6시 20분에 일어날 수 있었고 더 밝아질 수 있었고, 2학기 때의 337 친구들 덕분에 기숙사에서의 짧은 시간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5. 권재민 제아의 드림캐쳐 덕분에 요즘 잠을 잘 잔다.
6. 김명주 말 많은 401호 친구들 덕분에 나도 말이 많아지고 활발해졌다. 또 은지 덕분에 아침에 빨리 나와 아침 자습시간이 늘어났다.
7. 김성연 유정이 덕분에 운동을 시도 때도 없이 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신형이와 윤정이에게 공부에 대한 상담과 영어 단어 쉽게 외우는 법을 배웠다. 5분 안에 모든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경빈이를 본받고 싶고, 토끼 자윤이의 정리정돈법을 본받고 싶고, 민지의 여백의 미를 본받아야겠다.
8. 김아현 정선이 덕분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고마워용 ^^
9. 김연정 1학기 417호 홍현정, 최정화, 마지혜 이 아이들 덕분에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2학기 403호 박주영, 이미선, 김영민 덕분에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해
11. 박은지 백누리랑 밤에 늦게 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박혜련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고, 안수진 덕분에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12. 박지연 민영이 덕분에 밤늦게까지 재밌을 수 있었고, 규원이 덕분에 오빠가 있는 3학년 면학실에 대담하게 찾아가는 법을 배웠고 시영이 덕분에 아침 일찍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은비, 규서, 혜인이 덕분에 기숙사에서 당당하게 고성방가하는 법을 배웠어요!
13. 박한이 방 분위기에 따라 사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다. 지금은(338호) 알아서 잘하는 나로 진화했지만 327호 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생활하는 것도 좋았다.
14. 서지민 지수 덕분에 용감해졌고 지수를 따라 요플레에 시리얼을 과하게 많이 받게 되었고 세연이를 따라 밤마다 정신을 놓고 웃게 되어 웃음이 더욱더 많아졌고 승미의 온화함을 배웠다.
15. 원다희 조영진, 이윤서랑 밤늦게까지 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양은진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이랑 귀요미가 되는 법을 배웠다. 알라뷩~♡ 326~ (332도 사랑해~)
16. 유세연 승미 덕분에 주말 아침도 챙겨먹게 되었고 지민이 덕분에 매일 저녁 한바탕 웃고 자거나 힘든 속얘기도 털어놓았고 1년 동안 같은 방인 지수 덕분에 대담해졌어요! 408호♡
17. 윤영화 강주희 때문에 샤워를 20분씩 하게 되었습니다. 하... 최서연과 이죠이 덕분에 1년 내내 늦잠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18. 이승미 지민이 덕분에 친구의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게 되었고 지수의 넘치는 자신감 덕분에 저도 당당해졌고 세연이에게는 일처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웃음도 많아졌어요! 408호♡
19. 이윤서 전아영 때문에 그 좁은 침대에서 매일 같이 자는 것을 배웠고 오서린 덕분에 매일 밤 즐거웠고 원다희, 조영진 덕분에 챙겨짐을 당했고 ㅎ 양은진의 귀여운 모습으로 많이 웃을 수 있었다.
20. 이현빈 410호 덕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413호 덕분에 밤늦게까지 재미있을 수 있었다. (413호♡은미♡은아♡정민♡)
21. 전서은 404호 쁘니들 덕분에 기상방송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법을 배웠지만 344호가 되며 아침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ㅎ 404호에서는 가벼운 것부터 진지한 것까지 상담하고 344호에서는 날로 영어가 유창해지고 있당. dog profit YeY
22. 전유진 332호에서 아침에 난생 처음으로 자명종 시계를 듣고 일어났고 이젠 332 친구들과 함께 자명종의 시끄러운 소리에도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1년째 같은 호실~ 332들♡)
23. 정윤희 배성연이랑 같은 방 하면서 하루하루를 신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 408호 아침마다 나 깨우느라고 고생해줘서 고마워!! 330호 408호 좋아!! ♡♡
24. 정희원B 407호 활기찬 우리 룸메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너무 크게 불러 혼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25. 조영진 334호 효인이, 유리, 한빛이 덕분에 1학기 동안 사소한 일탈(?)을 배웠고, 옷을 안 입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ㅋㅋ 진지한 상담도 많이 했다. 힐링♡ 326호 다희, 윤서의 성격을 닮아간다...ㅠ 은진이 덕분에 정리라는 걸 하게 됐다! 326 인쓰들 우정해요!!♡♡
26. 조은진 룸메들의 넘치는 끼 보느라고 너무 재밌었고!! ㅅㅇ이랑 아침에 여유 있게 나오면서 상숙쌤의 애정표현 받으면서 나오는 것도 좋았다♡♡ 굴러다니는 알람시계 이름도 지어줬다ㅎㅎ ㅈㅇ이 항상 깨워줘서 고마워♡♡
27. 최서연 윤영화 덕분에 아침운동 끝나고 다시 자는 법을 배웠다. 가족~♡
28. 한서현 재민이 덕분에 말린 과일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말린 과일을 시켜 먹는다.
29. 한예지 샤워 후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오는 ㄱㅈㅇ 양과 ㅂㅎㅇ 양 덕분에 나도 한 꺼풀씩... 이제는 알아서 눈 감아주는 417호♡
30. 허건희 예린이 덕분에 솔직하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나현이 덕분에 매일 밤 너무 재밌었다♡
31. 김지윤 예지 덕에 조금이나마 더 부지런해졌고 효인이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벌레 잡기 스킬 덕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417호 최고♡

1학년 8반

중학교 때와는 너~무 다른 하늘고등학교만의 특징을 하나만 꼽아본다면?

1. 강서진 아까운 시간들과 늘 동선을 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경향
2. 강지수 요가 매트만 있다면 어디서든 잘 수 있어!
3. 공의진 주말: 기숙사→ 식당→ 면학실→ 기숙사→ 식당→ 면학실
4. 김나윤 화장실에서 공부해본 건 처음이다.
5. 김혜원 전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돈 내려가는 소리와 그때마다 조급해지는 나의 마음
7. 박세라 공동구매의 활성화(쇼핑중독→ 시도 때도 없이 아이쇼핑)
8. 박신형 학문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마음
9. 박준희 날이 따뜻해지면 시작되는 벌레, 곤충과 공존하는 삶(말벌은 물론이고 노린재+파리 및 가끔씩 돈벌레 등등)
11. 박혜민 2배속 된 시간
12. 박효인 '몰래' 하는 게 많아졌다. 몰래 공부하고 몰래 먹고 몰래 자고...
13. 배성연 전교생이 교복 '안' 입고 다니는 거! 또 여름에도 바람막이 입고 다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유일할 듯
14. 변자윤 한두 명씩 앞머리가 사라짐.
15. 서수빈 변비로 고통받는 룸메가 쌓아놨던 나의 유산균을 빼앗아 먹음과 변비환자의 증가
16. 석현수 서점도 문구점도 선생님 허락 맡고 가야됨
17. 안수진 24시간 한지붕 아래 사는 가족? 강제가족 ^^
18. 안지현 3달 만에 5kg가 쪘다.
19. 오은미 주저함 없이 매점으로 향하는 즐거운 발걸음
20. 유정선 벌레랑 같이 산다♡ 랄라♪
21. 유지연 공부 분위기만큼은 보장된다.
22. 이수연 친구들마다 챙겨먹는 건강보충제(아이패스, 홍삼, 비타민 등등) + 유산균
23. 이현경 매일 보는 친구들의 퓨어(pure)한 모습
24. 임다희 신발(운동화)을 아껴 신을 수 있어서 엄마가 기뻐하심 ^^
25. 전민지 살이 불어나는 속도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 (1일 1아이스크림은 기본!)
26. 정은비 별 거 아니라 생각한 걸로 기뻐함. 스릴이↑↑ (주말에 느낄 수 있음!!)
27. 조서현 우리 학교는 비와도 비 맞을 걱정이 없다. 게다가 비 오면 아침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28. 조은아 약 한 학기 만에 앞자리가 달라진 몸무게를 발견할 수 있다. ^^
29. 조현주 밥 먹고 나서도 매점을 꼭 한 번은 들르게 되고, 복사를 줄서서 한다는 거.
30. 허세영 교내 연애가 절대 안 된다는 거.
31. 정은수 신체의 변화. 앞머리의 실종

2학년 1반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김대유 모든 학교생활과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기숙사에서 크고(?) 작은 일들ㅋㅋㅋ선생님들에게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절대 못 잊는다.
2. 김성년 선배들, 선생님들 모두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3. 김영웅 남영쌤의 수능 대박 싸인 카드
4. 나일호 김민연쌤, 주변 풍경, 1학년 때 첫 수학시험 점수
5. 문규성 컨퍼 끝나고 들어올 때 건물 위 빛나는 주작
6. 박종성 잠기지 않던 기숙사 화장실. 그리고 그 안의.....
7. 박주영 저는 OT때 아침기상음악으로 바이브의 '해운대'를 들었을 때의 느낌을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거 같아요.
8. 소 윤 많은 게 뒤바뀐 담임선생님과의 1학년 첫 상담, 그리고 페북에서 본 2학년 1반 체육대회 춤 영상...
9. 유현승 이정하쌤 보고싶어요♡
10. 이다원 팔미도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준 우크라이나 미녀, 이라♡
11. 이진우 천도현...쌤? 천도현쌤!
12. 이찬빈 내 생일을 챙겨주었던 수많은 친구들과 편지, 그리고 선물
14. 전승환 하늘고 처음 와서 3박 4일 OT했던 것과, 새학기 시작하고 첫 달. 3월
15. 정구윤 혜경쌤의 얼롸잇~과 유림쌤의 얘들아 안뇨옹~, 존경하는 김성은 누님, 아끼는 영승이
16. 정승원 지금가지 이어지고 있는 1학년 1학기 2층 세 방의 생일파티, 기숙사에서 모여 앉아 몰래 먹던 ○○, 친절하고 열정적이신 선생님들
17. 정유찬 좡융송쌤의 링귀걸이와 원빈
18. 조완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활관과 그 선생님들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19. 조우현 윤달은 4년에 한 번이지만, 소중한 하늘고 친구들 선생님들은 평생에 한번일 듯...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다.
20. 함승헌 1학년 겨울방학, 내 생에 가장 뜨겁고 강렬했던 겨울 방학이었다.

2학년 2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고은별 주말 쉬는 시간에 교무실 앞에 있는 테라스 벤치에서 친구랑 낮잠 잔 거 ZZZ
2. 김세정 1학년 때 토요일 점심시간에 헬스장 매달리는 기구에 매달려 자는데, 모르고 4시까지 잤는데도 안 걸린 거
3. 김태연 임하연이랑 신예나 김현정이랑 방 바꾸기 마지막 날에 울다가 웃다가 화보마냥 폴라로이드 찍으면서 밤 꼴딱 새우고 논 거
4. 문 빛 스페셜 데이 후에 419호(전 룸메들ㅠㅠ)룸메들과 기숙사에서 사진 찍으면서 논 것
5. 박소민 지중해성 기후 같은 날씨에 교과 A동 옆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햇빛 받으면서 과자 먹던 일(혼자 있어도 좋음)
6. 박영주 기숙사 426호에서 금기어 정하고 agree/disagree 판정했던 거ㅋㅋㅋ
7. 백윤진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불닭볶음면 먹었는데 걸려서, 생활관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다. with 첫 룸메, 첫 벌점
8. 송민지 면학실에서 친구들하고 귤 까먹은 거
9. 송은서 싱가폴에서 한 방에 모여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동영상도 찍고, 엽사도 찍고 너무 재미있었다.
10. 신주화 기숙사에서 몰래 룸메 생파 준비하려고 기숙사 문 막다가 룸메한테 맞은 거
11. 안혜민 1학년 지구과학 시간에 진짜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서 누워서 별 본 것
12. 위하영 처음 입학하고 혼자 학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학교탐방을 했던 기억!
13. 유예린 쇼생크 면학 탈출! + 파티 at 싱가폴
14. 이세린 소방대피 훈련이 끝나고 일찍 기숙사 들어왔을 때 1~4층에 같은 복도 사람들끼리 창문을 통해 춤으로 교감한 것
15. 이소정 일요일 주말 아침에 친구들이랑 ○○○○ 보면서 침대에서 먹으면서 논 것
16. 이수민 대광이랑 사람들 잘 안 오는 벤치에서 라면, 떡볶이 등 먹을 것 먹으면서 사람들 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랐을 때!
17. 이수빈A 체육대회 퍼레이드 준비할 때 소민이랑 닌자 퍼포먼스 준비, 표창 만든 거. 소원성취해서 좋았음
18. 이은비B 체육대회 응원전 준비한 것
19. 임수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룸메들이 나 몰래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해줘서 울면서 먹을 건 다 먹었다. ♡사랑해 은비야♡
20. 임하연 1,2학년 방송부 영화제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찼고 그 때 알게 된 선후배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21. 정유연 반 친구들과 주말 저녁시간에 케이크 손으로 먹었을 때
22. 최예슬 선생님 생신 준비하려고 면학시간 빠진 거
23. 최인서 공휴일에 처음으로 따끈따끈한 ○○○○○○○ 급식을 또 먹었다. 그날 급식은 핫도그였다♡
24. 최현정 일요일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까먹고 룸메랑 아침에 라면 먹다가 늦게 나가서 룸메가 치우고 화장실에서 머리 감은 것.
25. 황지은 419호 룸메들과 엽기사진 찍으면서 논 것.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다영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시계 확인하고 다시 잘 수 있을 때 ㅎㅎ
2. 고주은 작년에 친구와 함께 토요일 자유시간에 3층 A동 테라스에서 라면 먹으면서 노트북 했을 때
3. 구서현 일본어 시간에 유수빈 얼굴 볼 때
4. 김두리 '아이스크림 2+1 할 사람!'이라고 외쳤는데 딱 두 명이 손들었을 때 행복♡ 셋이서 어깨동무하고 매점으로 달려간다.
5. 김민우 작년에 친구와 함께 일요일 아침밥을 먹고 급식실 앞 테라스(?) 벤치(?)에 누워서 패딩을 얼굴에 덮고 꿀잠 잤을 때... 또 하고 싶다 ㅠ♡
6. 김보현 세탁기가 다 차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세탁실에 갔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 있을 때
7. 김선민 여름 기숙사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잘 때
8. 김수현 친구와 싸웠을 때 책상에 포스트잇의 사과 편지가 와 있을 때 정말 고마움 (그 덕분에(?) 포스트잇이 많이 필요함...ㅎ)
10. 김채영 친해지고 싶었던 선배가 먼저 말 걸어 주었을 때..ㅎ 행복했다.
11. 문하영 아침 운동 없을 때. 탕비실에서 라면 얻어 먹었을 때
12. 박보영 컨퍼런스 날짜를 잘못 알아서 새벽 한 시 반에 동해시에서 부랴부랴 달려왔던 일
13. 박소은 기숙사에서 새벽 늦게까지 떠들었을 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집에 가기 위한 지하철을 탔을 때 진짜 행복함.
14. 박정언 소등 방송 후에 점검 차 들어오시려는 선생님의 발소리를 듣고 미리 불을 꺼, 점검 뒤에 불 켜고 놀 때
15. 송경화 기숙사나 면학실 위반 스킬이 늘어나고 성공할 때. 아슬아슬하게 안 걸렸을 때 ㅎㅎ
16. 송지영 기숙사에서 룸메들이 나를 위해서 귀신놀이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18. 심하영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도 안 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먹을 걸 베풀어 줄 때 진짜 진심 행복. 유수빈이랑 엽사 찍을 때.
19. 유수빈 여름방학 끝나고 보영이가 준 봉숭아 씨앗을 우리 반 옆 화단에 심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 새싹에서, 꽃에서, 또다른 씨앗을 맺는 과정을 지켜볼 때
20. 유채린 다른 학교에서 보기 드문 전교생과 인사하기.. ㅎ
21. 정다혜 일요일 아침에 기숙사에서 ○○○○○○ 불닭+치볶 먹고 후식으로 로이스 초콜릿 먹었을 때
22. 정지윤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떠들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생일날 면학실 자리에 선물들이 쌓여 있을 때
23. 차하은 생일날 면학실 책상이 편지랑 매점 과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같이 나눠 먹을 때 ㅋㅋ♥)
24. 하수빈 밤에 별 보면서 기숙사 들어갈 때. 멀티실에서 몰래 페북할 때의 스릴감 ㅋㅋㅋ

+익명 4G 시대에 1G, 2G 생활 하는 것,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기숙사 소방훈련 실제 상황처럼 참여할 때, 폐인생활 벗어날 때, 갇혀있는 환경에서도 이벤트 준비 등 할 거 다 할 때, 기상송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올 때

4반의 릴레이 소설

어느날 하늘고 2학년 4반에 여자 전학생이 왔다.

1. 강남욱 "안녕, 얘들아 잘 부탁해." 그리고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2. 강수완 움직일 때마다 파닥거리는 그녀의 흑발 포니테일을 잡아당겨보고 싶다고 생각해버렸다.
3. 김교인 모든 아이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 듯이 그녀를 주시했다.
4. 김민규 그녀와 나의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드리우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5. 김승진 우리 반 애들은 모두 그녀가 자기한테 인사한 줄로 알고 동시에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녀는 당황했다.
6. 김의연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던 정주원 샘이 이 광경을 보았다.
7. 김인성 "야, 이것들아! 썸 타는 것들은 나랑 작두 탈 줄 알아라!!"
8. 김준석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사정없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9. 김창준 잠시 후, 교실이 진정된 뒤 그녀를 보고 있던 나는 그녀에 대해 뭔가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10. 김호찬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그럴 때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는데, 나는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11. 명인선 깜짝 놀란 나는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그녀는 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대답했다.
12. 박규철 나는 신경질적인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 나도 나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13. 박용제 나는 평소에 잘하던 정주원쌤 성대모사 등을 하며 신경질을 낸 그녀를 달래기 위해 재롱을 부렸다.
14. 박정완 "대체 누구를 따라한 거야? 그 사람 말투 엄청 이상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정주원 샘이 이곳을 째려보신다.
15. 박준혁 하지만 정주원 샘은 바쁘신지 그냥 가셨고,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6. 박진우 방해물이 사라졌다. 앞으로 한 시간,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다.
17. 성승우 나는 장난치는 걸 그만 두고 갖고 있던 손수건을 건네주며 진짜 괜찮은 것이 맞냐고 걱정스런 말투로 물어보았다.
18. 송일한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 괜찮아. 아침에 따먹은 버섯이 독버섯이었나봐."
19. 신준용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는 아침에 따먹힌 버섯마냥 다소곳하게 나의 동공을 바라보았다.
20. 오상현 빨리 119를 불러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부르고 싶지 않았다.
21. 오윤석 그 순간, 그 여자가 피를 토하더니 탐스러운 버섯으로 변하고 말았다. 당황한 나는
23. 윤성하 119를 부를지, 버섯을 요리해서 먹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24. 이정현 문득 버섯이 맛있어 보였다.
25. 이창호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버섯이 독버섯일 수도 있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해, 이 버섯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6. 장인후 한참을 기다려도 119가 오지 않자 나는 버섯에게 "난 네 흑발 포니테일을 잡아당겨 보고 싶어."라며 사랑을 고백했다.
27. 정대호 하지만 버섯은 내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나는 그 버섯을 갖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28. 정민기 병원으로 달려가던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버섯으로 변했던 그녀가 다시 그녀의 본모습으로 돌아와 나를 쳐다보고 있던 것이다.
30. 정태수 사람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에게 "내 포니테일을 잡아당기는 걸 허락해줄게."라며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31. 조용완 그녀가 어떻게 버섯이 되었다가 돌아왔는지 신경쓰였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32. 조한빈 그녀는 내 여자니까.
33. 황인혁 (선생님 죄송합니다)

2학년 5반

기숙사에서 2년을 지내면서 '본래의 내 모습'과 달리 친구들과 가장 비슷해진 점은?

1. 강여명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2. 김민욱 안타깝지만 없는 것 같다. 있다면 규칙 잘 어기게 된다는 거?
3. 김범철 여명이를 닮아가고 있다.
4. 김병노 코골이 속에서 잠드는 것이 익숙해졌다.
5. 김성학 과묵하고 젠틀하던 내가 말이 많아지고 유치해졌다.
6. 김영욱 항상 아침점호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체크하는 스릴 넘치는 삶을 배우게 됨.
7. 김정현 효범이 덕분에 순발력과 맷집이 좋아졌다.
8. 김진현 똘기가 충만해지는 것 같다.
9. 김태양 비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0. 김현민 소소한 일에 박수를 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11. 문형섭 거의 매일 밤중에 은밀한(?) 식사를 하다보니 많이 먹게 되었다.
12. 민승용 뛰어난 친구들 덕분에 열정이 생겼다!!!
13. 박성진 애들따라 먹다보니 16년간 콩 만하던 식사량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다.
14. 백승훈 아침에 누가 깨워줘야 했던 내가 살기위해 일어나 애들을 깨우게 되었다.
15. 서준혁 좀 활발해졌다(?) 개방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방 애들 앞에서 옷 갈아입기도 부끄러웠는데...
16. 송승원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전과는 달리 계획이 생겼다.
17. 신창준 순수한 내가 자꾸 입에서 이상한 말을 뱉는다... 이게 다 민승용, 정민기, 최혜성, 함승헌, 윤동규 때문이야.
18. 여시명 치킨이 엄청나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기숙사에서 2년을 지내다보니 왜 '치느님'거리는지 알 것 같다.
19. 윤동규 책 읽는 것 진짜 싫어했는데 요즘은 책 읽는 게 좋다. 일탈 같은 느낌.
20. 이민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
21. 이용훈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중에서도 3번째 룸메 때문에 헛소리와 능청스러움이 늘었음(ㅋㅋ)
22. 이주형 정리정돈에 목숨을 거는 깔끔한 하늘고인이 되었습니다. 민승용 덕분에 사람이 되었죠.
23. 이준엽 새벽에도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24. 장선재 일찍 일어나고 자주 씻게 되었다. (그나마)
25. 장재윤 김교인이랑 지내다보니 일찍 안 가고 싶어도 저절로 일찍 가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
26. 전동현 '윤동규' 때문에 나의 모습에 거칠함이 더해졌다. (하도 장난질을 당하니)
27. 천금환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과 살다보니 '눈치'가 늘었다.
28. 최승환 시험을 망쳐도 1학년 첫 시험 때보다 멘탈이 강해져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됐다. (그래도 힘들다.)
29. 최혜성 여태껏 몰래 속트림을 하던 내가 이젠 친구 따라 트림을 큰소리를 내며 하다 보니 속트림하는 법을 까먹었다.
30. 최효범 순수하지 못한 드립을 입 밖으로 많이 내보내게 된다. (드립력은 원래 있었다. 단지 숨겼을 뿐)
31. 추교영 아침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는 타입이었는데, 2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32. 황상민 중학교 때에 비해 성격이 유해졌다.

2학년 6반

자율 주제 – 뒷 번호 친구와 어울리겠다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의 특징은?

1. 강소영 외모는 성동일 닮은꼴에 오달수처럼 돈 잘 버는 남자. 둘 모두 나영이 이상형이니까~ㅎ
2. 고나영 키는 아담하니 귀엽고 컴퓨터를 잘 고치며 드론을 다룰 줄 아는 남자 ^^
3. 김기림 남자답고 터프한 남자. 덕선이는 여성스러우니까 조화로울 것 같다.
4. 김덕선 키가 크고 춤 잘 추고 재미있는, 권지용 닮은 남자. 키 크고 날씬한 아연이는 지용빠니까 ㅎㅎ
5. 김아연 지연쌤 같은 남자.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유림이가 행복해하니까!
6. 김유림 성실하고 성질 죽일 수 있고 우울하게 하지 않는 남자ㅎ 딱이네ㅎ
7. 김윤서 노래를 좋아하고 하린이를 받아주고 잡아줄 수 있는 남자
8. 김하린 김하연의 짜증을 웃음으로 받아내줄 수 있는 남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쾌활한 사람
9. 김하연 담인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노래 잘하는 남자
10. 박담인 검은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리고 구릿빛 피부의 남자
11. 서예인 딱 보면 머리에 든 게 많고, 깔끔하고 애교 많고 피부가 하얗고 정연이만 바라보는 남자♡♡
12. 서정연 현지의 특유의 개그를 받아주고 자신만의 개그를 가져서 현지를 웃겨줄 수 있는 남자
13. 오현지 와일드한 남자. 다솜이의 불꽃슛을 받아줄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쾌남
14. 유다솜 김밥을 잘 만들고 동갑내기 범띠인 철 지난 패션을 센스있게 소화하는 남자
15. 이도경 유민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유민이의 노래에 랩을 넣어줄 수 있는 자상한 남자
16. 이유민 채린이와 함께 먹방 투어를 즐겁게 다녀줄 수 있고, 약간 특이한(이상한 건가?) 개그 코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17. 이채린 태림이의 투정, 애교 잘 받아주고 요리 잘하고, 태림이의 속마음을 꿰뚫고 미리미리 챙겨주는 공룡상의 김우빈 같은 남자. 키는 186 이상
18. 이태림 똑똑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장난 잘 받아주고 노래 듣는 귀가 독특한 남자(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혜연이의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수현이.
19. 이혜연 돈 많고 전정은한테 보디가드 붙여주고 기사 아저씨 붙여주고 좀 덩치 있는 남자(뭔가 어울린다)
20. 전정은 귀여운 외모의 씹덕 터지는 남자. 아담한 다현이를 보듬어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 입이 작은 남자
21. 정다현 목소리가 좋고 키 크고 성격 좋고 하은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22. 정하은 혜지의 하이톤 목소리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를 가지고 젠틀한 교회 오빠 같은 남자
23. 정혜지 털털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여성스럽고 감성적인 서연이의 마음을 항상 보듬어줘서 서연이를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여자로 만들어줄 남자
24. 조서연 영산이의 음악, 패션, 음식 등에서 취향이 잘 맞고 영산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배려심 깊은 귀여운 남자
25. 최영산 한국 문화와 교집합이 거의 없는 외국 남자. 윤정이는 차이에서 오는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니까.
26. 최윤정 돈 많고 시간 많아서 삼시 세끼를 같이 먹어주는 남자. 뭔가 여유로운 느낌의 건장한 체격(같은 체급의 비슷한 식성)
27. 허우림 유라의 프리함을 메워줄 수 있는 세심하면서도 유라의 장난에 살며시 웃어주는 남자. 얼굴이 베네딕트면 good! (상상했는데 잘 어울려서)
28. 홍유라 스윙스(=지혜 얼굴) 닮은 남자. 지혜의 러블리한 외모 유전자 보존을 위해ㅎㅎ
29. 홍지혜 나영이 같이 재연이의 갈굼을 받아낼 수 있는 착한 남자
30. 안재연 시크하고, 은근히 연약한 소영이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꼼꼼한 남자

2학년 7반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예나 +8kg, 난리 난 7공주, 2인실
2. 김가현 룸메가 있었다는 것. 밤에 감성 터져서 이야기하던 것
3. 김유경 룸메가 외출 갔다올 때마다 사온 것들 다 먹었다가 살찜
4. 김지민 씨엘로 공연, 싱가폴 수학여행
5. 김채리 주말 잔류
6. 김한주 5층 테라스에서 보이는 야경
7. 박민선 1학년 마지막 날 밤에 1학년 7반이 한 방에 모여서 밤새 못다 한 이야기를 한 것!
8. 박소현 아워홈, 일본 간 난리 난 7공주, 룸메들, 324, 312, 510, 438
9. 박정은 최예슬, 안윤영, 김아연이랑 처음 룸메였을 때 다같이 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 먹은 일
10. 배혜연 402호에서 다같이 모여서 떠들다 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월드컵 보러간 것
11. 서연주 학술제 공연하는 날 배 나오면 안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먹고 물도 안 마신 것
12. 성현지 여름에 시원하게 문 열고 룸메 네 명이서 바닥에 누워 영화 보고 먹고 잔 것
13. 신예나 이지원이랑 룸메일 때 시험 전날에 밤새서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새벽 4시에 불닭볶음면 먹은 일
14. 양현주 김한주, 김예리, 홍수지랑 룸메일 때 맨날 3시까지 ○○○○○ 본 거
15. 오정인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여유롭게 아침을 보낸 것
16. 윤소정 맨날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큼 먹었느냐에 상관없이 기숙사에만 오면 배고픔을 못 견디고 소리 질렀던 것
17. 이규배 1학년 때 땡땡이 반티 입고 비 맞으면서 체육대회 한 것
18. 이문영 공중전화 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울고 웃으며 전화한 것
19. 이은비A 씨엘로, 일본♡
20. 이정은 시험 전날 박민선이랑 매번 밤새고 너무 졸려서 아침자습시간에 헛소리 하던 것
21. 이지원 신예나, 박소민, 이은비랑 룸메일 때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먹었던 ○○의 맛. 다 식은 ○○○○○○도 맛있었다!
22. 이하영 박카스 한 박스 사서 시험 2주 전부터 하루에 한 병씩 먹고 부작용 난 일. 김연수가 쓸 데 없이 면학실 자리 찾아온 일
23. 이하은 구지윤의 그날 밤♡ 룸메들 덕분에 행복했던 매일 밤, 그리고 파티ㅎㅎ
24. 이현지 시험기간 면학실
25. 정나리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컴컴한 새벽에 운동장을 도는데 환하게 빛나는 주작과 너무 예뻤던 학교 전경
26. 한윤지 우주 최강 우리 팀과 플래그 풋볼 할 때의 희열감
27. 한지율 423호(두 번째) 살 때 댄스파티 하는데 2층이랑 1층도 같이 춤춘 것 (전설의 소화기)
28. 홍기림 스페셜 데이 치킨, 피자
29. 홍수지 싱가폴에서 일본과의 온천 배틀, 침대 셀카
30. 김지우 김지예, 백명원이랑 밤새서 영화 봤던 일

2학년 8반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인천하늘고의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구지윤 스페셜 데이♡
2. 김다혜 사라진 요구르트콘의 2+1
3. 김락경 2학년 8반에 드나들던 통통한 고양이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안개 낀 아침, 친구들과 바라본 밤하늘의 별자리
4. 김세희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졸림. 기숙사에서 룸메들과 몰래 먹었던 ○○○○○, 바이오팜♡
5. 김수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기한 벌레들. 영종도의 생태계 때문인지, 하늘고 자체의 생태계 때문인지 모르겠다.
6. 김연수 연장학습 끝나고 기숙사 가던 길에 쳐다본 밤하늘. 태어나서 그렇게 별 많은 건 처음 봤다.
7. 김예리 저녁시간에 브릿지에서 보던 노을. 나란히 앉아 계시던 유림쌤과 다예쌤의 뒷모습. 나중에 직장에서 가까운 친구를 만나는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
8. 김유빈 가끔씩 1예 1체를 대신했던 토요일 8시-12시 면학 (=한겨례 토요판+잠+잠...)
9. 김윤영 면학실에서... 아무도 없던 일요일 아침, 혼자 맛있게 먹은 빵과 우유. 추운 겨울, 목베개, 담요, 수면양말, 핫팩, 목도리와 함께 4시간만 자고 일어난 기억
10. 김하은 저녁 식사 후 매점과 4층 공중전화에서 기다리던 기억. 1학년 처음에 전화기 붙잡고 울었던 기억. 마치 80년대 공중전화가 떠올랐달까...
11. 김현정 아워홈. 17년 만에 나의 입맛을 찾았다. 모두가 별로라 해도 난 아워홈 밥이 맛있다.
12. 김혜현 1학년 새학기 때의 기상송 (특히 "현재 시각 6시 20분입니다. 학생들은 굿모닝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멘트도!)
13. 나경미 아침운동 돌다가 본 학교 건물. 건물 하나는 정말 예쁘게 지었다. 주변이 산과 황무지인 것도 한몫 하는 듯
14. 남윤아 잊을 수 없는 5면학실, 라크로스, 원동운 선생님, 씨엘로, 허니버터칩보다는 수미칩
15. 류진하 3박 4일 때의 기상송과 그때 아침운동의 쌀쌀함과 아침공기 냄새
16. 류희조 연장학습 끝내고 본 예쁜 별자리, 1학년 학술제, 크리스마스 즈음의 사건, 기상곡 '해운대'(소름), 세탁실, 면학 끝날 때 기분, 중앙 계단에 심겨 있는 제라늄들, 꽃은 엄청 예쁜데 순 따기를 안 해줘서 그런지 수형이 독특하다 (ㅋㅋ)
17. 문채영 다 쓴 전화카드. 외부와 접촉하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 하물며 여기 밖에서 전화카드 쓸 일이 다시 있을까?
18. 백은서 별, 내가 만든 동아리 COSMOS
19. 안윤영 방 바꾸기 전날 신나게 놀다가 한 번도 걸린 적 없었던 음식까지 걸려서 오랫동안 혼났던 일
20. 유현아 첫눈 내리던 날 연장학습 끝나기 10분 전에 몰래 나가서 보이는 눈마다에 전부 내 발자국 새겨놓았던 일. 뿌듯 (ㅎㅎ)
21. 이수빈B 척박한 학교생활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고자 한심한 짓을 했던 나의 모습. 팬심이 늘었다고 한다. (ㅎㅎ)
22. 이주연 겨울 냄새. 하늘고만의 특유한 겨울 냄새를 맡으면 모든 게 낯설었던 3박 4일 시절과 기상송 Beep이 생각남.
23. 이지현 연장학습 끝나고 기숙사 들어갈 때 본 별들(교과서에서나 봤던 별자리를 실제로 봤다) 뚱땡이 고양이들, 아워홈,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뽀송뽀송하게 잔 거, 공중전화
24. 이진희 A동 예쁜 구름 속 벌레 파티, 종류도 많고 수는 더 많아서 소름 돋는...
25. 이한나 수학의 바이블... 색깔별로 모아놓으면 되게 있어 보인다. 너덜너덜한 종이들 보면 괜히 뿌듯!
26. 이현재 5층 테라스에 심어져 있는 갈대를 보며 친구와 함께 가을을 탔던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었다.
27. 전효정 아직 안 해봤지만 고3 생활이 될 것 같다.
29. 강찬주 체육대회 때 넘어진 거

3학년 1반

지난 3년 동안의 기억 중(하늘고에서의 기억)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분 좋은 기억은?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병훈	과거는 과거일 뿐, 연연하지 말자!
2. 강지웅	2년 동안 별관에서 산 것
3. 고승재	○○외출
4. 김경찬	진로를 바꾸게 한 라크로스 활동
5. 김경태	기숙사 세 명이었던 거
6. 김길재	장학금 받은 거
7. 김도현	매일 새벽 3시까지 놀면서 안 걸린 거
8. 김민성B	400
9. 김민재	기숙사에서 종종 새벽까지 ○○ 먹고 영화 봤던 미친 생활 (수능 40일 전까지)
10. 김보성	별관 2층에서 뛰어내렸던 것
11. 김정근	이다지 선생님 현강
12. 김종찬	하늘고 들어올 때, 하늘고 나갈 때
13. 김준한	2년 동안 아침운동 안 나갔던 것
14. 노성준	기숙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 먹었던 것. 그리고 수요일 6,7교시...
15. 문효경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을 찾았던 기억 ^^
16. 박영호	그녀를 처음 본 순간
17. 박찬우	하늘고 합격했을 때
18. 방관익	정경욱 노트북 탈취 작전
19. 손동찬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일탈들
20. 송용현	급식 1등으로 먹을 때
21. 여평기	수능 보는 날
22. 윤건우	펜스 넘을 때
23. 이민기	집에 갈 때
24. 이주형	비 맞으면서까지 체육대회 했던 거
25. 이창헌	기숙사에서 놀았던 거
26. 이태현	밤새 과자 먹고 떠들다가 단체로 새벽에 축구 보러 내려갔던 거
27. 임세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는 없는 법
28. 임창현	1학년 때 넘치던 시간
29. 정경욱	1학년 때 특기교과 랜선 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
30. 허 준	3회 연속으로 열정장학금 받았던 것

3학년 2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지수	교무실에 계신 좋아하는 선생님들께 찾아가 선생님들 귀찮게 했던 기억
2. 고우림	기숙사에서 룸메들과 맛있는 것도 몰래 먹고 늦게까지 떠들고 몰래 ○○○ 가져가서 ○○○○○ 즐거웠던 기억 (1학년 때)
3. 구민수	룸메들이랑 밤늦게까지 깨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 먹다가 배불러서 소화될 때까지 또 놀았던 것
4. 구정연	2학년 때 룸메 윤희진, 정진아, 이예주(1학기), 정진아, 이예주, 구민수(2학기)+김소연A랑 놀고 먹고 자고 hot place였던 거. 오래 가자!
5. 김경민	1학년 체육대회. 모든 경기를 휩쓸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음. 특히 응원전 환호 소리! 너무 좋았음.
6. 김민아	다양한 곳을 탐사하며 몰래 공부했던 기억^^ (예) 생물실, 일본어실, 회화실, 상담실, 헬스장, 급식실 등
7. 김성은	방에 룸메들과 사감쌤 눈을 피해 파티+○○○○ 놀 때 (ㅋㅋ)
8. 김소연B	최상규 선생님 교복. 이예!
9. 김은별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었던 거
10. 김지예	진짜 피곤했던 날, 기숙사 들어가면서 혼자 상쾌함을 느낄 때
11. 김찬희	체육대회 때 지현쌤과 사진 찍은 거
12. 박민경	공부 안 되는 날 친구들이랑 미친 척 하고 논 추억 (ㅋㅋ)
13. 박지우	입학했을 때 (대학 신경 안 쓰고 합격의 기쁨만 온전히 누릴 때), 좋은 친구들 만났을 때
14. 신정음	몰래 먹을 때!! 뭐든 맛있다.
15. 양한비	친구들이랑 모여서 떠들 때
16. 윤예린	룸메들과 기숙사에서 몰래 ○○○○ 먹으며 ○○○ 볼 때 깜깜한 밤에 테라스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17. 윤희진	면학실 책상 구멍으로 자고 있는 친구들 몰래 훔쳐볼 때, 자습 끝나고 친구들과 기숙사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18. 이예주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 먹던 기억
19. 이은서	일요일 오전에 체육관 앞에서 ○○를 먹은 거
20. 이정인	밴드부실에서 친구들과 노래방 기계로 미친 듯이 노래 부르며 놀았던 기억
21. 이지원	기숙사에서 ○○ 먹었던 기억
22. 이진솔	1학년 때만 실시했던 기숙사에서의 소지품 검사 때, 운 좋게 내 가방만 검사하지 않아 기숙사에서 룸메들과 영상 보며 놀았던 짜릿한 기억! (ㅋㅋ)
23. 이채복	컨퍼런스날 집에 가는 준비를 하는 순간♡
24. 이채은	기숙사에서 밤에 몰래 영화 보고 간식 먹고 떠들 때!
25. 임해경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구름다리에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
26. 조윤지	1학년 체육대회 1등한 기억♡ 2학년 체육대회는 비 맞으면서 했다가 감기 걸리고 배탈난 거
27. 지가은	룸메들과 몰래 파티했던 기억+친구들과 이곳저곳에서 놀았던 기억
28. 최미나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으면서 놀았던 추억
29. 최소영	10월 9일, 담임쌤이랑 3학년 2반이랑 고기 구워먹은 일!
30. 홍인아	매일

3학년 3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병헌 강당. 하임의 아지트
2. 김경오 면학실 3년 동안 제일 많이 있었다.
3. 김민성A 기숙사 방. 그냥 편하다.
4. 박범석 강당. 내가 기타를 연습한 곳이다.
5. 백승하 교실 테라스.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고 정신 사나운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다.
6. 송솔빈 기숙사 방. 진짜 방에 별 거 없는데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
7. 이익존 기숙사. 여러 가지 했다.
8. 이재하 면학실 앞 테라스. 공부하다 나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9. 황준희 체력 단련실. 운동을 하다 보니 미운 정이 들어버려서.
10. 강희구 기숙사 5층 501호 앞 테라스. 2학년 내신 대비 기간 때 신문지 깔고 별을 보며 컵라면을 먹었음^^. 기숙사 앞 벤치, 4층 구름다리. 친한 친구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마음의 안식을 얻음.
11. 구지은 기숙사 잼
12. 김다영 기숙사. 다양한 추억이 많다.
13. 김소현 기숙사. 라면, ○○, ○○○, 케이크, 과자, 도넛... 파티하면서 많은 추억이 생겼고 살도 생겼고 행복했다.
14. 김지희 5층 면학실 옆 테라스. 예쁜 풍경 보면서 친구들이랑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울타리(?) 넘어서 면학실 창문 찍고 오는 거 무서웠지만 정말 해볼 만했다. ^^
15. 김혜미 등산로. ○○○○○접선 장소ㅋㅋ 이거 보고 찔리는 사람 우리 반에 꽤 있을 듯
16. 김혜주 기숙사 테라스. 커튼 치고 몰래 먹는 음식이 젤 맛있다.
17. 라유미 기숙사. 룸메들이랑 많은 추억도 쌓고 제일 편하다.
18. 민현경 기숙사. 가장 편하고 추억이 제일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19. 박미리 면학실 앞 테라스. 하늘을 볼 수 있다.
20. 박소연 5층 테라스. 가을 하늘이 예쁨. 뭐 먹기 좋음.
21. 박소영 면학실 앞 테라스. 자연 바람 시원함. 학교 산택로. 예쁘기도 하고 돌면 좀 답답한 거 풀리기도 하고.
22. 박소정 기숙사 방. 제일 편한 곳이어서
23. 박예리 특4. 거의 아무도 안 와서 주로 혼자 썼던 곳
24. 박혜민 특4. 친구 따라 갔다가 고요함에 자주 찾았던 곳
25. 서한나 5층 면학실 옆 테라스(4층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탁 트여서 풍경도 예쁘고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인다.
26. 신재림 기숙사. 희로애락이 다 있어서 흥미진진함.
27. 임애린 면학실 앞 테라스(5층). 좋음.
28. 전경린 5층 면학실 테라스. 날씨 좋을 때 나가면 '광합성' 하기 좋다.
29. 정진아 기숙사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어서
30. 최윤미 매점. 주스를 향한 애 사랑은 물론이고, 계획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31. 한영선 면학실 기둥 뒤. 그냥 좋음.

3학년 4반

지난 3년 동안의 기억 중(하늘고에서의 기억)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분 좋은 기억은?

1. 공기문 마치 사과 같은 민호쌤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2. 공성호 성공적인 리틀 민호의 탄생!!
3. 구건모 의사 가운 입고 면접 봤을 때
4. 김도훈 매일! ㅎ
5. 김상건 력시 어차피 우승은 전 MINO
6. 김상현 전에 오빠차 공연 했을 때 정말 즐거웠다. 얘들아! 호응해줘서 고마워.
7. 김세열 민호쌤의 영원한 노예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8. 김지운 호나우두 빙의했을 때 (1체 축구)
9. 김태인 쌤이 아이스크림 사주셨을 때
10. 방건호 정말 아이스크림 사주셨을 때
11. 안성준 말 안 해줌.
12. 우진영 로맨틱 가이 민호쌤이 아이스크림 툭 던져놓고 가실 때
13. 이경호 감동적인 스승의 날 카네이션 사건
14. 이영준 사랑스런 MINO's Son 탄생!
15. 이주영 드문드문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던지고 가실 때
16. 이화준 리(이) 순간
17. 이희우 고급진 외모의 민호쌤과 함께 한 1년
18. 전기호 저질스러웠지만 색다른 추억으로 남았던 작년 학술제 공연!
19. 전우진 희망을 가져다주신 민호쌤!
20. 조승헌 잊을 수 없는 졸업사진을 찍었을 때
21. 조해원 지훈이가 지렁이를 죽였을 때
22. 최민주 마흔 여섯 칠공 년생 전민호 쌤과 함께 한 일 년의 시간
23. 최지훈 세 명의 남학생이 참여했던 2015년 학술제 무용부 공연
24. 허준명 요거 앞글자만 따서 읽어보세요!

3학년 5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고영재 운동장. 점심시간, 저녁시간, 체육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많이 했다.
2. 김수민 207호. 매일 1시 반에 자서
3. 김종수 308호. 내 인생의 평생 친구를 찾은 곳
4. 김태원 어학실. 우리 멤버와 ○○○○○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공간
5. 김태훈 3학년 5반 교실. 아름다운 고3 생활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 그곳
6. 노주원 기숙사. 가장 마음 편히 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
7. 문경덕 3학년 3층 특기교과실. 겨울방학 때 거기서 재밌게 놀았다.
8. 문지원 체육관 옆 동아리실 쪽에 있는 화장실. 사람이 없어서 똥 싸기 좋은 데
9. 박동환 기숙사 화장실. 친구랑 같이 샤워도 하고 물총으로 전쟁도 했어서 즐거웠다람쥐
10. 서형석 2층 B동 복도. 오리걸음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곳
11. 성민석 233호 기숙사. 지휘와 더불어 많은 친구들에게 내 한 몸 희생해 무료봉사를 했다. 보람찼다.
그 결과 우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2. 손원태 gym. 1학년 축제 때 DJ 형님의 디제잉에 맞춰 춤췄던 게 가장 재미있었음메
13. 신형섭 기숙사.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14. 안진홍 5층 면학실 야외 테라스(동쪽). 여름이나 가을 아침에 종종 양떼구름이 뜨는데, 동쪽이고 시야도 넓어서
감상하기에 좋음.
15. 윤지휘 229호 기숙사. 민짱과 더불어 많은 친구들에게 내 한 몸 희생해 활력을 불어넣어주곤 했다.
그 결과 별관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16. 이도학 공중전화. 장난전화 많이 함.
17. 이승희 우리가 3년 동안 미치도록 뛰고 웃었던 운동장이 가장 좋다. 힘들어도 운동장 덕분에 3년이 즐거웠다.
18. 이완상 A동 2층 야외 운동장 쪽 통로. 주말에 거기 앉아서 포카칩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웹서핑을 하곤 했다.
19. 이호준 3학년 5반 교실.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3학년을 지낸 장소
20. 장재호 하늘 아고라 급식실 앞. 3년 동안 재미있게 원바를 한 곳. 많이 쫓겨나기도 했다.
21. 정우성 기숙사. 편안하고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은 공간이다.
22. 정회룡 3년 동안 썼던 교실들. 각 교실마다 즐거운 추억이 많다.
23. 조형용 체육관. 1학년 때에 비해서 농구 실력이 많이 늘었다.
24. 조형조 2학년 이과 쪽 특기교과실. 친구들이랑 ○○○○○ 같이 먹음.

3학년 6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강재언 미래의 국민 배우, 박승준 팬 카페를 개설했던 것
2. 고승규 수학여행 첫 날부터 안경이 부러져서 보호자 한 명 끼고 여행했던 것
3. 김기한 동환이 눈에 불닭볶음면 소스 들어가서 비명 질렀던 것
4. 김대희 1학년 때 선생님들과 야구시합 했을 때, 익존이가 상규쌤한테 삼진 당했던 기억
5. 김성찬 건민이 지갑 잃어버린 거
6. 김용호 1학년 여자애가 원명이 팬티 봤던 거
7. 김지윤 2학년 겨울방학 PM · 12시부터 AM · 11시까지 슈베뉴 스타리그에 참가했을 때
8. 류상준 중국 수학여행 가서 호텔에서 놀았던 거
9. 박건우 수업시간에 ○○○○○ 게임할 때
10. 박세웅 세라가 입학했을 때
11. 박승준 옥수민이 똥 싸고 시계 빠뜨렸을 때 행복했다. 으하하~ 우헤헤~ G샥 시계~ 우헤~
12. 박준호 2학년 때 밴 애들이랑 펜션 가서 놀았던 거
13. 배범준 용호와 남자 화장실에서 1학년 여자애와 마주쳤을 때. 용호야 미안해.
14. 서동우 농구 대회 나갔던 것
15. 안해인 원바할 때
16. 옥수민 똥 싸고 시계 빠뜨렸다가 재빨리 주웠는데 승준이랑 눈 마주쳤던 거
17. 이건민 기숙사에서 핸드폰 했던 것
18. 이승연 돈 걸고 게임했던 거
19. 이원명 1학년 여자애가 내 팬티 봤던 거 (김용호가 바지 내림)
20. 이종욱 병무청 신검
21. 정경환 박동환 생일날 테러 당했던 거
22. 정찬호 손예진 봤던 거
23. 천의범 대답 이상하게 해서 창재쌤과 혼쭐났을 때~♪

3학년 7반

지난 3년 동안의 기억 중(하늘고에서의 기억)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분 좋은 기억은?

1. 강석희 2학년 체육대회. 비가 왔지만 그만큼 더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다. 압도적으로 우승한 것도 의미 있고 ㅋㅋ
2. 강지우 1학년 수학여행. 며칠 동안 중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즐겁기만 했던 여행
3. 김나래 1학년 수학여행.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긴 했지만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서 그냥 좋았다.
4. 김서현 전교생의 얼굴을 담아 콜라주를 만들어 전시한 것이 자랑스러웠고, 선수학습 때 앳된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5. 김소연A 1학년 때 학술제 '하늘클럽(?)'이 제일 정신없이 재미있었던 것 같다. 라크 전국 3위도 뿌듯!
6. 김은비 2학년 때 스승의 날 기념(?)으로 삼겹살 먹었을 때 3기 전체가 물놀이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7. 김지영A 2학년 지혜 쌤의 생신 이벤트! '잊지 못할 생일'이라고 표현하신 지혜 쌤께 감동을 느낌!
8. 김지원 1학년 말 학술제. '-X5'로 굉장한 무대를 연출했던 것!ㅋㅋ 그 외에도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등 완전 많아서 현기증 남.
9. 김채원 3학년 7반에서 스승의 날 이벤트로 '도전 지혜벨'을 준비하고 성공함! 어벤지혜도 인상적이당ㅋㅋ
10. 김혜연 1학년 때 중국으로 갔던 수학여행! 왕푸징 거리가 조금 무섭긴 했지만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11. 신가은 농구시합 보았던 것. 실제로 농구시합을 경기장에서 본 것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12. 신정은 2학년 지혜 쌤 생신날 엄청 크게 이벤트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13. 안지우 친구들끼리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1학년 때 갔던 수학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4. 유지영 1학년 때 수학여행 갔던 것.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첫 해외여행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다 ㅎㅎ
15. 이다슬 중국 수학여행! 오사카가 취소돼서 중국을 가게 됐지만 친구들이랑 기숙사에서 같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고 정말 즐거웠음!
16. 이소희 체육대회 날에 비 맞으면서 피구 시합을 했다. 물에 젖은 공을 옷으로 열심히 닦아준 기억이 난다.
17. 이수빈 2학년 때 체육대회 우승!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 먹은 거. 그날 진짜 기분 좋았다ㅋㅋ
18. 이연정 3학년 7반의 스승의 날 이벤트. ㅋㅋ 애들 진짜 귀엽고 엄청 열심히 골든벨을 했다. 12년 중에 최고의 스승의 날 이벤트였음.
19. 이정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1학년 학술제 때 춤췄다는 거! 가장 기분 좋았을 때는 2학년 때 추석맞이 큰 선물 이벤트가 성공했을 때.
20. 이태경 2학년 지혜 쌤 생신 때 했던 이벤트. 3학년 스승의 날 이벤트 등 우리 반이 함께 했을 때!
21. 이현주 3학년 7반 스승의 날 이벤트! 그때 반 단합력 엄청났다 ㅎ '지혜 골든벨'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2. 임수빈 3학년 스승의 날 지혜 골든벨~! 특히 마지막에 "3학년 7반 사랑한다.", "선생님 사랑해요." 완전 감동 ㅠㅠ
23. 임연진 작년 1학기 때 426호 룸메들과 마지막 날 밤에 라면 7개 먹고 영화 보면서 밤샜던 거 ㅋㅋ
24. 임채현 1학년 중국 수학여행이 기억에 남는다. 묵은 양말 맛 나는 음식이 정말 인상깊었다.
25. 주지연 별 고민 없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1학년 때 수학여행이 기억에 남는다. 벌써 너무 그립다 ㅠㅠ
26. 최혜재 2학년 체육대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열기로 뜨거웠던 격렬함을 잊지 못한다. 차가운 도시락마저 맛있었다 ㅋㅋ
27. 한혜진 하늘고에서의 첫날! 처음 기숙사 생활을 해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다.

3학년 8반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당신만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 푸른 꿈을 안고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는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1. 고승희 첫 방이었던 528호에서의 추억! 기숙사 생활지도가 가장 강했을 때라 더 재밌었다. 첫 벌점을 받던 날. 여인숙 사건, 캐비닛 감금(?) 사건 등 매일매일 시트콤 같았다. 사감 선생님께 안 들키려 제습기 틀고 노래 부르며 흥을 키운 것 같다. 전경린, 윤희진, 손채연 즐거웠어!
2. 구희경 룸메들과 몰래 파티하다가 사감 쌤이 들어오는 소리에 엄청난 순발력으로 치운 사건ㅋㅋ
3. 김문주 음식○○ 처음 ○○먹었을 때
4. 김지영B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먹거나, 드라마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야기한 것 (몰래한 모든 것 ㅋㅋ)
5. 김채린 기숙사 들어가고 점호하기 전까지의 시간ㅋㅋ 그리고 이수빈 생일날은 잊을 수가 없을 듯
6. 김초은 429호 살 때 어느 날 새벽 신발이 사라졌다 (ㄷㄷ) 신발귀신인가 신발도둑인가 쨌든 뭐시기 너무 무시무시했어 (ㄷㄷ)
7. 류승주 룸메들과 몰래하는 파티랑 일요일 자유시간에 늦잠자기
8. 박다정 2학년 426호 룸메들과 마지막 날에 컵라면 7개+영화로 밤새고 아침운동 1등으로 나간 일
9. 박수현 2학년 여름방학에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밤새고 바로 아침운동 나간 것
10. 박예빈 어떤 친구 엉덩이 발로 차서 안 잡히려고 뺑 안 치고 학교 모든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잡혀서 신나게 맞은 날...
11. 박희진 애들 샤워할 때 문 따고 놀린 것ㅋㅋ 예빈이 ㅋㅋ ← 룸메일 때 샤워할 때마다 문열어서 내 알몸 훔쳐봄...
12. 백명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며 얘기한 일
13. 백지원 기숙사에서 밤에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14. 복지현 기숙사에서 룸메들과 밤새 노래 부르며 쌩쇼한 거 (ㅋㅋ)
15. 손채연 최소 빅뱅 노래만큼은 1인 5역으로 춤, 노래, 랩을 담당하며 기숙사건 교실이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흥과 끼를 방출! + 1학년 5반 쫑파티!
16. 위인미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서로 화장하고 해주면서 결국 분장이 되었던 것. 1학년 때 아이라이너 그리고 다 같이 기숙사에서 일 벌인 것
17. 유지우 학술제 동아리 부스 정리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며 놀았던 거. 내 아지트에서 애들이랑 수다떤 거. 추첨에서 케이크 나눠먹은 거.
18. 윤다영 1학년 때 룸메 생일 때 방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매달고 그 줄에 사진을 걸어놓는 등 엄청난 이벤트를 했던 것
19. 윤화진 3학년 때 친구랑 간식시간에 기숙사 옆길로 산책하면서 수다 떨었던 것
20. 이수진 친구와 함께 밤에 별 보며 산책했던 거
21. 이영주 429호 때 우리 신발 가져간 신발귀신(ㅋㅋ) 우리 너 누군지 다 알고 있다!!
22. 이예진 이수빈 생일날 침대에 난리 치고 수건 더럽혀서, 사감 선생님들께서 징계 준다는 말 듣고 그 친구들이랑 운 것(민망)
23. 이유진 509호에 살 때 룸메 희진이의 부은 얼굴을 아침마다 마주한 것
24. 이채빈 롯데리아(최&강ㅋㅋ), 536 Blossom, 107 텐진 광란의 밤, 콜리씨 등등 떠올려 보면 소중한 추억들이 참 많은 것 같다♡
25. 정유진 기숙사에서 저녁 시간에 룸메들과 자체 야영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논 것. 3학년인데 너무 즐거웠다.
26. 정혜영 기숙사 이방 저방 몰래 숨어 다니며 밤새도록 신나게 놀았던 날들
27. 조성연 1학년 때 야외 계단에서 별 보면서 애들이랑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했던 거
28. 조은지 시험기간 도서관 의자에 발 뻗고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눈앞에 상규샘이 ▯!! 너무 놀라 그대로 자빠졌음. 아팠지만 그 순간은 왠지 좋았음(응??)

STAFF

교 사 이영종
김민희
김성민

3학년 이태현
김민성
최미나
김소연

2학년 김지민
정구윤
정유찬
조우현
박종성
문하영
위하영
임하연
안혜민
문규성
소 윤
이한나
박소현
정다현
송경화
유수빈
김채영
송일한
김성학
박진우
이현지
서연주

1학년 안수진
이승미
서정훈
박형규
송영승
배성준
최승민
백누리
오성민
김선혁
박효인